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우리이웃

현대불교

원적외선 사찰 난방 전문
- 난방비가 저렴합니다 -
고정협찬 : MBC-TV 러브하우스,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중앙일보와 KTDOM의 베스트 추천업체
시 공 처 : 통도사 백운암, 변산반도 월명암, 정선 불암사, 철원 장안사, 서울 불광사, 북한산 삼봉사, 포천 장안사, 기평 불광사 법흥사 등
웰핑 코리아 http://www.wbkor.co.kr 전화 02)538-8489, 551-3010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1월 19일(음력12월 10일) 수요일 (주간) 제509호

남아시아 '자비해일' 출렁~

한국불자 현지 도착 '천수천안' 활동 개시

조계종 의료구호봉사대 스리랑카 탕갈라서 '진료'



남아시아 지진해일 쓰나미의 피해현장에서 의료봉사 및 구호활동을 펼칠 조계종 의료구호봉사단 선발대는 현지시간 1월 12일 0시 30분 콜롬보 공항을 통해 스리랑카에 입국한 뒤, 이날 밤 10시께 콜롬보에서 110마일 거리에 있는 남부해안 탕갈라(Tangalle)에 도착했다.

의료구호봉사단 부단장 인오 스님(조계종 사회국장)과 정성호 동국대 학생처 학생복지실장(참사람봉사단 부단장), 이용권 조계종 복지재단 사무국장 등 7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는 도착 즉시 탕갈라 보건소 측의 협조로 해양기술대학 기숙사에 여장을 풀고 13일 오전 의료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탕갈라를 포함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함반토타 등 주요 피해지역과 진료 예정지를 돌아보았다.

현장답사 마치고 본격활동

이들 지역은 피해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안가의 가옥은 뼈대만 남은 곳이 대부분이었으며, 침수당시 남은 쓰레기가 그대로 있는 곳이 많았다. 커다란 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 가운데 걸쳐 있었고, 높이 15m의 송전탑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돼 있었다. 10톤이 넘는 배가 육지에 올라와 있는 모습도 목격됐다.

5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함반토타는 해안가의 제방을 우선적으로 복구했지만, 해일로 파괴된 가옥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무 위로 옷가지와 쓰레기 등이 걸쳐 있는 모습도 보였다. 10%의 가옥이 완파 또는 반파된 탕갈라의 상황도 함반토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해안가 도로는 복구됐지만, 주변의 가옥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조계종 의료구호봉사단이 활동하게 될 탕갈라가 포함된 함반토타도 4천5백여 명이 사망하고 1400여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막대했다. 피해가구수가 3739가구에 달해 37개 이재민 캠프에 흩어져 있는 상태다. 게다가 지진해일로 임시 휴교했던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지만 사망자와 실종자가 많아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곳곳에서 복구를 위해 땀을 흘리는 모습이 목격됐다. 군인과 청년들이 피해가 심한 함반토타 지역에서 복구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의료당국은 콜레라, 말라리아 등 전염병 출몰을 우려하고 있으나,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함반토타에서는 현지 병원과 타이완 자재공덕회 의료봉사단의 진료가 진행되고 있다.

사찰 피해 일부 해안가만

스리랑카 해안가의 피해가 심각하지만 사찰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지진해일의 위력이 바닷가로부터 100m 내외까지 미쳤으나, 스리랑카의 사찰은 대부분 바닷가와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해안가에 위치한 사찰과 야외 불상도 침수 외에 전각이나 성보의 훼손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오히려 해안가의 사찰과 야외 불상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골(Galle)의 해안가 마을에서는 지진해일로 마을 전체가 파괴됐으나 야외에 설치된 불상 4기는 훼손되지 않았다. 또 함반토타의 해안가에 위치한 사찰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주변 주택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셔졌다. 이로 인해 파괴되지 않은 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입소문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선발대는 1월 15일까지 현지 피해조사, 의료캠프 설치, 숙소 마련, 구호차량 준비, 의료약품 및 구호품 구매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 의류 및 수건, 칫솔·치약 등 5백여만원 상당의 긴급 구호품도 활동예정지에 배포한다.

선발대 정성호 부단장(동국대 학생복지처 실장)은 "현지사정으로 진료장소와 현황 조사가 쉽지 않은 상태지만, 의료구호단 본대가 도착하는 1월 15일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0여명으로 구성된 의료구호봉사단은 1월 16일부터 24일까지 탕갈라와 함반토타 등지에서 2~3곳의 진료소를 마련해 의료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스리랑카 탕갈라=박봉영 기자





너와 내가 없고 인종과 국가도 뛰어넘는 부처님의 자비정신이 온누리를 환하게 밝히고 있다. 조계종은 1월 12일 서울 종로를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자비의 탁발을 전개했다. 아래 사진은1월 16일부터 24일까지 탕갈라와 함반토타 등지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칠 조계종 의료구호봉사단 선발대로 참가한 조계종 사회국장 인오 스님이 현지인들의 애로점을 파악하는 모습. 사진=박재완·박봉영 기자

'거리탁발' 전국서 뜨거운 동참

남아시아 피해민을 위한 불교계의 구호활동과 성금모금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1월 12일 조계종 총무원의 '자비의 탁발'을 중심으로 남아시아 피해민 돕기 성금모금을 위한 조계종의 거리탁발이 서울 부산 대구 강릉 청도 고령 등 전국 각지에서 진행됐다. 관련기사 9·10면

거리탁발은 이달 말까지 각 지역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대전 천안 예산을 비롯한 충남 7개 지역과 마산 창원 의성 안동을 포함한 영남 6개 지역, 원주 속초 등 강원 지역, 의정부 등 수도권 지역에서 계속 전개된다.

종단, 단위 사찰, 불교단체들의 모금운동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태고종이 사찰별로 모금운동에 들어간데 이어 사태 직후 곧바로 성금을 전달했던 천태종도 전국 단위사찰별로 성금모금을 시작했다. 송광사 백양사 등은 교구본사에 모금함을 설치했다.

조계사는 1억원의 성금을 조계종 총무원에 기탁한데 이어 9일부터 12일까지 경내에서 피해민 돕기 바자회를 개최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대안학교 '몽(夢)' 3월 개교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 불교 첫 '도시형'

불교계 최초의 도시형 대안학교 '몽(夢)'이 3월 역삼청소년수련관내에 개교한다.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총재 도영)에서 위탁운영하는 역삼청소년수련관(관장 박동녀)이 설립한 도시형 대안학교 '몽'은 지하3층, 지상6층 규모로 수영장, 체력단련실, 예절교실, A/V스튜디오, 멀티미디어교육실, 음악 및 댄스연습실, 골프연습장, 체육관 등을 구비하고 있다.

교과과정은 고입 대입 검정고시 중심의 기초학력을 다지는 기본교과와 사회적 인간관계, 직업, 여가 등을 다루는 3개 영역교과가 개설되어 있다. 문화유적 답사, 요가, 문화체험, 나눔의 집 탐방 등 정규교과목에서 불교적인 요소들을 적절히 배치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1년 2학기제로 시작하는 '몽'은 15~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1월 17일~2월 19일까지 15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대안학교 '몽'은 2006년 정원 확대 및 2년제로 학제개편을 꾀함과 동시에 2007년 장애 비장애 청소년 통합교육을 시도해 학력인정 학교로 거듭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02)550-3625, www.gyyc.or.kr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개혁 위한 종교인 네트워크 결성

각 종단 20여 단체

종교인들이 각 종교의 개혁과 자정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의 20여개 종교단체들은 1월 13일 오후 '우리함께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각 종교의 쇄신과 자정을 위한 가칭 '개혁을 위한 종교인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창립 작업에 들어갔다.

네트워크는 각 단체별로 자정운동을 지속함과 동시에 워크숍 등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종교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등 구체적 경험을 공유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학내 종교자유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해 청소년들의 종교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계획이다.

유철주 기자

사이버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개설

나눔의 집, 이달말 오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 집(원장 원행)은 인터넷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둘러 볼 수 있는 사이버 박물관을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될 사이버 박물관은 일제시대 일본군 성폭행으로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주목적을 두고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본어, 영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나눔의 집 안신권 사무국장은 "개설 후 학술자료제공과 사전답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것"이라 밝혔다. 사이버 역사관에는 할머니들의 그림, 유품 등도 함께 전시되며 1월 말에 정식 오픈 할 예정이다. 031)768-0064

김강진 기자

새연재 박영준 교수의 '과학기술과 불교' 13면

현대불교 제10회 신행수기 시상식
- 때: 2005년 1월 29일 오후 2시
- 장소: 동산불교대학 강당(조계사 인근)

현대불교 2004년 합본집 발간 <2면에 안내 사고>

'현대불교' 영구독자를 모십니다

'현대불교'는 지난 경험과 열정을 토대로 새로운 10년의 도약을 준비하면서 함께 불교발전을 일굴 영구독자를 모십니다.

■ **영구독자 혜택**
현대불교신문 영구독자에게는 평생 신문을 보내드리며, 자녀에게도 혜택을 양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영구 구독료** 62만5천원(일시불 납부)

■ **구독신청 및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TEL: 직통 (02) 737-0090 / 대표 02-737-8881
FAX: (02) 737-0697

스마트폰 '아이 벗' 무료 증정

독자님들의 성원에 따라 선착순 1000명에 한하여 영구 구독을 신청하시는 분께는 불자들을 위한 스마트폰(HP rw6100 기종, 시중가 72만6천원) 아이벗(I-BUD)을 무료로 드립니다.

■ **아이벗(I-BUD) 제공조건:** 18개월 의무사용, 가입비 3만원 별도

■ **아이벗(I-BUD):** 아이벗의 i는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인드라망(Indranet) 또는 인터넷(Internet)의 의미며, BUD는 Buddha(부처), Buddy(친구)를 뜻합니다.



'할'



그림·조태호

경조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을 유 년 새 해 자 비 광 명 온 누 리 에

"좋은 인연입니다"



(재)대한불교 조계종 안국선원

선원장 수 불

www.ahnkookzen.org

■ 법인사무국 : 051)892-9803 | 부산 : 051)892-9877 | 서울 : 02)732-0772 | 창원 : 055)281-0772
■ 미국휴스턴 : (0011)713 467-0997 ■ 뉴질랜드 오클랜드 : (001-649-4126442)

포교원 · 교육원 10년 집중진단 <상> – 신도등록사업 어디까지 왔나

재적사찰 갖기 뜻 못살려 신도들 '외면'

매년 3만여명 등록해도 갱신율 13% 그쳐
교무금 · 재교육 부담…발급혜택 모색 필요

조계종 포교원과 교육원이 1995년 별원으로 독립해 올 1월로 10년을 맞았다. 그동안 두 원은 조계종의 각종 포교사업과 승가교육 제도화 등에 성과를 이뤄냈지만 유독 신도등록 사업과 강원교육 체계에 대해서만큼은 제대로 손을 대지 못했다는 평가다. 본지는 포교원 교육원의 별원화 10주년을 맞아 신도등록 사업과 교육원의 강원교육체계에 대해 집중 점검해 본다.

신도등록 사업의 출발 배경

조계종에서 신도증 발급 사업을 시작한 배경에는 '재적사찰 갖기 운동'이 있다. 불자들에게 소속감을 갖게 하자는 의도에서 재적사찰을 갖고 조계종 신도증을 만들자는 것이 시작이었다.

1000만 불자라고 말해왔던 불교인구 가운데 조계종 신도등록을 한 신도 신규 누계는 2004년 10월 기준으로 31만4648명. 매해 3만명 정도가 꾸준히 신규 등록을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신도(재)교육에 매진하면 등록비율은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막상 신도등록에서 부딪치는 문제는 총 신도등록자의 13% 정도만이 다시 교무금(1만원)을 납부하고 신도증을 갱신했을 뿐이라는 빈약한 현실이다. 개종을 하거나 사망 등으로 말소된 신도수를 제하면 2004년 10월 기준 등록신도는 30만7426명에 불과하다.

'관람료 패스카드'로 전락한 신도증

교무금 재납부율이 13%로 낮은 원인은 어디에 있나. 신도증 발급을 시작했을 때 국립공원 무료입장이라는 '잿밥'이 '조계종도로서의 자긍심과 의무'라는 측면보다 더 크게 부각됐다. '잿밥'의 부작용은 신도증을 국립공원 무료입장패스로 전락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그나마 월정사, 백담사, 신흥사, 계룡산 일대 등 일부 국립공원에 무료입장이 불가능한 현재는 이 완전치 못한 잿밥이 끊임없는 민원과 등록 및 갱신 포기, 신도증 말소 등으로 이어지는 중요변수로 떠올랐다.

포교원 측은 신도증이 주는 혜택이 약해서 일선 사찰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재납부를 독려할 근거가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1월 7일 해인사에서 열린 본 · 말사 주지회의에서도 계룡산 및 오대산 등의 일부 사찰에서 그 사찰 신도증이 아닌 전국신도증으로는 무료입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신도증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혜택과 신도들의 인식 미비 이외에도 일선 사찰의 신도등록 소임자들이 수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이사율이 20~30%로 높아 연락이 끊기는 경우, 신도등록 프로그램이 어려워 기피하거나, 신도등록 관련 업무를 귀찮게 생각하는 소임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신도증 '조계종도 자긍심' 되려면

신도증이 있는 신도와 없는 신도의 위치와 혜택이 확연하게 구분돼야 한다. 신도증이 없으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명확한 기능을 부여하지 않는 한 현행 신도증 발행 행태로 보아 신도증 등록사업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포교원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신도교육과 신도증 혜택 증대다. 기본교육 후에도 신도재교육을 일정 기간별로 실시해 종도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겠다는 구상이다.

포교원에서는 사찰 신도증과의 결합 · 불교교육 의료기관 · 불구점 및 서점 등 할인혜택 부여, 종단 차원의 문화행사 할인 이벤트, 인터넷 배너 광고, 신도증 등록을 일선 사찰로 이관하고 중앙에서는 교무금과 명단 관리만 하는 방법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부산하다.

강지연 기자

"행사 여비지급조절"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이 영결식이나 진산식 등 불교계 각종 행사시 대중들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여비를 근절하자고 결의했다.

1월 7일 합천 해인사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양산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영결식 등의 행사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여비 또한 많이 늘어났다"며 "행사를 검소하게 치르고 여법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여비지급은 일체 근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다른 교구본사주지스님들도 뜻을 같이하고 여비 근절을 결의했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영결식 등을 호화스럽게 치르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이런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며 "종단 차원에서도 허례허식과 불필요한 경비지출이 근절되도록 적절한 지침과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동국대 정각원장 진월 스님 부총장에는 김병식 교수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현해)는 1월 13일 공과대 화학공학과 김병식 교수를 서울캠퍼스 부총장에 임명했다. 또 정각원장에는 조계종 국제교류위원 진월 스님<인터뷰 14면>을 임명하는 등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

이밖에 서울캠퍼스에서 △기획인사처장 유석천 △대협력처장 겸 건학 100주년기념사업회 본부장 이관제 △기획심사팀장 김윤길(金潤吉), 경주캠퍼스에서 △총무처장 서병수, 의료원에서 △의료원장 이석현 △분당한방병원장 김경호 △강남한방병원장 이원철 등의 보직인사도 이뤄졌다.

조용수 기자

"불교 군종병 되세요"
병무청, 금년 4차례 모집

불교 포교의 최일선에서 활약할 군종병을 모집하고 있다.

병무청은 2005년 군종업무를 보조할 군종병(사병)을 1월 3~20일, 4월 1~20일, 7월 1~20일, 9월 1~20일 4차에 걸쳐 모집하고 있다. 접수 자격은 불교관련학과 전공 1년 이상 수료자 또는 수계 후 3년 이상 경과자로서 사회복지학과, 정교사, 컴퓨터 관련 자격취득자를 우대한다.

접수는 병무청 홈페이지(mma.go.kr)로, 면접은 충남 계룡대 군종감실에서 열린다. 문의:1588-9090

강유신 기자

(재)선학원과 '보광사 사태'의 함수는?

창건주 권한 승계 법적장치 '모호성' 부각

(재)선학원 사찰인 서울 보광사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나자 불교계에서는 '예견된 일'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보광사 창건주 정일 스님이 원적하기 전부터 재산승계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이다. 또 불교계 일각에서는 '제2의 보광사가 나오지 않을까'란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학원 문제를 짚어본다.

■창건주 권한 승계 문제없나?

선학원 소속 사찰은 분원과 포교원을 포함해 전국 600여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150~200여 사찰은 명의등록만 선학원에 했을 뿐, 실제 선학원 산하 사찰은 350~400여개다. 이 가운데 공사찰 20여개를 제외하곤 모두 사사찰(창건주 승계가 되고 있는 분원)이다.

선학원 정관 제4장에 따르면 사사찰의 스님 창건주는 사제상승(스님 창건주 직계 1대 제자가 창건주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영구 보장한다. 또 분원관리규정 제8조 3항에 따르면 창건주 권한의 위임은 재단의 확인 하에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단, 유언서상(민법의 유언 요건 구비된 것) 위임상황은 예외로 한다.

여기에서 일종의 상위법인 정관과 하위법인 분원관리규정과의 충돌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즉 정관에서는 사사찰 스님 창건주는 사제상승을 영구보장 하지만 재단 확인 하에 문서로 이뤄지지 않거나 민법의 유언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유언서로 할 경우 창건주 권한이 위임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광사 사태도 이 부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이와 관련 재단측은 "현중 스님과 정일 스님 문도회측이 서로 창건주 권한 위임 적임자를 주장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뿐, 1999년 이사회에서 창건주 권한 위임을 다루기 시작한 이래 모두 이를 인정했다"고 해명했다.

■'제2의 보광사 사태' 발생 가능성은?

보광사 사태가 발생하자 불교계에선 '제2의 보광사 사태'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선학원 산하 사찰들이 대부분 사사찰이기 때문에 창건주가 입적하면 권한 승계가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양측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대두됐다. 사찰은 선학원에 소속돼 있지만 스님은 조계종에 소속돼 있는 이원적 구조가 갈등 조정 · 통합을 미약하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보광사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나자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에서 중재에 나섰지만 사찰이 선학원 소속이라는 점 때문에 한계를 안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이와 관련 재단측은 "창건주 권한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아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단에서는 상호 합의하도록 유도할 뿐 해결의 중심은 당사자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고침 본지 508호 지상 백고좌 중 '지관 스님은 1947년 자은 스님을 은사로'에서 '자은 스님'을 '자운 스님'으로 바로잡습니다.

현대불교 2004년 합본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4년 합본집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초청 대법회'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VCD를 증정합니다.

♣ 구입 안내
◈ 내용 : 2004년도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454~506호)
◈ 크기 : 신문대판 원형(40cm~55cm)
◈ 방법 : 전화 신청 / 입금확인 후 택배 발송
◈ 가격 : 80,000원 (발송비 무료)
◈ 입금구좌(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 주문 및 문의 전화 : (02)737-0090(직통) / 팩스 (02)737-0697



대북지원물품 선적식에 참석한 불국사 재무국장 정문 스님(맨 오른쪽)등이 식용유를 실은 컨테이너차를 배웅하고 있다.

北에 식용유 3천만원어치 보내
조계종, 불국사 제공받아

조계종이 조선불교도연맹 산하 조선불연무역회사로 보내는 식용유 선적식이 1월 11일 인천항에서 진행됐다.

이번에 지원한 식용유는 경주 불국사(주지 종상)가 제공한 3000만원 상당의 컨테이너 1개 분량으로, 12일 인천~남포간 정기선박편을 통해서 조선불련 무역회사로 전달됐다.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불국사와 조불련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도 원만하게 회향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갖겠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전국 전세계 어느곳에서도 일등할 수 있는 교육장소

호남불교전통의식대학 2005년 제7기 신입생 모집

● 지원자격 : 스님,포교사,교임법사, 각 종단을 초월하여 절을 이어갈 후계자(유발자도 가능)
● 과 목 : 범패 상주권공의식, 각배의식, 교양과목
- 안채비 : 각종불공의식, 49재의식, 천도재, 신중작법의식, 각종소, 낭독하는법
- 걸채비 : 바라춤, 도량게작법, 다게작법(나비춤), 사물다루는법, 화청(회심곡)
● 과 정 : 2년(4학기) 1년과정(상주권공) / 6개월과정(간단한 불공)
● 수 강 료 : 1학기 6개월 60만원 (각학기당 동일) (비디오 교재 별도)
※비디오, 테이프, 교재는 학교에 비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학교에 비치), 반명함판 사진3장, 주민등록등본 2통
● 원서마감 : 2005년 2월 28일 월요일 오후 3시
● 입 학 식 : 2005년 3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 강의시간 : 매주 월요일 - 1학년과 1년과정수업(오후 2시 30분 ~ 5시 30분)
매주 수요일 - 2학년(오후 3시 ~ 6시)
각배반 목요일(오후 3시 ~ 5시 30분) - 첫시간 바라춤, 나비춤(90분간)
6개월반 매주 화요일(오후 7시 ~ 오후9시) - 학비 40만원
● 통신생 출석교육 :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3시부터 ~ 다음 일요일 12시까지

■ 전화번호 : 062) 362-8604 / 011-624-8604 / 011-614-8604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2동 759-14(우 502-242)
■ 학 장 : 혜공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이수평가자)
■ 계좌번호 : 농 협 / 641010-56-000296 (예금주:노연숙)

▌호남불교의식대학 합동교육기간 (2005년 1월 28일 ~ 2월 1일 : 4박 5일[1차])
[교육시간 : 오전 8시 30분부터 ~ 오후 6시까지(오전시간 강의 오후시간 실기교육 위주)]
● 약력 1월 28일 오후 2시 : 입회식 후 시련절차 실기, 대령관욕 보소청진언, 저녁시간 : 사물 다루는법 - 북, 태령, 목탁, 요령
1월 29일 8시 30분 : 점안의식, 가사이운식(짓소리녹음)
1월 30일 8시 30분 : 상주권공, 지장불공, 관음시식, 상용영반
1월 31일 8시 30분 : 용왕불공 및 방생의식교육, 소창불, 39위 신중작법, 종사영반 종사관욕
2월 1일 정월 삼재기도와 신중불공의식 산신기도교육 오후 3시 폐회식
※ 2005년 2차교육예정 : 5월 18일부터 ~ 5월 21일 (3박 4일)
• 준비물 : 가사장삼, 필기도구, 녹음기, 바루, 비디오가능, 작은 석문의범 지참
(안진오박사제작 - 못구할시는 본학교로 연락바람)
• 숙식제공포함 교육비 15만원 • 모든 교육교재는 본대학에 있음(교재비 별도)
• 이번 교육을 받으실 분은 미리 전화주시고 송금요
※ 이번 기회에 진주보석보다 더 중요한 교육을 헛되이 하지말고 녹음도 하시고, 들어놓으시길 바랍니다.
※ 특혜 : 이번 교육을 받으신 분은 본교 입학시 20% 학비 면제

▌범패(凡唄) 어산(魚山)스님이 되시고자 하신분께 한마디!!

여법하고 의식다운 의식을 배우시려면,
혜자공자 혜공스님은 19세 분규전에 출가하여 지금까지 염불공부를 하시던중 범패전통의식을 전문적으로 하셔 전국적으로 많은 후학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서기 2005년 제7기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범패(천상음악)은 범패성을 타고나야 빨리 배울 수 있고 노력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장스님께선 범패소리를 타고 나셨습니다. 참다운 범패공부를 배우실 분은 꼭 혜공스님을 친견하십시오.
지금도 공부를 하시고 계십니다. 방방곡곡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범패교육장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어산스님을 잘못 만나면 아니 배운것만 못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답니다. 어산스님이라 하고 영가천도를 하신다면 범패의식인 상주권공의식, 각배의식, 영산의식, 짓소리를 포함하여 약 7 ~ 8년 배우고도 약 10년 가까이 다듬어야 어산스님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도 배우지 않고 어산한다고 하면 삼척동자라도 웃을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 범패염불이 앞날에 크게 우려가 됩니다.
꼭! 호남불교의식대학이나 봉원사 옥천범음대학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상좌일동 -

템플스테이 차별화 필요

전문가 양성 · 콘텐츠 개발 등 세미나서 제기

"템플스테이가 활성화되려면 그 사찰만의 특성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어느 절에 가도 똑같은 템플스테이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고)이 1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템플스테이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주경(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금강 스님(미황사 주지), 강신겸 수석연구원(삼성경제연구소), 박종희 소장(동국대 관광산업연구소), 나윤중 교수(동명정보대), 오순환 소장(한국문화관광연구소) 등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국제포교사 수준의 외국어와 불교지식을 겸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독특한 프로그램 개발과 수요 시장 조사를 통한 세분화 등도 이구동성으로 요구했다.

주경 스님은 "조계종이 문화와 체험을 통한 불교전파 및 포교의 가능성을 인정하여 대안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신겸 수석연구원은 "템플스테이는 기존의 일반 대중관광의 특성인 '패스트 투어'에서 고요히 머물며 자신을 돌아보는 '슬로우 투어'로 바뀌는 고객 성향에 가장 잘 맞는 관광형태"라고 주장했다.

금강 스님은 승가교육에 템플스테이 운영자 양성시스템을 포함시켜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영상자료 등을 구축해 템플스테이 진행을 원활하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현고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수련법회를 대체하거나 변형하는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좀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월 14~24일 템플스테이를 운영할 사찰을 모집한다. (02)732-9926

강지연 기자

앞으로 10년 "수행+포교"다

조계종 포교원 전진대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 스님)이 포교원 별원 10년을 맞아 '지난 10년을 회향하고, 다가올 10년을 서원'하는 포교전진대회를 1월 8~9일 양일간 김제 금산사 일원에서 개최했다.

나눔, 회향, 발원, 서원의 장으로 열린 이번 포교대회에는 전임 포교원장 암도(3대), 정련(6대)스님을 비롯 전 현직 포교원 소임을 맡은 스님 20여명과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 포교사단 양성홍 단장 등 포교원 산하 30여 단체 회장단 및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첫째날 모악산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포교원은 별원 10년을 앞두고 새로운 미래 10년을 위한 포교방안을 준비해 왔다"며 "향후 10년 종단의 포교 비전은 '자유로운 나, 평화로운 세상'이며 포교 전략은 '수행 플러스 포교'이다"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포교원은 향후 10년 포교 주요과제로 조계종 종전(가칭, 불교성전)편찬, 간화선 센터운영, 지도자 리더십센터 설립, 각종 수행 프로그램 개발 및 안내서 보급, 북한이탈주민 법회지원, 신도시 포교당 설립위한 특별 분담금제 도입 등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준엽 기자

봉은사 선지식 초청법회 연다

1월16일~2월27일 11차례

지난해 선사와 강백을 초청 8차례 <육조단경> 논강을 펼쳤던 서울 봉은사가 올해는 '내 안의 부처님을 보라'를 주제로 선지식 초청법회를 개최한다.

1월16일부터 2월27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선지식 초청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지관 · 활안 스님), 참선수행(고우 · 명진 스님), 교학(월운 · 혜남 스님), 포교(정락 · 정념 스님), 수행(혜인 · 정무 스님), 계율(성우 스님) 등 각 분야의 스님들이 초빙돼 법문한다.

한명우 기자

"사람답게 사는 길 다시 생각할 때"

신춘 원로대담

박이문 박사 (연세대 특별초빙교수)

대담:위영란 편집부국장

자기중심 잡고 당당하게 살며 정체성 찾자

'논리적 투명성 · 정직 · 열정' 일생의 좌우명

올들어 가장 추웠던 1월 11일 박이문(76) 교수의 일산 자택을 찾았다. 철학적 시인으로 불리고 싶다는 원로 철학자 박이문 교수는 유려한 서체로 써 내린 자작시 '열반'이 담긴 응접실 액자 아래에서 손수 재스민 차를 우려 주었다.

'소라 같은 부처의/귀는/바다의 너그러운/미소를 듣고//깨진 코/잘라진 귀/깨진 가슴/돌인데/부처는 웃네' (시집<나비의 꿈>)

▲젊은 시절 낯선 곳으로의 유학을 결행했고, 30여년 외국에서 대학 강단에 서셨습니다. 오랜 외국생활을 통해 얻은 것은 뭔가요?

-무엇보다 그때는 우리나라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학문 체계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우스울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철학, 사상 이론적으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학문적 업적을 내가 한번 성취해야겠다는 분심이 제가 유학을 결심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적인 분야에서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물론 외국생활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60년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상당히 주눅이 들던 시절이었습니다. 외국 생활 초기에도 공부만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내 스스로 사서 한 고생한 것이지만 무척 외롭기도 했어요. 또 언어적 한계도 컸습니다. 불어를 공부하다 영어로 강단에서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마땅한 배경도 없었던 이방인이었지만, 혼자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냈습니다.

▲요즘 말하는 세계화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그 당시에는 외국 나간다하면 무슨 배신자나 배반자 같은 시각으로 보기 까지 했어요(웃음). 세계화라는 것은 잘난 나라를 흉내 내기 하라는 게 아니고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주체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중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정신적 가치를 다루는 불교 역할은?

-돈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된지 오랩니다. 이런 모순된 상황을 개선하는데 종교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불교는 매우 이성적인 종교입니다. 저는 불교가 일종의 철학적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불교의 근본이 4성제 8정도라면 종교의 일반적 요소는 거의 없어요. 물활론(Animism)적인 관점의 다른 종교와는 약간 차별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종교라는 생각입니다. 윤회와 연기적 세계관을 명확하다면 지식정보화 시대가 아무리 고도화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염려할게 없다고 봐요.

▲시대의 지성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대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조만간 나올 제 자서전 서문에는 제 삶을 지배한 중요한 가치 3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투명성'입니다. 진리를 사실을 객관적이고 사실 그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열정(Intensity)' 밀도 있는 치열한 삶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일분일초도 함부로 하지 않고 명료한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가 '정직성(authentic)' 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진실한가 라는 자문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정체성은 내적 외적 환경과 상황에서 늘 변하는 겁니다. 역사적, 시대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의 잔재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해방 후, 상당히 극성스런 성격으로 변했어요. 좋게 말하면 다이내믹하지만 달리보면 거친면도 있거든요. 일본에게 수탈당하고 한국전쟁, 좌우이념 갈등을 겪으면서 형성된 국민의 정체성을 좀더 세련되게 가다듬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너무 정체성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파르동 파르동(죄송합니다)'이라고 말하는 거나 일본사람들이 '쓰미마셍, 쓰미마셍(실례합니다)'을 입에 달고 있는 것이 꼭 그들의 정체성은 아니거든요(웃음). 중요한 것은 주체성입니다. 자기중심을 명확히 세우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그것 역시 자연스럽게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고 봅니다. 모 자동차회사에서 나오는 코란도(Korando)라는 자동차의 이름이 'Korea can do'의 줄임말이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진 저력과 힘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 같아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이 쾌락을 쫓는 성향이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신적 귀족'이 되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귀족이란 말에 대한 거부감 가진 분들이 있던데… 하하. 그렇지만 누구나 귀족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죠.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한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적이고, 정직하고 비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건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건 뭘 해도 잘할 수 있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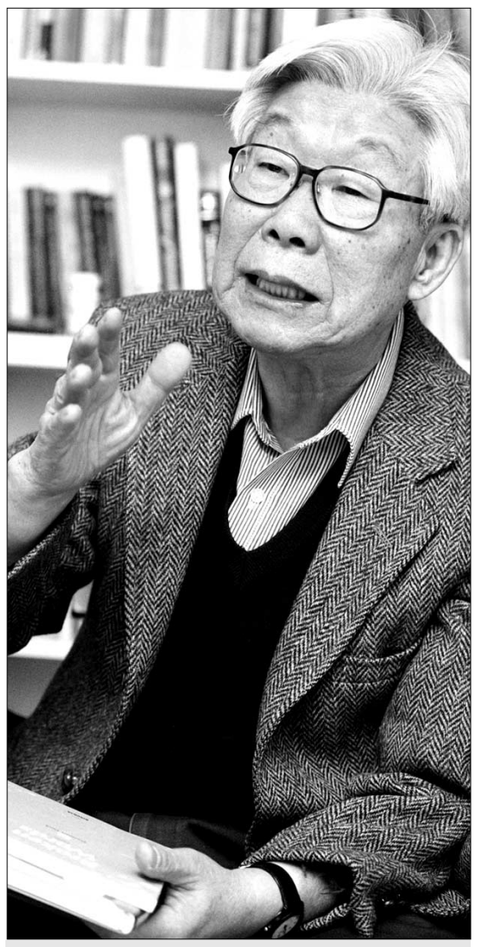
▲한국사회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신다면?

-무엇보다 냉정하고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있는 사실을 자기 기분대로 색칠해서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논리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앞서 말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대로 정립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국민들에게도 희망이 있겠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정치지도자나 국민들이 지나치게 근시안적이고 감정적인 측면들을 쉽게 표출한다는 겁니다. 일부사람들처럼 가슴에 '한'을 가지고 나도 한번 거꾸로 복수해야겠다는 식으로 문제를 풀려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방식은 남북문제를 비롯해 다른 주변 국가들의 관계형성에 있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2~3년 안에 '둥지의 철학'을 정리해서 책을 내볼 생각이에요. 저는 둥지라는 것이 우리가 이상적인 세계를 보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둥지는 원시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철학이나 종교나 과학적 이론, 종교적 세계관 등, 모든 것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것이 둥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과 자연의 조화도 이속에 있습니다.

정리=조용수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박이문 교수는 1930년 충남 아산 출생으로 서울대 불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불문학 박사학위를,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화여대에서 불문학을 강의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등지에서 30여 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다. 포항공대 교양철학 교수로 정년퇴임하고 <나비의 꿈> 등 시집을 비롯해 50여 권의 저서와 논문을 썼다.

서울 보광사와 부산 보광사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의 근본원인은 선학원 일부 이사스님들의 사리사욕입니다

은사스님께서 입적하신 지 얼마되지 않아 청정수행도량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은사스님을 오랫동안 모셨던 시자로서, 그리고 창건주 승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참회합니다.

선학원의 일부 이사스님들은 자신들의 사심을 채우기 위하여 은사스님의 유언(육성녹음), 유언공증, 위임공증 등을 모두 무시한 채 서울 보광사와 부산 보광사를 사고사찰로 지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단법인 선학원 70여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폭력사태의 근본원인이며 창건주 권한의 존중이라는 선학원의 오랜 관행과 정관을 뿌리째 흔드는 결정입니다.

이제 선학원 이사회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이사선임에 있어서 분원장스님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며 분원 분포에 따른 지역안배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은사스님께서는 언제나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외적으로는 선객양성, 교육불사를 통한 인재양성에 진력하라는 유지를 남기셨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기 2549년 1월 12일

서울 보광사 창건주 승계인 현 중 합장

“공사하면서 환경평가하겠다니 답답”

단식 80일 넘긴 지율 스님

지율 스님의 단식이 1월 14일 현재 80일을 넘어섰다.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날짜다. 1월 12일 청와대 인근 찻집에서 만난 지율 스님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는 모습이다.

무척 힘든 표정이었지만 스님은 담담하게 최근 심경과 근황을 털어놨다.

다음은 스님과의 일문일답.

▲현재 건강은 어떤지?.

-며칠 전 아는 분이 한의사 한분을 모시고 왔었다. 그 분이 내 얼굴을 보더니 이미 몸은 거의 죽은 상태라고 하더라. 그래도 정신이 멀쩡하니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것 같다.

▲천성산 대책위 실무자들이 청와대쪽과 만났다고 하던데.

-만난 것은 사실이다. 얘기를 들어보니 청와대쪽의 인식은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었다. 공사를 계속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자는 것이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부산지역의 특정 환경단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에서 적지 않은 실망을 느꼈다. 특히 그 단체는 천성산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정부와 노선재검토위를 만들어 졸속으로 현 노선을 용인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천성산과 관련한 ‘민관합동점검팀’을 만들려고 한다.

-천성산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천성산대책위다. 천성산대책위에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다른 단체에게 제안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처사다.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으면 소리 없이 일을 꾸미겠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처럼 공사는 공사대로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운운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시민환경단체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오늘 오전에 환경단체 실무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단체대표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해결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자회견은 원치 않는다. 2심에서 기각 결정이 났을 때, 뿔뿔이 흩어졌던 단체들이 이제 와서 다시 뭘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당분간 그냥 있어 줬으면 좋겠다.

▲단식이 길어지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약속이 없는



상태로 단식을 그만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금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하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찾아와준 사람들에게는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당분간은 천성산 문제에 대해 좀 더 정리를 할 생각이다. 우선은 ‘초록의 공명’ CD를 보급하는 것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도심사찰 성공비결 ‘주지 리더십’

조기룡씨 박사논문서 제기

절 선택 중요요인 ‘법문과 법력’

‘주지 모범’ 신도수행에 큰 역할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성장을 이룬 도심 신흥사찰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 같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주지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할까. 사찰 관계자는 물론 불교계의 발전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성과가 동국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통과돼 주목되고 있다.

조기룡 씨의 <불교지도자의 리더십이 사찰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이 그것. 동국대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조씨는 주지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도심신흥사찰의 성장 원인 분석을 시도했다. 선행연구를 근거로 도출한 주지의 카리스마적 리더십 범주와 사찰성장 관련 변수를 도출해 가설을 세우고, 이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검증하는 방법을 취했다.

논문에 제시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사찰 선택의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은 ‘주지의 법문이나 법력’(46.3%)으로 나타났으며 집과의 거리(21.7%), 사찰 내 활동(8.9%)이 뒤를 이었다. 주지의 법문이나 법력은 신흥대형사찰(42.5%)에 비해 신흥중소형사찰(53.3%)의 신도들이 더욱 중시했다.

현 사찰의 성장 원인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요구)에 대해서는 주지의 법문(56.7%), 교리공부(33.5%), 주지의 불사헌신(25.7%) 등의 답이 우위를 점했다. 특히 신흥대형사찰(32.1%) 신도들이 신흥중소형사찰(14.2%) 신도에 비해 주지의 불사헌신을 중요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조씨는 비전제시, 역할모델링, 불사헌신, 설법교화력, 개인적 배려 등 주지의 카리스마적 행동범주가 신도의 질(수행과 실천)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주지의 불사헌신은 사찰의 양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나 신도의 질적 성장에 있어서는 무관(신흥대형사찰)하거나 부정적(신흥중소사찰)이다 △신도의 내적 수행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지가 신도에 모범을 보이는 것(신흥대형사찰)과 신도 개인에 대한 배려(신흥중소사찰)다 △신도의 실천 활동은 주지가 신도를 개별적으로 인지하고 격려할수록 활발해지며, 불사헌신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조씨는 이들 신흥사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지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성공적으로 계승돼야 한다”며 “주지가 개인적인 카리스마 형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후계자의 카리스마 건설을 돕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사랑하는 마음, 인류를 살립니다”

독일 한마음선원, 청소년 대상 명상체험 · 선 법문

“물도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과학자들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람 주변의 물이 아름다운 모양의 물 결정체가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최근 남아시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해일로 수많은 생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은 가운데, 물의 소중함과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는 종교수업이 1월 10일 독일 한마음선원(지원장 혜진)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수업에 참석한 독일 카이스트 소재 알버트 아인슈타인 김나지움 소속 10학년 학생 20여 명은 법당에서 불교의 세계로 흠뻑 빨려 들어갔다. 학생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한국 전통다도법에 대한 혜진 스님의 설명을 진지한 자세로 경청했다. 학생들은 명상도 하며 자신과 주위의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혜진 스님은 에토모 마사루 박사의 저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를 통해 물과 인간 삶의 관계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사랑하는 마음의 파장은 우리의 삶과 지구를 살리지만 미워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의 에너지는 전쟁 속에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스님의 말에 학생들은 경이로운 눈빛을 반짝거렸다. 독일 청소년들은 록과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고 난 후 변화한 물 결정체의 모양을 찍은 사진을 보며 내 생활이 나의 ‘한 생각’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월정사 문화도량 · 웰빙타운 조성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종합 수행 · 신행 · 문화도량 건설과 웰빙타운 조성을 추진하는 등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한다.

월정사는 월정사 구역에 종합 수행 · 신행 · 문화도량을 건설하고, 매표소 구역에 웰빙타운을 조성하며, 마을 구역에 생태 · 문화마을을 건립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2005년 사업 총괄계획을 1월 13일 밝혔다.

월정사는 종합 수행 · 신행 문화도량 건설을 위해 1월 내 종합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국고 확보 및 문화재 현상 변경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허가를 추진한다. 2월에는 노인요양시설 2006년도 국고 지원을 요청하며, 연중 선원 건립 및 서별당 보수 불사도 계획하고 있다.

웰빙타운조성을 위한 명상센터 건립과 생태 · 문화마을 건립을 위해 올해 기초 용역 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3월경에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단기출가학교의 졸업생 2~30명과 남방불교 출가 체험을 한다. 이를 통해 남방국가 사찰과의 자매결연도 꾀하고 있다.

또 한암 대종사 수행가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한암 대종사 탄생 · 재일이 있는 올 5월 경 고승초청참선법회, 철야용맹정진 등을 개최한다. 이와 관련 월정사나 상원사에 시민선방을 개설하고 운영한다. 이 외에도 같은 달 가족과 함께 하는 제1회 평창군 월정사배 축구대회도 연다.

9월 경에는 도제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쳐, 매년 7천만 원을 교구 스님뿐 아니라 지역 불자 자녀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지난해 주지 정념 스님이 공언한 바 있는 전나무숲길 도로 포장을 제거한다. 수행과 생명의 숲길을 조성하기 위해 3월 경 환경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나무숲길 생태체험프로그램도 개발한다.

한편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사중스님 및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들과 공론을 모아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윤이상 평화재단 2월 설립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1917~1995)선생의 서거 10주기를 기념하는 윤이상 평화재단이 2월 18일 설립된다.

윤이상 평화재단추진위원회는 1월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예술의 전당에서 2월 18일 열리는 재단 발기인대회와 윤이상의 음악 세계를 조명하는 다양한 행사 계획을 확정했다.

추진위원회는 발기인 대회를 마치는 대로 문화관광부에 재단 설립 절차를 밟은 뒤 3월경에 재단을 정식 발족시킬 계획이다.

이날 모임에는 원택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스님을 비롯해, 김민 서울대 음대 학장, 김용배 예술의 전당사장, 박재규 경남대총장, 신인령 이화여대총장, 현정은 현대그룹회장, 홍석현 중앙일보회장. 고희범 한겨레신문사장, 이종수 한국방송이사장, 정동영 통일부장관, 소설가 황석영씨 등이 참석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이시장 발언 사건 1심 기각

소송인단 “즉각 항고”

‘서울시 봉헌’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명박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기각됐다.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민사5단독 고종영 재판장은 “피고의 언행이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로 인해 원고들이 금전으로 위무돼야 할 정도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108소송인단의 김재일 대표는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명백함에도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시민과 불자 108명은 지난해 7월 26일 이명박 시장의 봉헌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만원씩 108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철주 기자

평화포럼, 부시에 공개 서한

국내외 종교지도자들이 세계평화를 논의하기 위해 조직한 평화포럼(이사장 강원룡)이 1월 10일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부시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군사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 것과 6자회담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

이번 편지는 2004년 10월 21~23일 3일간 서울에서 열렸던 국제종교평화회의에 참가한 국내외 종교지도자들이 합의한 내용이다.

편지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지구촌공생회대표 월주 스님, 정토회 법륜 스님을 비롯한 국내외 종교지도자 117명이 서명했다.

유철주 기자

틱낫한 스님 38년만에 고국땅

베트남 출신의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 틱낫한 스님이 프랑스 망명생활 38년 만에 고향땅을 밟는다고 AFP통신이 1월 11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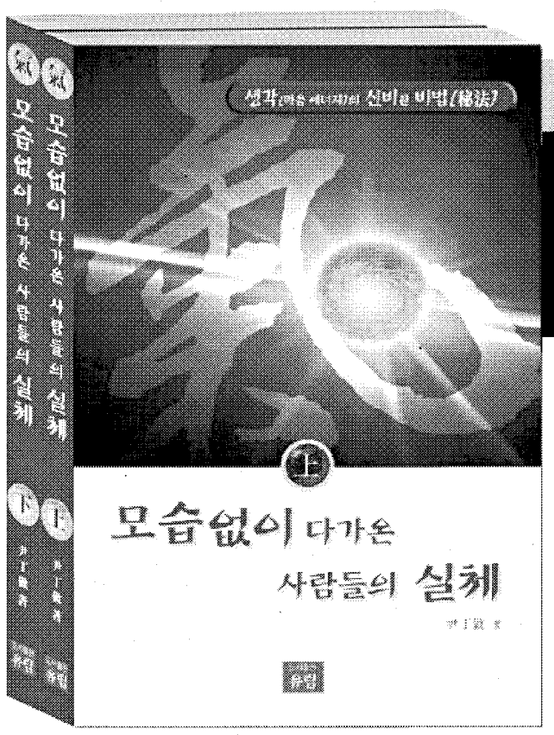
외신에 따르면 틱낫한 스님은 11일 파리 드골 공항에서 하노이 행 비행기를 탑승하기에 앞서 “3개월 동안 베트남에 머물면서 불교를 가르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틱낫한 스님은 2004년 말 입국비자를 받았으며, 체류기간 동안 불교명상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틱낫한 스님은 “40년 전 내가 떠나온 베트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베트남 정부가 나와 내 가르침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www.jinryeo.com

우리 곁에서 영가천도를 1~2초에 원격(遠隔)으로 하고 있는
고차원의 영적(靈的)초능력자 윤정주 원장의 체험이야기!



우리 생각의 묘법(妙法)과 신비(神秘)를 밝힌다.

우리가 하는 생각(生覺)이 육체를 통해서 창조되는 기(氣 : 마음 에너지)와 영혼과의 관계

모습없이 다가온 사람들의 실체

저 자 : 尹丁做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한 사람들의 인체(人體)에서 만들어 내는 기(氣 : 마음 에너지)와 죽은 영혼(靈魂)들과의 영원 불멸의 관계를 밝힌 「모습없이 다가온 사람들의 실체」는 우리에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상사의 크고 작은 아픔과 우환들이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죽은 영혼들의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정보능력에 의한 의식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체험을 통해서 자세하게 밝혀놓았다.

이 책을 통하여 진여(眞如)수련원 윤정주 원장의 신비(神秘)로운 기(氣 : 마음 에너지)를 조금이나마 느껴 보시고 체험해 보신다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이 광고는 진여수련생들의 수련비로 게재됩니다.

도서출판 유림 ■전화 : 02-736-7148, 723-3856 ■팩스 : 02-736-7148

참여불교운동본부 '헌옷 아나바다 운동' 전개

북녘에 자비의 옷 보냅시다



참여불교운동본부가 개최한 아나바다장터에서 한 어린이가 북한 어린이들에게 보낼 운동화를 혜총 스님에게 전달하고 있다.

북한 어린이들에게 '자비의 통일 신발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불교운동본부(상임의장 혜총)가 부산 불자들의 사랑을 북녘에 전하는 장을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한 헌옷 아나바다 운동'으로 넓혀 나가고 있다.

참여불교운동본부는 1월 10~11일 이틀 동안 부산지역 사찰 및 불교 봉사단체에서 헌옷 모으기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를 열어 300여 상자 분량의 헌옷을 수거했다. 초하루 법회를 겸해 열린 헌옷 아나바다 운동에 참여한 사찰은 혜원정사 동명불원 미륵암 황정사 태종사 선암사 등 사찰 6개와 대한적십자사불교봉사회 등.

부산 해운대구 중1동 미륵암에서 불자 200여명은 10일 오후 그동안 모은 박스 50개 분량의 헌옷을 참여불교운동본부에 전달하고 3층 법당에서 특별법회를 가졌다. 11일 오전에는 부산 동명불원 대웅전에서도 불자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북녘 동포 지원을 위한 아나바나 특별 법회를 열었다. 법회에 참석한 참여불교운동본부 임원단과 불자들은 법당에서 손을 맞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부르며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행사를 회향했다.

6개 사찰, 300여 상자분 수거
조선불교도연맹에 전달 계획

6곳의 사찰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린 헌옷 아나바나 운동 특별법회에는 태종사 조실 도성 스님,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 등이 일일판매원으로 나서, 불자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북녘동포를 돕는 자비의 마음을 일깨웠다.

이날 북한 동포들 돕겠다는 불자들의 마음은 300 여개의 헌옷 박스에 가득 담겼다. 선물로 받은 새 내복을 선뜻 내 놓는 어르신과 한복을 깨끗이 세탁하고 다림질하여 보내온 불자들의 동참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법회에 참여한 사부대중들이 십시일반 모은 500여만 원이 보태져 의미를 더했다.

참여불교운동본부는 헌옷 모으기에 많은 불자들이 참여한 것에 힘입어 헌옷 모우기 운동을 정기화하고 모은 헌옷은 자비의 통일신발과 함께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영 참여불교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자비의 아나바다 운동은 부산 불자들과 시민의 마음을 한데 모아 남과 북의 화합과 통일을 열어가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051)322-7902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부산 내원암 '쌀 한 홉 모으기 운동' 펼쳐

나눔의 情 담아 드려요



내원암 신도들이 정성껏 모은 쌀을 전달하고 있는 도원 스님.

부산 범어사 내원암 신도들이 '쌀 한 홉 모으기 운동'을 벌여 형편이 어려운 농아인 20세대에 쌀을 전달했다.

내원암 원주 도원 스님, 김영수 강순남 보살 등 내원암 신도들은 1월 12일 부산농아인협회(회장 김경대) 회관에서 쌀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쌀은 내원암에 쌀 한 홉 모으기 운동 모금함을 설치, 매 법회에 올 때 마다 모아진 보시금으로 마련됐다.

내원암 신도들이 쌀 전달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추석, 협회의 추천을 받은 10세대에 쌀을 전달하는 결실을 맺은 바 있다.

9년 전 수화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부산농아인협회와 인연을 맺은 도원 스님은 그동안 농아불자회 법회를 매월 두 차례 여는 것을 비롯 농아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 템플스테이, 성지순례 등을 꾸준히 펼쳐왔다.

김영수 보살은 "기도하러 내원암에 왔다가 농아불자들을 처음 만나게 됐다.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도원 스님이 그분들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보고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 쌀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경대 회장은 "농아인들은 겉으로 장애정도를 알 수가 없어 상대적으로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며 "1천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는 협회지만 후원을 하시는 분이 도원스님과 내원암 불자들이 유일할 정도여서 고마움이 더욱 크다"고 토로했다.

농아인들과 함께 한라산 등반을 계획중인 도원 스님은 "농아인들을 위한 법회를 열 수 있는 포교 공간 마련이 급선무"라며 스님들과 불자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051)508-3163

천미희 기자

"지역 발전 대원력 한 해 되길"



부산 불교계 신년하례법회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성)와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는 1월 8일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2005년 신년하례법회(사진)를 봉행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통해 화합과 정진을 서원하고 불법 홍포와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날 신년 하례 법회는 저녁예불, 발원문, 신년하례, 신년 인사, 신년 비전 동영상,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동영상 메시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성 스님은 법어에서 "수행의 향기, 신심어린 보살행으로 부산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도록 정진하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이에앞서 공병수 부산불교신도회 회장은 신년 인사를 통해 "불보살님의 가피와 원력으로 APEC이 원만 회향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년하례 법회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지혜 스님, 부산불교연합 회장 대성 스님, 현대불교신문 김광삼 사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등 6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부산불교신도회는 이날 행사에서 화환을 사절하고 남아시아 참사 돕기 모금함을 설치, 행사장 모금 운동을 벌였다. 특히 이번 참사로 가족을 한꺼번에 잃은 재부 스리랑카 노동자인 '그루게' 씨에게 즉석에서 모금된 성금 1백만 원을 전달했다. (051)853-2021

천미희 기자

포항시, 종교 지도자들 초청
정시장 "공평무사한 시정" 약속

지난해 시장의 종교편향 문제로 물의를 빚었던 포항시가 을유년 새해를 맞아 지역 종교계 지도자 50여명을 초청, 종교간 화합의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포항시가 1월 11일 포항 시그너스 호텔에서 개최한 '2005 종교계지도자 신년 인사회'에는 정장식 포항시장을 비롯해 포항사암연합회장 경천 스님(황해사 주지), 대해성당의 이경기 신부, 포항시교회연합회장 이성희 목사 등 불교, 가톨릭, 개신교계의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처럼 포항지역 종교계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초유의 일이다.

정장식 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종교편향 사태에 대해 한 번 더 사과의 뜻을 밝히고 공평무사하게 시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배지선 기자

경남불교합창단의 밤 개최

진주불교회관(이사장 윤대권)은 1월 8일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성도절 기념으로 경남불교합창단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월경사 합창단, 성주사합창단, 정법사합창단, 사천불교연합합창단 등 경남 주요 사찰 합창단의 찬불가 공연과 무천무용단, 보리수동산 풍물패 등 다양한 무대가 마련됐다.

천미희 기자

"겨울학생수련서 지혜 찾자"

해인사는 1월 19~22일까지 3박4일간 겨울 학생 수련법회를 개최한다. 초 · 중 · 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수련법회는 발우공양, 예불 참선, 도량청소 등의 산사체험 외에 금강경 사경, 박물관 견학, 인경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055) 934-3110

해남 미황사도 1월 23~30일까지 중학생을 위한 문화학교를 연다.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의 지도로 한시 문화체험 발우공양 예절 참선 다도 등을 배운다. (061)533-3521

배지선 기자

아동학대예방센터 설립 승인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구미 금오사회복지관(관장 법등)은 1월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경북구미아동학대예방센터' 설립을 승인 받았다.

금오복지관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지역 구분이 끝난 1월 31일 개소할 예정이며, 구미 지역 거점 센터로서 아동학대 피해사례 접수 · 관리,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15명 목숨구한 故 권오남 보살 조계종 공적상 수상

범어사(주지 대성)는 1월 16일 설법전에서 열린 일요법회에서 2002년 5월에 발생한 마산 마도장 여관 화재에서 15명의 목숨을 건지고 유독가스에 질식돼 숨진 故권오남 보살에게 조계종 총무원장 공적상을 수여했다.

화재 발생 당시 여관에서 일하던 권보살은 화재 발생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곧바로 신고한 후 15명의 투숙객을 대피시켜 목숨을 구했다. 34세 때 남편을 잃고 2남 1녀와 시어머니를 부양하던 권보살은 경남도지사로부터 장한 어머니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심이 돈독한 불자였던 권보살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자 시동생인 47살 이록상씨가 3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지난해 12월 10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이에 조계종도 권보살의 신심을 기려 표창패를 수여하게 됐다.

천미희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 김분선씨 영결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故김분선(84)보살의 영결식이 1월 12일 오전 대구 곽병원 강당에서 대구지역시민사회단체장으로 치러졌다. 이날 장례식은 김보살의 유족과 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장례식을 마친 뒤 김보살의 운구는 대구시내 중심부를 돌아 고향인 경북 칠곡의 공원묘지에 안장되고, 영정과 위패는 영천 은해사 법당에 모셔졌다.

지난 1922년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김보살은 고무공장에 취직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일제에 속아 15세부터 7년여 동안 대만 마닐라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해야 했다. 생전에 서울과 일본 등에서 열린 정신대 문제집회와 시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으며 끝내 일본의 사죄나 배상을 받지 못한 채 1월 10일 방광암과 폐암으로 별세했다.

배지선 기자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www.njutcm.co.kr

1. 남경중의약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1통(영문) · 대학 졸업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5명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지원자격

1.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2. 주지스님, 지도교사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5년 1월 31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6798167 /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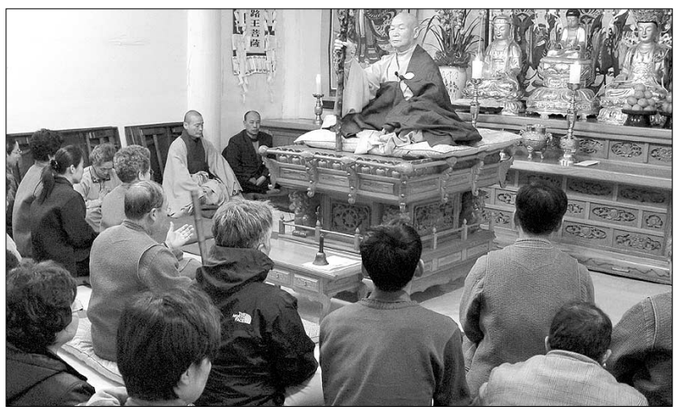
6. 남경중의약대학 교류 연혁

· 1995년 1월 20일	학장 혜인 스님 남경중의약대학 방문
	상호 교류 및 자매결연 협의
· 1995년 7월~2000년 12월	남경중의약대학 박사과정 연수(1차~14차)
· 1995년 8월 19일~8월 25일	남경중의약대학 총장 일행 방한
	南京中醫藥大學 漢語 分校설립, 분교장 취임
· 1995년 10월 25일	이병용(李秉鎔. 한의사) 명예박사학위 취득
· 1996년 8월 21일~8월 30일	남경중의약대학 국제교육학원 교직원 방한
	(中國 江蘇省 敎育委員會 永鎭, 國際敎育學院長 楊公服, 敎務處長 惠紀元, 國際交流服務中心 總經理 丁雲南)
· 1996년 12월 5일~12월 10일	남경중의약대학 項平 총장 방한
· 1997년 8월 10일~8월 15일	남경중의약대학 項平 총장 방한
· 1999년 9월	본교 중국어과 5명 본과 입학
· 2000년 9월 9일	본교 중국어과 11명 본과 입학
· 2000년 11월11일~11월17일	남경중의약대학 王玲玲 院長, 徐恒 院長 訪韓
· 2001년 3월 10일	남경중의약대학 28명 본과입학
· 2002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입학
· 2003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입학
· 2004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입학
· 2004년 11월	중국 국가의사고시 7명 합격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활안 스님과 백혈병 최재승군의 '특별한 만남'

"처음 그 마음 놓치지 마세요"



활안 스님은 백혈병을 앓고 있는 최재승 군을 돕기 위해 구성된 익산불교시민연합회 회원들의 요청으로 법문을 하면서 재승군의 쾌유를 기원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춥다던 1월 9일, 순천 조계산 천자암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최재승 (남성고 2) 군을 돕기 위해 탄생한 익산불교시민연합회가 천자암 조실 활안 스님을 찾았다. 새해를 맞아 활안 스님으로부터 법문을 청해듣고 재승이의 쾌유를 기원하기 위해서였다. 천자암 법당에 모인 40여명의 불자들은 법문에 앞서 활안 스님이 주재하는 다라니 정진에 동참했다.

익산불교시민련 만남 주선
새해 법문 듣고 쾌유 기원

"천지자연의 기본은 마음이며 마음중심이 바로 서야합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어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단박에 밝아집니다. 처음 생각이 바로 밝은 마음으로 성불에 이르게 하는 밑받침이 됩니다. 처음 그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활안 스님은 새해 법문을 통해 내내 초발심을 강조했다. 재승이를 앞에 두고 초발심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재승이는 작년 5월 갑자기 쓰러져 재생불량성 빈혈(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 후 병과의 힘든 싸움을 이어왔다. 다행히 항암치료도 마치고 골수이식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막대한 치료비로 최 군 집안은 풍비박산 나고 말았다.

익산불교시민연합은 재승이를 돕기 위해 지난 12월 9일 탄생했다. 이리불교대학을 졸업한 재승이 부모의 동문들이 주축이 됐다. 각 사암은 물론 사회단체, 학교 등을 돌며 치료비를 보시받았다. 12월 29일, 재승이 돕기 일일찻집을 가졌다. 십시일반으로 3500만원이 모였다. 그러나 앞으로도 1억원 가량 들어가는 치료비에는 어림도 없다.

재승이와 익산불교시민연합 회원들은 활안 스님의 '초발심'을 강조한 법문에 힘을 얻었다.

재승이를 살리겠다는 첫 마음만 놓치지 않는다면 분명코 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 것이다. 후원 모금 : 기업은행 182-001714-01-055(예금주: 박중근) 연락처 : 익산불교시민연합 회장 김중근 011-442-3055

이준엽 기자

광주불교사암련 '성도절 기념법회'



포교상 시상

광주불교의 화합과 정진을 다짐하는 '성도절 기념 특별법회'(사진)가 1월 12일 광주 KT 정보통신센터 대강당에서 봉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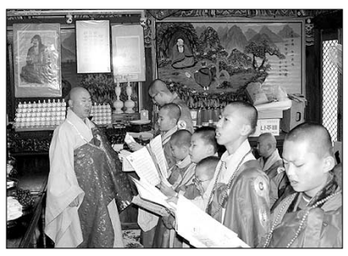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향)가 마련한 이날 법회에는 광주지역 사암 스님과 박광태 광주시장, 양형일 국회의원 등 지역기관장, 재가불자 1000여명이 동참했다.

초청법사로 법상에 오른 직지사 前 주지 자광 스님은 "'나'라는 아만과 어리석음, '나'라는 애착과 욕구를 떨쳐 우주가 곧 자신이요, 자신이 바로 우주인 도리를 바로 알자"고 법을 설했다.

이어 광주사암련 회장 혜향 스님은 포교대상 시상식에서 지역불교발전에 앞장선 (사)한국여성불자회 광주지부(지부장 유혜월성)에 단체상, 이병욱 전남 경찰청불자회장, 김창배 광주 서부경찰서불교회장, 이판희 광주교도소 주임에게 개인상을 각각 수여했다.

이준엽 기자

구오사미들, 묵담 스님전에 음성공양



담양 용화사, 추모법회서

태고종 종정을 역임한 묵담 스님 열반 25주기를 맞아 구오사미들이 찬불가 음성공양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묵담 스님 추모법회는 1월 8일 용화사(주지 수진) 대웅전과 조사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해동율사 수진 스님, 선암사 주지 상명 스님, 관음선원 주지 묘희 스님 등 문도회 스님, 구오사미승, 재가불자 등 5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구오사미들은 묵담 스님 영전에서 '하얀세상 부처님세상' '왕생극락하옵소서' 등 찬불가를 공양했다.(사진)

용화사 주지 수진 스님은 "묵담 스님께서 평소 동자승들을 애틋하게 보살폈는데 이번 기일에 구오사미들이 음성공양을 올리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구오사미는 절에서 음식을 나르거나 까마귀를 쫓는 어린 사미로 지난해 용화사에서 처음으로 16명이 탄생했다.

이준엽 기자

인터뷰

대전사암련 17대 회장 만다스님

"자비·복지불교 이룰 터"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생각입니다."

1월7일 대전 오페라 웨딩홀에서 열린 대전사암련 신년하례법회에서 17대 회장에 취임한 만다 스님(통도사 대전포교원 불교대학장 · 용수사 주지)은 화합을 바탕으로 대전불교를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만다 스님이 구상하고 있는 대전불교 발전방안은 불교복지회관 건립, 계층포교 활성화, 스님들의 시대감각 제고, 군 포교 및 재소자 포교의 지속적 확대 등이다.

먼저 불교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 만다 스님은 "아직까지 대전에 불교회관 하나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자비불교 복지불교를 이루기 위해 불교복지회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각종 수련회와 장학사업 등 어린이 · 청소년 포교를 통해 대전불교의 뿌리를 심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해남사암련 신년기원법회

해남군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신년기원 법회'가 몽산 대흥사 주지를 비롯한 관내 사암 스님과 박희현 해남군수, 정진석 해남군의회 의장, 김재현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등 지역 기관장, 신행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7일 해남 관광호텔에서 봉행됐다.

이날 해남사암련 회장 몽산 스님은 법어에서 "요즘처럼 어려운 때 일수록 탐욕을 버리고 이해와 화해로 희망의 새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이준엽 기자

불교전통의식 합동교육

호남불교전통의식대학(학장 혜공.이하 불교의식대학)이 불교의식 합동교육을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한다.

광주 불교의식대학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사물다루는 법을 비롯해 점안의식, 상주권공,신중작법 등 불교의식 전반에 걸쳐 펼쳐진다.

불교 전통의식 전수를 위해 직접 강의를 맡고 있는 불교의식대학장 혜공 스님(중요무형문화재 50호 이수평가자)은 "불교의식은 불교의 성보문화재이자 세계적인 우리 문화이다"며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기초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의식대학은 합동교육과 함께 제 7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062)362-8604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서울 정토사

정토구현 위해 모두가 한마음



정토사 신도들은 지난해 11월 건봉사 순례법회를 갖고 염불만일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금강산이 시작되는 남한의 첫줄기 건봉산 건봉사에서 신라시대 발징화상이 처음 열었던 염불수행 결사인 염불만일회(念佛萬日會). 건봉사가 염불만일회의 중심도량이라면 서울 정토사는 염불만일회의 정신을 잇고 있는 염불만일기도도량이다.

정토사는 염불만일회 법주인 설산 스님이 염불수행정진을 위해 40년 전 창건했다. 그 후 신도들과 함께 염불정진에 몰두하면서 정토사를 염불기도도량으로 자리매김 시켰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겼다. 염불수행을 하려는 불자들은 많아졌는데, 이를 수용할만한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게 된 것이다. 30평 남짓한 법당으로는 무리일 수밖에 없다.

설산 스님의 상좌인 정토사 주지 응천 스님의 고민도 깊어졌다.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이때 신도들이 중창불사를 하자고 나섰다.

이진선 · 현정원 거사, 고반야행 · 장법계월 · 맹보리화 보살 등 주축신도들의, 정토사를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는 불심이 신도들 사이에서 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올 4월 이후 본격적인 중창불사에 돌입하게 됐다. 완공은 내년 상반기가 목표.

새로 태어날 정토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150여 평 규모로, 60평 크기의 법당을 비롯해 천불전, 염불당, 요사채 등을 갖추게 된다.

신도들의 노력에 주지 응천 스님도 화답하고 나섰다. 현재 응천 스님은 새로운 사찰 운영 프로그램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신도들과 함께 정토사를 전국적인 염불기도도량으로 가꾸겠다는 각오로 밤낮이 따로 없다.

현재 구상중인 사찰 발전방안은 정토불교대학 개원, 봉사회 조직, 신도회 조직 재편 등이다.

"명실상부한 염불기도도량이 되기 위해서는 염불기도의 기본인 정토사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수행과 신행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역동적이고 조직력을 갖춘 신도회를 구성함으로써 신도들의 신행을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중창불사 통한 염불기도도량 자리매김
불교대학 · 봉사회 조직 등 발전방안 마련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스님들이 노후걱정 없이 마음 놓고 수행할 수 있는 복지시설도 건립하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응천 스님은 지난해부터 염불만일결사 정진에 들어갔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신도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다. 자신은 별로 하는 것이 없다고 겸손해하지만 표정에서는 자신감이 묻어난다. (02)396-3405

한명우 기자

대한민국에 '불교천문대'를 세웁시다

제 2회 불교어린이 천문학교실 안내

– 마음(상상력)이 큰 어린이들이 천재다 –

부모님들께

우리 어린이들은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생각이 순수하기 때문에 나오는 힘입니다. 그런 어린이들에게 첨단과학인 천문학을 통해 저 광대무변한 우주를 바라보게 하여 도솔천 · 도리천 · 사왕천 등 불교경전에 나오는 여러 하늘나라를 우주 속에서 찾게 해줍니다.

또 이 별 저 별을 마음껏 쏘다니게 하여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길러주며, 수십 년 수행하여 얻은 것보다 더 큰 '열린 마음'을 우주의 별을 보며 깨닫게 합니다. 나라의 앞날과 인류의 밝은 미래는 오직 마음이 큰 그들에게 달렸습니다.

이번 제2회 〈불교어린이 천문학교실〉을 놓치지 마세요. 천문학은 인간교육의 근본인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천문학교실은 엄마와 함께 해요.

● 기 간 : 2005년 1월 19일(水)~1월 21일(金) – 2박 3일
(1월 19일 11 : 00까지 도착, 점심공양은 수행원에서)
● 장 소 : 도피안사 내 「파라미타수행원」
● 교육비 : 100,000원(1인당, 교재비 포함)
● 인 원 : 약50명
(접수 순에 의함, 단 보호자와 함께 하는 경우 우선)
● 대 상 : 초등생(4, 5, 6학년)과 그 어머니
(중 · 고생 및 일반도 가능)
● 천체관측 : 별, 달, 행성
① 밤 별 보기 – 19:00 ~ 23:00
② 새벽 별 보기 – 04:00 ~ 06:00
● 강 의 : '별의 세계와 불교의 우주관'
● 비디오 감상 : '우주의 신비'
● 지 도 : 이시우 박사(관측천문학, 前 서울대 교수)
● 교통편 : 어머니(보호자)와 함께 개별도착
(당일 오전 11시까지)

● 담 당 : 혜관거사 박성근(도피안사 사무장)
● 준비물 : 방한모, 장갑, 양말, 방한화
(천체관측 때 춥지 않게)

※ 날씨에 따라 교육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도피안사의 관측기기 및 시청각교육 기자재 구비사항
망원경 구경 220㎜, 쌍안경 배율 15 · 구경 80㎜
환등기, 스크린, O.H.P, DVD 플레이어, LCD 프로젝트
전자지시봉 등 시청각기자재 완비

● 연락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
전화 : 031)676-8700 / 전송 : 031)676-8704
홈페이지 : http://www.dopiansa.or.kr
E-mail : dopiansa@kornet.net

※ 교육 신청은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은 2005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복지·봉사·문화 코드로 찾아가 함께하는 불교 가꿔요

전남 목포·신안·무안·함평·영암

목포·무안·신안

근래 들어 불교계의 활동 가운데 두드러진 분야가 복지다. 타종교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불교의 자비심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이 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목포·무안·신안 불교계도 복지를 중심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 그 시작은 지난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목포지부(지부장 법정)가 위탁받은 신안군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면서부터다.

신안노인요양원은 서남권에서는 유일한 불교복지시설로 지역사암과 불자들의 움직임이 기대이상이다. 그동안 불자들이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대부분 타종교계가 운영하는 시설이어서 지속성을 갖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중 불교계가 운영하는 요양원은 수행 도량이자 보람의 공간으로 다가온 것이다.

현재 신안노인요양원 자원봉사에는 무안, 신안 등 요양원 인근 사찰과 목포사암련 산하 7개 사찰에서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원봉사를 계기로 사암연합회의 활동도 활기를 띄고 있어 복지포교는 새로운 신행 풍속도가 되고 있다.

목포 보현정사도 신년 들어 무료경로식당을 개원하고 매일 독거노인 150여명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보현정사는 15개 신도회에서 자원봉사 팀을 조직해 매일 10여명의 봉사자가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다.

사찰활동으로는 6년 전 개원한 한마음선원 목포지원(지원장 혜제)이 돋보인다. 신도시 하당지구에 자리한 한마음선원은 어린이, 학생회, 청년회를 필두로 각종 신도회가 조직되어있어 도심포교당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군부대, 교도소, 복지관 등 소외된 이웃을 정기적으로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초파일 제등행렬에서 각종 장엄물을 선보여 목포시민에게 잊혀져가는 불교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신안노인요양원 개원식. 목포 무안 신안의 사찰들이 신안노인요양원 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이 지역 불교는 복지포교의 새 장을 열어가고 있다.

신안은 800여개의 섬으로 이뤄졌다. 관내에 10여개 사찰이 있으며 대표사찰로 전통사찰인 금산사, 서산사가 일반에 알려진 편이다. 섬 사찰은 대부분 사세가 작은 편이며 섬 특유의 이국적인 풍광으로 기도와 휴양을 위한 외지인의 참배도 늘어나고 있다.

목포 무안 신안은 행정상으로 나뉘어있으나 생활권은 목포를 중심으로 한다. 지난해 불교계도 세 지역을 합쳐 서남통합불교연합회(회장 경훈)를 결성했다. 대사회문제에 공동 대처하고 포교에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무안연꽃축제의 불교행사 운영과 목포시장 종교편향발언 사과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함평·영암

함평과 영암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불교적으로 닮은 면이 많다. 아쉽게도 먼저 불교세가 약하다는 것이다. 사암연합회, 불교유치원은 물론 학생회, 청년회 등 지역을 대표하는 신행단체가 없다. 그렇다고 불교의 흔적조차 없는 것은 아니다. 함평 용천사, 영암 도갑사 등 천년고찰이 여전히 지역불교를 대표하고 있다. 이들 사찰을 중심으로 지역불교가 새롭게 움트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닮은꼴이다. 두 사찰 주지 스님이 모두 젊고 다채로운 포교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어 이 지역 불교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함평 용천사는 최근 꽃무릇축제로 전국적인 명찰로 떠오르고 있다. 꽃무릇은 대표적인 불교꽃의 하나인 상사화로 모악산 용천사 인근에 30여만 평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자생군락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자연조건을 경쟁력으로 자연생태학습장, 마을 수호탑, 공연무대 등을 조성해 해마다 30여만 명이 사찰을 찾고 있다.

꽃무릇을 통해 용천사를 일반에 알리는데 성공한 주지 혜용 스님은 "이제는 포교다"며 복지와 불교교육을 위한 다양한 포교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월출산 도갑사도 최근 대대적인 중창불사로 도량을 일신하고 본격적인 포교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도갑사에서 이뤄지는 불교행사를 영암읍내로 진출시켜 지역민에게 불교문화를 선보일 계획이다. 읍내에서 제등행렬을 갖고 불교교양대학과 불교유치원 개원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준엽 기자

- 목포 보현정사 무료경로식당 '보살행'
- 무안 연꽃축제 전국적 명성 '합심'의 보람
- 신안 노인전문요양원 복지활동에 활기
- 함평 용천사 꽃무릇축제 30만명 운집
- 영암 중창마친 도갑사 포교원력 '꿈틀'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지역 불교활동 견인

정각 스님 (법륜종 종정 · 목포 보현정사 주지)



정각 스님은 목포불교를 선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불교를 대표해 많은 일을 해오고 있다. 일요법회(1977년), 보현불교유치원(1978년)을 20여년 전부터 시작했다. 어린이 법회, 학생회, 청년회뿐 아니라 재가 신행단체만 15개를 조직했다. 직장, 직능에 따라 신도회가 결성되어 목포에서 보현정사 신도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특히 통일을 염원하며 결성된 화랑단은 지역에서도 대표적인 학생단체이다.

스님은 "앞으로 지역민을 위해 회향하겠다"고 한다. 모든 역량을 복지사업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1월 6일, 기독교계에서 운영하던 노인복지관을 인수해 무료경로식당을 개원했다. 여기에 종합복지시설 '영산정각원' 개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앞서 2000년에는 8억원을 들여 '두레아카데미'를 설립했다. 신부, 목사 등 종교를 초월해 지역의 지식인들이 참여하는 두레아카데미는 시민위한 교양강좌, 장학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최근 납골시설인 영묘전을 운영하고 있는 스님은 일본에 남아있는 징용, 징병, 위안부 등 43만기의 한국인 유골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전 보급에 매진

경훈 스님 (서남통합불교연합회장 · 무안 약사사 주지)



전국 제방의 선방에서 정진하던 경훈 스님은 30여년 전 우연한 기회에 무안읍 노천에 있는 석조 약사여래불과 인연이 되어 줄곧 무안지역 포교에 주력해왔다. 미국 LA 로열한의대를 졸업한 경훈 스님은 정신, 물질적으로 병든 곳이면 거리를 불문하고 찾아가 힘이 되어주었다.

'경전독송으로 깨달음을 향해가자'는 기치로 재가불자들과 함께 '금강삼매경 독송회'를 이끌고 있으며 경전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몇 해 전엔 그동안 참선정진하며 써놓은 선시를 모아 <아시게나 우리가 선 이 땅이 낙원이라네>(역사비평사 刊) 선시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이 책은 지난해 미국에서 영문으로 번역되어 세계최대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닷컴'에서 독자비평 최고점을 받기도 했다.

스님은 지난해 무안, 신안, 목포 등 3개 지역 불교사암연합회의 연합체인 서남통합불교연합회를 결성해 회장을 맡고 있다. 서남불교연합회는 지난달 목포시장의 종교편향 발언에 강력항의하고 시장으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화합' 화두로 신행 독려

혜원 스님 (목포사암연합회장. 목포 법주사 주지)



혜원 스님의 화두는 오직 '화합'이다. 앞으나 서나 줄곧 목포 불자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생각뿐이다.

목포불교를 위하는 일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 나선다. 물론 사암연합회장이라는 직함에 따른 책임감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몇 년 사이에 법주사를 중심으로 대여섯 개의 교회가 에워싸는 현실을 보면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목포에 있는 사찰 대부분이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이다. 실제 목포시에는 30여곳의 사찰이 등록되어있으나 교회 530곳, 성당 12 곳으로 타종교의 활동이 드센 편이다.

따라서 '일단 뭉치자'는 것이 스님의 구호다. 비록 작은 힘이지만 모이면 무슨 일이든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 혜원 스님의 뜻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사찰이 늘고 있어 힘이 솟는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금년부터 목포 개나리 축제에 사암연합회 차원으로 불교프로그램을 펼칠 예정이다. 가을에는 효친사상 고취를 위해 경로잔치를 준비 중이다.

장학회·의료봉사 이끌어

선지 스님 (신안 금산사 주지)



전통사찰 금산사가 자리한 신안 압해도는 목포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다. 몇 해 전부터 연륙교 공사가 진행중이고 장차 신안군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이 들어서는 희망의 섬이다. 8년 전, 선지 스님이 압해도의 미래를 내다보고 대규모 불사계획을 갖고 들어왔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생각보다 지역 불교의 뿌리가 너무 약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역포교에 나서고 있다. 선지 장학회를 만들어 매년 봄, 가을 2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법회 때면 물리치료사를 초빙해 지역 노인들의 건강을 돌보는데도 여념이 없다.

스님은 금산사를 '향기 나는 도량'으로 가꾸고자 한다. 도량주위에 허브 등 향기 나는 식물을 식재해 몸과 마음을 치료토록 할 예정이다. 압해도의 유일한 쉼터 금산사는 이렇게 서서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사찰 밖 포교 원력세워

월우 스님 (영암 도갑사 주지)



대흥사 총무를 역임하며 교구본·말사 살림을 챙겨온 월우 스님이 말사인 도갑사 주지를 맡아 포교현장으로 나온 것이 지난해 4월이다.

전임주지 범각 스님이 1996년부터 도량정비 불사를 펼쳐 가람을 일신했고, 뒤를 이어 월우 스님이 대중교화를 과제로 포교에 전념하고 있다.

스님은 "지역주민에게 불교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금년 초파일엔 영암읍내에서 제등행렬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각종 신행단체를 정비하고 영암불교의 숙원사업인 불교대학도 개설할 예정이다. 침체된 영암불교를 일으키기 위해 과감히 사찰 밖으로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최근에는 일본 지은사에 소장중인 '도갑사 32응신 관음도' 복원을 위해 화공을 선정하고 제작에 들어갔다.

축제로 장학회 조성

혜용 스님 (함평 용천사 주지)



혜용 스님이 용천사에 첫 발을 디딘 것은 2000년. 당시만 해도 용천사는 분담금이 면제될 정도로 빈곤한 사찰이었다.

스님은 대중과 호흡하며 수행, 포교하는 도량을 발원하고 고민하던 중 문득 사찰주변에 지천으로 깔린 꽃무릇(상사화)을 보고 무릎을 쳤다. '꽃무릇 축제를 열어 사람을 모으자'.

지자체와 함께 30만평 규모의 꽃무릇 단지를 정비하고 계곡에 어울리는 무대도 조성했다. 진입로에 함평군내 30여개 마을을 알리는 탑을 조성토록 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에 무려 30여만 명의 인파가 용천사 계곡을 찾았다.

스님은 "이제는 뭔가 해 볼 수 있다"며 이 기운을 몰아 본격적으로 복지와 포교에 나설 예정이다. 사찰예산의 절반을 포교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용천장학회를 만들어 지역 불우청소년들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매월 셋째 일요일마다 열리는 경전법회에 4-50여명의 신도가 참석해 기초교리, 기본예절 등을 배우고 있다. 이렇듯 용천사는 함평불교의 미래로 부각하고 있다.

노인요양원 운영 현실화

법정 스님 (목포불교대학장 · 달성사 주지)



법정 스님은 요즘 들어 포교에 있어 실마리를 잡은 듯한 느낌이다. 지난해 신안군 노인복지시설을 위탁받은 후부터다. 사찰마다 봉사팀을 꾸리고 후원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포교는 복지에서 꽃핀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목포불교대학장을 맡고 있는 스님은 학인들에게 늘상 '배운 만큼 실천하는 불자'를 강조한다. 법정 스님이 주지로 있는 달성사는 목포를 대표하는 유달산 정상에 자리해 있다. 법당에 앉으면 한눈에 목포시와 바다가 파노라마처럼 내려다보인다. 2001년부터 대대적인 중창불사를 펼쳐 회향을 목전에 두고 있다.

도량불사를 마치면 우선적으로 일요법회와 어린이법회를 복원할 예정이다. 유달산 아래 빈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요양원운영도 구체화 하고 있다.

스님은 또한 가람불사에 이어 숙원사업인 불교유치원 건립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복지시설 주민에 개방

성원 스님 (신안군 노인전문요양원장)

오랜 동안 무안 봉불사에서 어린이법회를 보아오던 성원 스님은 노인복지시설을 맡으면서 수행과 복지가 둘이 아님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다. "이제야 진짜배기 수행을 한다"고 강조하는 스님은 치매 중풍 등으로 고통 받는 노인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있다.



사실 요양중인 노인들이 원하는 것은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다행히 지역 사암과 불자들의 자원봉사가 줄을 잇고 있어 그들의 노력에 감사해 한다.

요양원이 처음 건립될 때 지역민의 반대가 심했다. 혐오시설이라던 마을주민들이 지난 송년의 밤에 함께 춤추며 한해를 마무리했다. 물리치료실 등의 복지시설을 개방하고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한식구가 된 것이다.

스님은 "서남권에서 유일한 불교계 복지시설인 만큼 알차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포교"라며 "이곳 복지관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불교 복지시설이 개원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한달에 20여 법회 주관

정영균 포교사 (광주전남포교사단 군포교 2팀장)



"포교 할 곳이 있고, 포교할 힘이 있기에 행복하다"

정영균 법사는 지난해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하면서부터 더욱 바빠졌다. 무안 군부대법당 호국 사자사, 목포 해군법당 해광사, 목포 교도소, 사찰 신도회, 운불련 법회 등 한달이면 20여 차례 법회를 주관하고 법문을 한다.

금년부터는 목포불교대학 사무국장을 맡아 후배들의 학업을 보살피고 포교사 응시를 돕고 있다.

정 법사가 포교사의 길에 들어선 것은 2000년 목포불교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다. 늦게 만난 불교였지만 불교대학 입학 다음해에 포교사 품수를 받을 정도로 혼신을 다했다. 이때부터 무안 군법당 사자사 법회를 이끌어 5년째 이어오고 있다.

후배 포교사들이 배출되면서 포교현장이 한층 활기를 띠고 있다. 포교원장상을 비롯해 포교관련 표창은 정 법사가 팀장으로 있는 군포교 2팀이 휩쓸 정도이다.

목포에 숙소를 마련해 놓은 정 법사는 일주일에 한두 번 광주 집에 다녀오는 시간만 빼고 몸과 마음을 모두 포교에 쏟고 있다.

해외포교 · 신도배가운동 주력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신년기자회견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1월 10일 서울 관문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는 비구니 스님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해외포교에 앞장서고 신도배가운동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를 통해 종단의 내실을 다져 웅비의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27일 열린 제73차 임시 종의회에서 제 13대 총무원장에 다시 추대된 운덕 스님은 "2011년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탄신 100주년을 앞두고 있어 대조사님을 현양하기 위한 여러 사업준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착수
加·日에 포교당 건립…비구니 스님 역할 확대

▲제 13대 총무원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취임소감과 새해덕담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불자여러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부처님의 법은 대자대비 사상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불교는 전인류에게 가장 희망적이고 이상적인 사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불자들이 앞장서 높고 수승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올 한해는 불자 모두가 손해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졌으면 합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속에 화합을 제일로 삼고, 큰 실천에 나서야겠습니다.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오는 2011년은 천태종을 중창한 상월원각대조사님의 탄신 1백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탄신 1백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빠른 시일내 구성해 올해부터 삶과 수행, 업적 등 자료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탄신1백주년 기념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어록집 발간, 올해의 불자상 제정, 연극 및 음악순회공연등을 구상중입니다. 또 구인사 1만2000평 광명당 불사와 금강대학교에 3600평 최첨단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지역에 사찰건립 불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신도교육 강화를 통한 신도배가운동을 말씀하셨는데요.

-천태종은 초창기부터 신도관리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관음정진을 주경야선(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수행하는 것을 말함)으로 하는 신행풍토가 이제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신도배가운동은 신도의 숫자만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질적 향상을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구 춘천 울산에도 불교대학을 설립해 신도들의 수준을 높일 것입니다.

▲개성 영통사 복원불사는 어떻게 마무리 됩니까?.

-1월 25일경 북경에서 북한과 공식만남을 갖고 영통사 낙성식과 학술세미나 개최를 논의합니다. 낙성식후에는 개성관광과 연계해 도라산 초대소에서 개성까지 육로를 이용한 영통사 성지순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영통사 주변 묘목심기지원, 조선불교도연맹 차량지원 및 구인사 초청등 대북불교교류를 위한 새 사업들을 북한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천태종은 영통사 복원이 끝나도 북한과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민족화해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해외포교에 대한 방안은.

-3년전 첫 해외사찰을 건립한 덴마크 코펜하겐에 현지인 45명과 교민 20여명이 법회에 나오는 등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도 스님을 파견, 부지 3천평을 마련해 평화사를 건립중입니다. 일본 후지산 부근에도 포교당을 세울 계획입니다.

지난해 몽골정부로부터 확보한 2만4천평에도 한몽 문화교류의 공간인 '우정의 집'과 문화원및 포교당 설립을 추진중입니다. 외국공관과의 협력도 증대할 계획입니다. 서울 천호동 구강사 한개층을 몽골대사관에 무료로 빌려줘 문화원을 운영토록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등을 개설할 것입니다.

▲사부대중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만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돋보이지 않습니다.

-천태종은 상월원각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초기부터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가 함께 수행하며 종단을 형성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비구니 스님들에게도 많은 역할이 주어질 것입니다. 현재 청소년법회와 복지등에 집중적으로 참여해온 비구니 스님들이 앞으로는 천태종 신도들의 수행을 지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사찰의 기도법사도 비구니 스님들이 맡게 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운덕 스님은 사회복지사업을 국제적으로 넓혀가 입양아부모 찾아주기 운동등을 펼치고, 금강대학 발전을 위해 교류협정을 맺은 북경대학에 학생 파견, 종단 기관지 주간지화를 통한 홍보강화 등의 계획을 밝혔다. 김원우 기자

사회의식 높이기 힘쓸터

인 터 뷰 김유혁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1995년부터 천태종의 중앙신도회를 책임지고 있는 김유혁(금강대 총장) 회장. 김 회장은 "올해는 종단과 함께 신도배가운동에 주력하겠다"며 "신도들의 의식 향상에 역점을 두고 중앙간부 연수시 특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천태종 중앙신도회의 산하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태종에는 160여개의 직영사찰 신도회가 있습니다. 신도회 간부들이 종의회의 거의 절반을 차지해 종단운영을 함께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신도회 차원에서 별도의 활동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사찰의 신도회 회장단, 전직 신도회 회장단이 1천명에 이르는데요. 종단의 주요행사 때마다 구인사 신도회장단 숙소에 모여 종단의 발전에 긴요하게 필요한 점을 토론하며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앙신도회의 올해 주요사업은.

-1년에 2차례 열리는 전국간부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종단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토론하고, 사회전반의 이해를 돕는 강연을 열고 있습니다. 올해 종단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신도배가운동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계정세에 따른 도덕문제가 왜 중요하고 일반생활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국과 도덕'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의 대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승속이 원융하는 모습은 천태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종단은 대중불교 생활불교의 모토로 일반 생활 속에서 꽃을 피우고자 노력합니다. 총무원만 하더라도 신도들에게 모두 개방되어 있는 공유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공동체의식이 강하다고 할 수 있지요.

▲신도들의 힘이 종단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각 사찰의 운영은 모두 신도회장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신도회장과 총무를 중심으로 재정도 관리되기 때문에 투명성도 확보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천태종이 종단이나 사찰 할 것 없이 일사분란한 응집력을 갖고 있는 것도 이러한 조직체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올해는 닭의 해입니다. 새벽에 어김없이 시간을 알려주는 닭처럼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회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 속에 심화시켰으면 합니다. 단양= 김원우 기자



태고종 종정 신년하례회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1월 13일 종정 혜초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종정예하 신년 하례회와 함께 종단발전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로회의 의장 일우 스님, 승정원장 남파 스님을 비롯 총무원장 운산, 중앙종회의장 인공, 사정원장 법장 스님등 종단 간부스님, 선암사 대중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천태종 총무원 부원장에 춘광 스님

총무부장 문덕·교무부장 유정 스님


춘광 스님


문덕 스님


유정 스님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1월 11일 부원장에 춘광 스님(서울 관문사 주지), 총무부장에 문덕 스님(대구 대성사 주지), 교무부장에 유정 스님(창원 원흥사 주지)을 각각 임명했다.

△재무부장 남궁도재 스님(분당 대광사 부주지) △사회부장 무원 스님(인천 황룡사 주지)△교육부장 용암 스님(서울 삼룡사 주지) △규정부장 진덕 스님(진주 월경사 주지) 등 4부장은 유임됐다.

한편 종정사서실장에는 장호 스님(성남 화성사 주지), 감사위원에는 비룡 스님(울릉도 해도사 주지)이 임명됐다.

부원장 춘광 스님은 1971년 3월 구인사에서 상월원각 대조사를 은사로 득도했으며, 89년 동국대 교육대학원 철학과를 수료했다. 81년부터 대성사 성룡사 삼광사 주지, 8~11대 종의회 의원, 총무원 규정부장, 교무부장등 종단의 주요소임을 두루 거쳤다. 현재 재단법인 천태종·금강불교학원·천태종복지재단 이사, 서초구 사암연합회장등을 맡고 있다. 김원우 기자

무량종 중앙종회 개최
중앙신도회 결성키로

무량종(총무원장 혜안)은 지난 12월 24일 지리산 칠보사에서 중앙종회를 열고 2005년도 종단 예산 책정 등 신년사업을 확정했다. 이날 무량종은 신년사업으로 신도 합동수계법회, 남북통일 기원법회 개최, 중앙신도회 결성, 고양시 무량선무도원 개원 및 국제 선무도회 교류 시범행사 개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정기종회에서는 총무원장에 혜안 스님이 유임되고 감찰원장 혜운, 교육원장 보산, 포교원장 종성, 호법원장 보운, 문화원장 오현, 종회의장 보경, 사서실장 보인, 총무부장 성우, 재무부장 법공 스님이 임명됐다. 강유신 기자

종단협, 소개책자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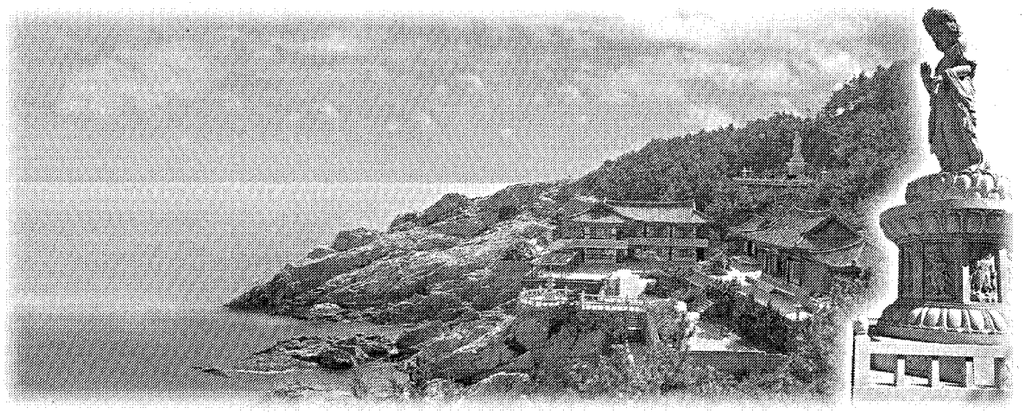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회원종단 소개책자를 만든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는 1월 19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2005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인류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법회 개최, 남아시아 성금 접수, 가을 한중일대회 개최장소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乙酉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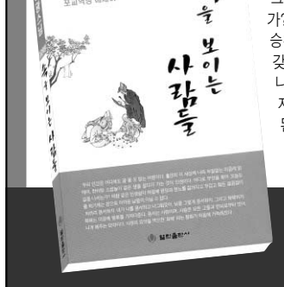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금강선원 해광(海光)스님 포교역정 생활불교 에세이]
속을 보이는 사람들

해탈이란 마음의 해탈이다.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의 자유가 해탈이다. 이것과 저것을 가르고 내 것과 남의 것을 가르는 분별심을 버리고 마음 깊숙이 들어 앉은 내면의 소리를 끄집어내는 그것이 해탈이다.
"저를 해탈하게 하소서."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는가?"
"아무도 저를 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가?"
승찬 대사의 해탈법문을 듣는 순간 온갖 번뇌와 미혹, 망상과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의 진리를 깨닫고 해탈의 경지를 얻은 구도자는 훗날 제4대조가 된 도신 대사이다.

본문 해탈이란 무엇인가? 中

• 해광스님 지음
열린출판사 / 값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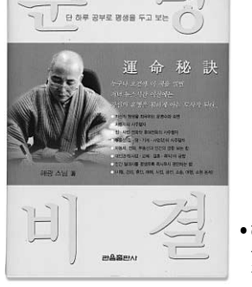
해광(海光)스님 저 서: 불교비전의숲서「불가비의」/ 실용 역학서「운명비결」/ 최초의 소설식 불교교리서「왕 초보 절에 가다」집필 중.

「운명비결」「속을 보이는 사람들」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전국 대형서점과 인터넷 교보,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리브로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운명비결 전문가 과정 신청 접수

화제의 신간
단 하루 공부로 평생을 두고 보는
운명비결

누구나 오전에 이 책을 열면, 저녁 뉴스시간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훤하게 아는 도사가 된다.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평생동안 자신의 매일매일과 평생의 운수와 운명을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

• 해광스님 지음
신국판 / 양장본 / 416페이지
정가 12,900원

-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운명수와 숙명
- 자동차의 사주팔자
- 집, 사업 전화와 휴대전화의 사주팔자
- 부동산(집, 땅, 가게, 사업장)의 사주팔자
- 자동차, 전화, 부동산과 인간의 궁합 보는 법
- 대인관계(사업, 교제, 결혼, 취직)의 궁합
- 인간 일대사를 평생토록 즉시 즉시 판단하는 법
- 시험, 건강, 혼인, 매매, 사업, 금전, 소송, 여행, 소원 운세

금강선원 해광스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31-14 TEL 032)665-8472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사진 맨 오른쪽)과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사진 맨 왼쪽)을 필두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스님들이 1월 12일 지진 · 해일 피해민들을 위한 탁발에 나섰다. 매서운 겨울 바람으로 거리는 얼어붙었지만, 보시하는 시민들의 마음과 손길은 따뜻했다.

지진해일 피해 지역에 자비를…

자비를 보냅시다… 작지만 보태 주세요

고아원 건립 등 피해 지역에 대한 구호사업 지속 전개



시민들이 보시한 성금을 연꽃 모금함에 모았다.

조계종, '자비의 탁발' 현장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민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보냅시다."

매서운 겨울 바람이 살속까지 파고든 1월 12일 오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차원에서 마련한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민을 위한 자비의 탁발'(이하 자비의 탁발)에 참가하기 위해 스님과 불자들이 모여들었다.

많은 불자들로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은 발디딜 틈이 없었지만 남아시아에 자비를 전하기 위한 불자들에게 좁은 공간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날 '자비의 탁발'에는 피해지역 출신 스님 10여명도 동참했다. 스리랑카 출신의 무다왕서(27) 스님은 "지진해일 피해를 돕기 위해 조계종 스님들이 탁발에 나서는 것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2시부터 진행된 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탐욕을 씻어내고 부처님께서 실천하신 나눔의 정신으로 돌아가려는 선언이 오늘 이 탁발행사의 가장 큰 취지"라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법회가 끝나자 300여 사부대중은 거리로 나섰다.

인사동 거리에서 탁발행렬을 보고 성금을 접수한 이외숙(50 · 서대문구 홍제동)씨는 "피해민들을 돕기 위해 거리에 나온 스님들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해 작은 정성을 보탰다"고 말한다.

인사동에서 다기(茶器)가게 '일광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여규평(48)씨는 "나눔의 정성을 보태주세요"라며 가게를 방문한 법장 스님의 발우에 흔쾌히 성금을 더했다. 여씨는 "엄청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남아시아 피해민들을 돕는다고 해 마음을 냈다"며 뿌듯해했다.

1시간여 동안 계속된 '자비의 탁발'은 조계사를 출발해 인사동-종로 금강제화-종로타워-제일은행-조계사로 이어지며 시민들의 따뜻한 동참을 유도했다.

바람을 가르고 다시 되돌아온 조계사. 스님들은 시민들의 정성을 모금함에 차례차례 넣었다. 탁발 결과 모아진 성금은 모두 3천1백30만6095원.

탁발행렬을 보고 택시를 운전하던 한 거사는 차를 멈추고 나와 성금을 보시했으며,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라고 아쉬워하던 한 무리의 초등학생들은 행렬을 뒤따르며 응원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한국JTS(대표 유수)도 1월 11일 오후 서울 명동에서 회원 40여명과 탤런트 고두심, 박한별, 봉태규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지역 돕기' 거리 모금행사를 진행해 2백19만4270원의 성금을 모았다.

글=유철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정토법당, 해운대역 등에서 성금 모금

부산



부산 정토법당도 시민들과 함께 거리 성금 모금에 나섰다.

부산 정토법당은 1월 11일 해운대역 등에서 남아시아 지진 해일 피해민들을 돕기 위한 거리 성금 모금에 나섰다.

급강하한 기온 탓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종종 걸음을 치던 사람들은 "천원으로 남아시아 지진 피해민을 돕자"는 보살들의 호소에 성금을 넣었다.

모금에 나선 한 보살은 "넉넉하지 않은 용돈을 쪼개 성금을 내는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 인정이 메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부산 정토법당은 2시간동안 이어진 이날 성금 모금에 이어 지속적으로 거리 모금 운동을 펼칠 예정이며, 전 지역으로 모금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동화사 비롯 사암 및 단체 모금 법회

대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자비를 호소하는 불자들.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지진 해일 피해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남아시아인들에게 꿈과 희망, 용기를 주십시오."

1월 8일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대구에는 지진해일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남아시아인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자는 불자들의 목소리가 뜨겁게 울려 퍼졌다.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과 신도, 동화사 강원 학인 스님과 대구경북 포교사단, 운전불자 연합회 대구지부, 교사불자회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보현사에서 남아시아 지진 해일 피해자 구호를 위한 기금 모금법회를 갖고 보현사에서 대구백화점까지 자비의 탁발에 나섰다.

이날 모인 불자들은 저마다 손에 문구가 적힌 각종 현수막과 피켓, 전단지, 모금함을 들고 대구시민들에게 십시일반 동참할 것을 권했다.

이날 동참 모금액은 모두 600여만원으로 동화사는 1월 말까지 모금운동을 전개해 모아진 성금을 한꺼번에 전달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월정사와 지역 기관장들 탁발 행사

강릉



월정사 사부대중이 시장을 돌며 탁발하고 있다.

월정사(주지 정념)는 1월 11일 오후 강릉시가지 중심가에서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한 영동지역 말사 스님과 월정사 3기 단기출가학교 학생, 신도, 강릉지역 기관장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민 돕기 자비의 탁발' 행사를 벌였다.

주지 정념 스님 등 발우를 든 스님들과 모금함을 든 신도들은 난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며 자비의 손길을 호소했고, 길을 지나가던 시민과 학생들이 모금에 동참했다. 이날 모두 600여만원의 성금이 모였다. 월정사는 18일 원주 중앙시장 일대에서 다시 한번거리 탁발 행사를 벌였다. 한명우 기자

#해인사(18일) · 마곡사(19일) · 수덕사(20일) 등 행사 예정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는 1월 18일 오후 3시 대구 · 창원 · 마산 지역 일대에서 '자비의 탁발' 행사를 벌인다. 해인사는 행사를 통해 모금한 성금을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로 인해 고통 받는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 건립운영기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예산 수덕사(주지 법정)도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예산(20일) 홍성(21일) 서산(24일) 당진(25일) 태안(26일) 등 5개 지역에서 차례로 '자비의 탁발' 행사를 봉행한다. 공주 마곡사(주지 진각)도 1월 19일 대전역에서, 의성 고운사(주지 혜승)는 1월 18일 의성 · 안동 · 영주 지역에서,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는 1월 22일 대구 시내에서 '자비의 탁발 거리모금행사'를 갖는다.

NESPOT swing
이번 주,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 법회 이벤트
아이벗의 I는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인드라망(Indranet) 또는 인터넷(Internet)의 의미이며, BUD는 Buddy(친구)를 뜻합니다
MP3 · 카메라폰과 PDA를 하나로
휴대폰 위의 휴대폰
HP iPAQ rw61 '아이벗'
1. 가고 싶은 사찰은 네비게이션을 보며 빠르고 정확히 찾아갈 것!
2. 수백 권의 경전을 메모리카드에 저장하여 바로바로 예습할 것!
3. 큰스님의 중요 법문은 음성녹음과 다운받은 동영상으로 다시 볼 것!
4. 큰스님과 친견을 원할 때에는 화상통화로 간단히 해결할 것!
단 한번의 기회!
현대불교신문사가 드리는 HP rw6100 최저가 특별보급 2가지
1 현대불교신문 평생구독을 신청하시면 89만 1천원의 HP rw6100 스마트폰을 무료로 드립니다. (평생구독료 62만5천원)
부모님은 평생구독 + 자녀는 스마트폰
아이벗 무료제공, 가입비 3만원 별도, 영구독자료 일시납, 18개월 의무사용
2 현대불교신문 기존 독자와 신규독자 그리고 일반가입자분에게는 초기수납금 55,000원에 24개월 의무사용 조건으로 HP rw6100 스마트폰의 혜택과 다양한 주변기기를 드립니다. (월 평균 할부금 24,291원)
전용내비게이션 I-NAVI+아이벗 880,000원
현대불교신문사 Let's KT
구입문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아이벗(I-BUD)사업단 전 화 : 02)735-3034, 737-8881 / 팩스 : 02)738-3034

"헌옷만 좀더 있어도 좋으련만…"

인도 청소년 구호 승가회 한국에 도움 요청

인도 시슈 코루나 상가의 한국지부장으로 서울 원융사에 머물고 있는 체대 스님은 1월 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불자들의 협조를 호소했다. 시슈 코루나 상가(청소년 구호 승가회 · 회장 비말 스님)가 최근 커다란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스님은 "캘커타에서 고아와 절대 빈곤층 가정의 청소년 300여 명을 모아 돌보는 시슈 코루나 상가가 오늘날까지 운영되도록 도움을 주었던 프랑스 등 외국인 독지가들의 후원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매달 필요한 운영비(한화 1천 8백만 원 가량)의 절대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불교를 믿는 인도인 대부분이 빈곤층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의 보시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원융종은 종단 차원에서 헌옷 모으기 운동, 공책 및 연필 등 학용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체대 스님은 "시슈 코루나 상가는 불가피하게 수용 학생 숫자를 줄이는 것까지


인도 시슈 코루나 상가는 후원으로 들어온 헌옷을 가난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한다.

고려하고 있다"며 "불자들의 사소한 것 같은 도움도 아이들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구호단체인 시슈 코루나 상가는 1986년 설립돼, 어린 학생들이 어엿한 성인으로 자라도록 교육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원융종 총무원 02)853-0531 후원계좌: 우리은행 11-185105-02-901 예금주 Priytosh Chakma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손 따주고 봉사하면 행복해져요"

나눔단체 수효사 '성훈따주기공덕회'

"여기랑 여기가 아프시죠? 이제 시원해질 겁니다."

1월 11일, 여느 화요일과 마찬가지로 '성훈따주기공덕회' 회원들은 서대문구 충정로 수효사(주지 무구) 법당 곳곳에서 사람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시술은 간단하다.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통증을 느끼는 부위의 혈자리를 찾아 '사혈삼릉침(침끝이 삼각형 모양인 의료도구)'으로 몇 차례 찔러 피를 내면 그만이다. 수효복지대학에서 진행하는 '성훈따주기' 강의 3개월과정만 마치면 누구나 가정에서 시술할 수 있을 만큼 쉽고 부작용도 거의 없다.

'성훈따주기공덕회'는 이름 그대로 가정의학 보급과 군포교에 평생을 바치다 15년 전 입적한 성훈 스님의 뜻을 이어받은 봉사회다.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활동이 '따주기' 시술과 한달에 한 번 있는 군부대 방문이다.

"각 군부대에서 서로 오라고들 하니 얼마나 기


'성훈따주기공덕회' 회원 이홍구(오른쪽)씨가 수효사 신도 김선이씨에게 '따주기' 시술을 하는 모습.

분 좋은지 몰라요. 봉사활동은 봉사 받는 분들과 봉사자들 서로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성훈따주기공덕회' 회원들은 지역에서 벗어나 전국으로 봉사영역을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내놓는다. 공덕회 주국일 회장은 "조직을 개편해 언제 어느 곳이든 봉사하러 달려갈 것"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02)313-3060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지진해일 피해 지역에 자비를… 부산 여여선원 · 한국불교승가회 본사에 성금 기탁

부산 여여선원 신도회(회장 이향순)가 본사 나눔의 손잡기에 동남아 지진해일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3백만 원을 기탁했다.

부산 여여선원 선원장 정여스님과 이향순 신도회장은 1월 8일 본사 김광삼 사장과 위영란 편집부국장이 여여선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성금을 전달했다.

정여 스님은 "적은 금액이지만 남아시아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값지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부산 여여선원 선원장 정여 스님과 이향순 신도회장이 1월 8일 김광삼 본사 사장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불교승가회 회장 무공 스님과 재무 덕봉 스님이 1월 12일 본사 서정만 이사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불교승가회가 본사 나눔의 손잡기에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복구성금 1백만원을 기탁했다.

한국불교승가회 회장 무공 스님(태고종 중앙포교원장)과 재무 덕봉 스님(방학동 성국사 주지)은 1월 12일 본사를 방문, 서정만 이사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전달식에서 무공 스님은 "1월 7일 승가회 정기월례회의에서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다"며 "어려운 남아시아를 돕는 일에 사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지진 · 해일 구호성금 보내주신분(1월 6~13일)

이혜조 10만원 금강반야사자비회 40만원 이은경 1만원 이계순 5만원 손현석 2만원 김도희 3만원 김선엽 34만원 서제호 5만원 오진우 10만원 배종철1만원 선우도량 200만원 조미란 10만원 법흥사 50만원 이미숙 10만원 박인숙 10만원 현수연 10만원 김삼봉 10만원 경주극락사 10만원 세등선원수인 110만원 순천흥선사 64만 2000원 오정순 1만원 보문사 1천만원 신동수 5만원 권순홍 5만원 대한불교조계종-용인 10만원 최상숙 3만원 하은자 5만원 이종대 100만원 김연옥 5만원 배영희 3만원 권경수중인 100만원 김태정 6000원 최지운1만 5천원 이명희 10만원 동아대학교교수불자회 50만원 하수진 3만원 김귀녀 2만원 윤필대중일동 80만원 윤필암 100만원 박희순 10만원 조혜경 10만원 김동주10만원 표기정 5만원 신임숙1만원 민경희 10만원 민진순 5만원 이상숙 5만원 최현규 50만원 이성일 2만원 박상석 1만원 백제불교회관 252만 7000원 제7교구다보사 100만원 봉서사신도회 23만원 삼척 신흥사 20만원 김금기 20만원 원각스님 남장 60만원 문경 성불사 50만원 정암사 정광 100만원 장석대 5만원 문종실 3만원 기림사동암신도회 200만원 기림사호암스님 50만원 김용계 2만원 김용순 1만원 신화춘 50만원 박종권5만원 박춘희 5만원 박정희 2만원 박미혜 5만원 성륜불교재단(광륜사) 106만원 의정부용현사 120만 9800원 김은정 50만원 조명아 1만원 적조사 100만원 불교방송 700만원 보현정사 7만 4000원 금강사 10만원 고양시상운사 30만원 화운사박영순 190만원 오태석 5만원 정광정혜원 50만원 김창연 5만원 대용화사혜산 35만원 강기순 1만원 법륜사 50만원 손영희10만원 오수연 100만원 김영아 1만원 최이수 5만원 전국비구니회1천만원 성북칠보사 100만원 **(총 58,193,800원)**

누적 금액 119,056,710원

지진 · 해일 피해로 통곡하는 남아시아에 자비를

현대불교신문사는 조계종과 함께 남아시아 지진 및 해일 피해 돕기를 위한 성금모금을 전개합니다. 접수된 성금은 각국 대사관을 통해 피해지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지진 · 해일 피해 돕기 성금 동참 안내
동참문의 : (02)2011-1824~5
동참계좌 : 국민은행 023-25-0011-991 예금주 : (재) 불교중앙교원
농협 053-01-239894 예금주 : (재) 불교중앙교원
대한불교조계종 · 현대불교신문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친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한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한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한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 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보도한다. 후원을 할 불자들은 단체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을 별도로 소개한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된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는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할 수 있다.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연계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생명나눔 실천회의 골수기증 및 혈소판 모으기 행사에 후원사로 참여한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사업을 전개한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해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소개한다.

♥ **나눔장학금 전달** 2005년 하반기에는 지방에 소재한 12개 종립학교 학생 72명에게 사찰체험을 시켜주고 장학금을 전달한다.

♥ **김창배 화백 지상 선묵화전** 담원 김창배 화백이 보시한 선묵화 30점의 지상전시회를 개최한다. 또 인터넷 전시회도 열어 작품을 판매한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

나눔의 손잡기 성금

망월사-317,180원
박찬도-30,000원
조혜숙 박기규 김용재 홍경욱 김종보 김용일 조영배 조영남 이근순 조현주 고창은 김지원 김남숙 김향숙 윤동은 윤동영 유동선 -합 310,000원

총 누적금액: 35,802,830원

나눔의 저금통 수거합니다

'나눔의 저금통'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본사로 직접 접수해 주시고,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저금통을 모아 직접 개봉하여 온라인으로 입금한 뒤, 본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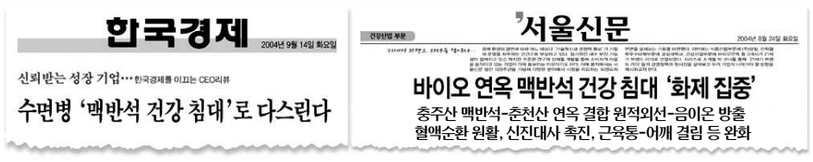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722-4162~3/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바이오연옥® 기능성돌침대

기능성 돌침대 - 돌침대의 생명은 석판!! 춘천 연옥분 특수코팅

후레임(침대틀)도 고급자재로 멋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과의 직결은 오직 석판일뿐입니다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후회없는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품질 검증 보증서 아주대학교 기계 및 산업공학부 회전전자파(氣)측정 연구팀 지도교수 오흥국 박사


한국경제 2004년 9월 14일 화요일
신뢰받는 성장 기업… 한국경제를 이끄는 CEO리뷰
수면병 '맥반석 건강 침대'로 다스린다

서울신문 2004년 8월 24일 화요일
건강생활 부문
바이오 연옥 맥반석 건강 침대 '화제 집중'
충주산 맥반석-춘천산 연옥 결합 원적외선-음이온 방출
혈액순환 원활, 신진대사 촉진, 근육통-어깨 결림 등 완화

※ 게르마늄 : 인체 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노화를 지연시키고 생체조직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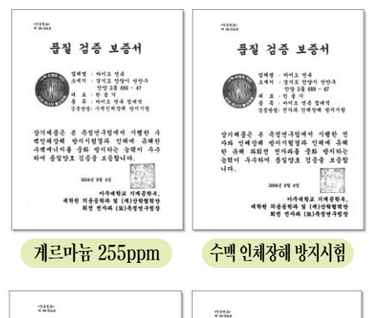
바이오연옥은 이미 아주대 기계 및 산업공학부 회전전자파 측정 연구팀의 '수맥인체 장애 방지시험'.'전자파 인체 장애방지 시험', '회전전자파 측정시험','경락순환 구동력 측정 시험' 및 '신진대사 촉진시험'등 수많은 품질검증과 요업(세라믹)기술원장 시험성적서 게르마늄 255ppm으로 이미 그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바이오연옥맥반석 침대'와 관련해 경상대 자연과학대학 백우현 교수는 "바이오 연옥 맥반석 건강 침대에서 내뿜는 고효율 원적외선은 인체의 피로회복과 자연 치유력 향상을 지녔다"며 "원적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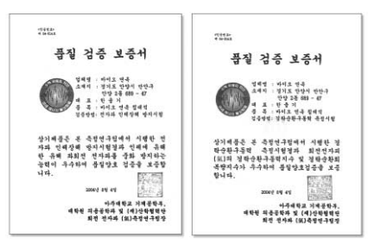


의 온열효과를 지혜롭게 이용해 온 우리 선조들의 온돌문화에 바탕을 둔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평가했다. 또 충북대 한충수 교수 역시 "이론과 실험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상업적으로만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 반면 이 제품은 인체의 신진대사와 식물 생장 및 저장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기사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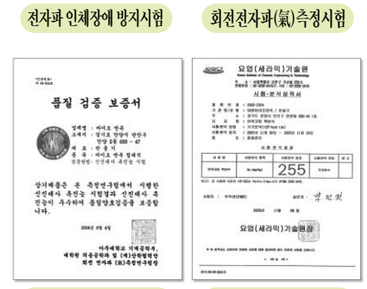
「기존 돌침대 '석판'만 교환 가능합니다」


계르마늄 255ppm

수맥 인체장해 방지시험


전자파 인체장애 방지시험

회전전자파(氣)측정시험


경락순환구동력 측정시험

신진대사 촉진능 시험

A/S : 080)445-0005
www.바이오연옥.com

바이오 연옥 본사 031)444-0005 본사 직영 매장 분당 오리역(한국까르푸) 2층 031)728-6250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개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일본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채 요가지도자 용

- 지원자격 : 1. 2004년도 4년제 대학 졸업자 or 2005년도 졸업예정자로서 요가 수련 경험이 없어도 심신이 건강한자 지원가능 2. 대구 지역 근무 가능한자
- 제출서류 :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주민등록등본 4. 재적 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 접수기간 : 2004. 12. 10일까지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인통보 면접

※ 이메일접수 : albong99@hanmail.net

휘트니스 요가원 대구시 중구 포정동

영남범음범패
천도재 49재 수륙재
바라 · 나비무 회심곡 호적
행사해 드립니다
학인스님 모집. 부산범음범패연수원
010-4870-8359
051)261-5691

경면주사
(수비경면)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구병시식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법진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앗사 055-882-3455
016-428-6665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 · 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천연황토방
자연이 살아 숨쉬는 황토
발명특허 제0300446호
041)663-4977
041)663-778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각종불공의식	천도재 49재	정	안	식	용왕산신재	바라나비춤	상	가	영	천도시식전문	명	리	주	역

각 행사 염불해 드림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011-9923-3329

육임역학 비법 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1)245-8575
053)551-1356(011-1763-3567)

레이키(Reiki · 靈氣)를 배우면
- 누구나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됩니다
- 피로회복/스트레스해소/질병치료 생명력활성화 등 웰빙의 도구
- 우스이레이키 70만원/카무나레이키 40만원
- 교육기간 : 2~3일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www.Reiki.co.kr

전화: 02)720-5719
720-5682

신축 사찰 창건하실 주지스님 모십니다
강원 인제
011-9109-3660
(24시간 상담)



명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 함
www.kbs.cc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북지역(포항)
054)252-7182

부전스님 (비구스님) 모십니다
032)522-8131

행자모심
고졸이상 만40세미만
대학 · 대학원까지
책임 후원함
02)917-3363(정릉)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
011-9723-0967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055)681-0780
011-9511-07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천시내
011-781-351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칠곡
054-972-3174
011-9942-2472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60세
010-7160-2734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모십니다
▷지리산 (50~60대)
50대미만 전화사절
011-483-5639

공양주 모십니다
011-576-2737

모십니다
불교관계(사찰운영)
동참자(동업투자)
위치: 경상북도 경주
051)894-2464
011-572-2464
010-7270-6766

사무원(女) 모십니다
불심있는 분으로 업무보조 가능하신 분
(나이제한 없음)
한국불교 금강선원 (청량리)
02)969-2410

기도스님 모십니다
051)542-4848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구기동 위치
011-439-2096

행자, 종무원, 공양주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사
011-9150-9190

빌딩관리구함
깔끔하고 부지런한 불자원함
남. 65세까지 가능 (월80만원)
근무시간 : 8시~19시(월~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
02)3477-9002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경북포항
천년 관음도량 자장암
011-584-088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고양시 화정
011-493-1121

사천왕상을 모십니다
용화사는 미륵존불 자비신앙 도량입니다
불사에 도움주실 인연있는 불자님 소원성취 기원
- 공양주 모심(50대~60대, 신심있는 불자)
경북 예천군읍 동본리 165-1 용 화 사
054)654-4925, 654-7030 / 011-758-1819

이십팔숙 특별지도
- 역술과 이십팔숙의 특수비법을 쉽게 설명 불설 28숙은 모든 역술을 총괄하는 비법이며 이것을 모르고는 역술을 논할 수 없다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 지도 : 대주스님

☎ 02)926-1259 / 011-741-0867

운세 10초내에 맞추면 수강신청
-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 저) 격국용신 및 교재내용에 대한 질문을 10초내 답변

똑같은 사주라도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되는일이 없습니다. 조상의 흐름을 찾으세요.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송암 범음대학 단기반 학인모집
2005년 1월 11일 ~ 1월 20일까지(10일간)
대령 · 관욕 · 불공 · 시식 등
단기 속성반 10일간 교육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1가 85호 보화당 한의원 옆 3층
063)643-6619, H · P 011-9454-6619(종산스님)

당뇨
- 혈당조절 물질
- 콜레스테롤 조절성분
- 혈액순환 촉진성분
- 기타 천연성분,미네랄

특수영양식품

당화혈색소 관리가 합병증 예방에 필수조건입니다.
평소에는 혈당측정, 2개월후에 당화혈색소(HbA1c)를 측정해보면 혈당관리용 제품의 품질을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제 조 : 미국의 세계적 특허기술 처방제품
일본 수출중!
판매원 : 눈밝은 세상 (02)2237-8004

요사채 건축공사 및 내부시설공사 전문
1. 노후 건물 리모델링 공사
2. 증축 확장 개보수 공사
3. 보일러 설비 및 위생배관 공사
4. 전기 공사
5. 샷시 창호 공사
6. 미장 방수 공사

불심으로 봉사하는 여일 종합 건축 공사
서울 강동구 천호동 312-22 대표 윤재만
TEL. 02)476-8139 H P. 011-9720-1443

(주)해피세븐 www.hansmall.co.kr



꿀벌이 만들어 낸 천연건강식품
독일 직수입 아가드 프로폴리스
효능) 강력한 천연 항생, 항균작용
간장기능의 활동성을 높여주는
천연의 항산화제
02-521-0648 / 011-241-6822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3월 22일(화), 24일(목) 개강 /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동시강의
▶전국 제 1의 불교대학 · 체계적인 교육
▶주 · 야간반 선착순
- 3월 22일(화)-주간반, 24일(목)
- 주 · 야간반 각 요일 선택. 주 1회
- 불교 TV 금강경강의,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큰스님들의 특별 법문
- 인터넷방송국,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출가 학교 및 행자 모집
문의 : 011-9852-0075 충무스님
문의-대구큰절: (053)474-8228,
경산도량: 811-0337, 칠곡도량: 312-8221
인터넷 홈페이지 : www.TVbuddha.co.kr

하기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제3기 불교의식 (범음 · 범패)학인모집

기초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식, 다비식 등

고급과정 49재, 예수재, 수륙재, 전문 범음 · 범패

특 수 반 천수바라, 오공양작법, 요잡바라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써 수료증을 수여하며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모집인원 ○○명 (수시모집)
강 의 매주 수 · 목 오후 5시 ~7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77-54번지
한국불교범음회 의식교육원
051)554-1518 / 011-849-0961

관상학 특강반 모집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 지선법사 직강◀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사주로 볼 수 없는 찰색!
특강반에서는 기초와
이론을 속성강의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현재 미달 접수 3명만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8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둔갑

"고통 받는 중생의 앞일을 밝힌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열린세상이 될 것이다.

스님은 지나온 세상과 또한 미래에 전개되는 앞날의 일을 밝힌다.

사람의 운명 속에는 행운과 액운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또한 불행한 운명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중생은 그 불행한 운명이 자신의 몸속에서 떠나야만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다.

지장사는 아프고 고통받는 중생들이면 누구나 찾아와서 스님과 상담하고 기도하는 법당이며 스님은 삶의 굴곡을 겪고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그 답답함과 고민을 스님의 도력으로 그 불행한 운을 퇴마시켜 시원하게 풀어주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 굿을 해도 소용없고 이곳저곳 어느곳을 가서 점을 봐도 시원치 않는 분
- 하는일이 되는 노릇이 없고 덕과복이 없어 고통에 사시는 분
- 신들림으로 몸이 아프거나 꿈에 영가가 자주 보이시는 분
- 이사나 매매, 이동 변화가 궁금하신 분

"혼자서 고민말고 바로 전화 주십시오"
스님을 친견하면 큰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천도란 첫번째는 3악도에 떨어져 있는 가장 어려운 중생을 구제하고 두번째는 인간몸을 받았지만 뭐든지 되는 노릇이 없고 내뜻에 맞지 않는 곳에 사는 것입니다.
천도란 자기소원을 이루고 가지가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스님을 친견하면 큰 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하철 4호선 수 유 역 지장사 주지 고봉 합장
전화 011-715-6333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포교당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강북
- 법당 요사 : 60평
- 임대료 : 480/55
- 시설비 : 1200만
- 위치 : 전남
- 법당 : 25평
- 요사 : 25평
- 부지 : 2500평
- 가액 : 3억8천
- 위치 : 전북
- 법당 요사 : 40평
- 삼성각 : 3평
- 부지 : 311평
- 가액 : 2억6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안내
- 절터: 종로10억(2000평 집90평) 청계산5억(150 집60평) 천안4억(8070평) 남양주4억5천(2500평) 평창5억3천(5300평) 서산1억(14000평) 양평10억(55000평) 가평1억7천(8300평)
- 사찰-서울: 1억, 3억, 7억, 4억2천 4억5천, 6억5천. 경기: 9억, 9억5천, 5억5천 음성: 1억5천 서산: 6억 대전: 5억 울산: 4억5천. 그외 사찰터 多 공양주 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북구(경북대 후문) 대로변
- 평수 : 신축 건물 130평,주차장 완비 (5층 중 4 ~ 5층)엘리베이터
- 법당 50평, 요사채 40평, 주지실 40평
- 시설 : 삼존불, 각단 및 사천왕 탱화 500옥불 인등, 방7개, 화장실 5개, 일제 시스템 에어콘, 무선앰프 집기류 일체
- 가액 : 전세 2억 1천만원 시설비 1억 4천만원

※ 최적의 포교중심지. 몸만 오시면 됨
053)959-049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소재 (시내 5분거리)
- 부지 : 200평, 주차장완비
- 법당,산신,요사,별채,용왕당
- 가액 : 2억 9천만원
- 특징 : 석불7m 조성 (융자 3천 5백만원)

010-4547-3020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망우1동 망우 4거리
- 4층건물에서 3층
- 법당 30평, 방 2개, 부엌 1개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9-571-1732

사 찰 안 내
- 경북 시내 한눈에 보임
- 땅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법당 : 18평 외 미륵불
- 요사 : 23평, 산신각
- 급매 : 1억4천만원,약수물
- 위치 : 서울
- 부지 : 천평
- 법당 : 12평
- 요사 : 30평
- 가액 : 6억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 용인시 시내
- 평수 : 건평 42평 4층
- 법당 및 산신각 단청완료 방 2개 큰거실 주방 욕실
- 가액: 보증금4천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7-372-896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일반주택 사찰)
- 대지: 160평 • 건물(시설): 36평 (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즉시입주(법회) 可.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답사 후 가격 절충 可)

019-503-795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칠성시장內
- 건물 : 5층 건물 중 2층
- 법당 : 7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70만원

가액 : 답사 후 절충 可
010-7578-0108

포교당 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지
- 평수 : 약 40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앰프 집기 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 400만원
- 덕산온천옆. 4일, 9일 장날

041)337-8078
018-601-3389

1. 충북옥천IC부근, 대지 200평, 황토법당 25평, 요사 29평 방4, 산신각 5평, 대전 10분거리(비구니스님 적합), 가액 : 1억 3천
2. 청양 칠갑산 자락, 대지 212평, 건평 35평, 임법당 25평, 남향터밭 주차장 100평, 도지가능, 가액 : 2천800만원
3. 서울 상계동 (수락산), 부지 1000평, 시유지, 임법당 50평 산신 동굴에 모셔짐, 요사방 4개, 가액 : 6억 5천만원
4. 조치원 서면, 대지 700평, 법당 12평(목조건물), 산신각 5평 요사채 30평 ,창건 150년, 문화재 사찰 (주지발령 급매) 가액 : 6억 2천만원

전국사암 다량보유
大田 017-409-9599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경남 김해시 삼계면
- 대지 : 150평
- 건물 : 35평
- 가액 : 1억 6천
- 뒤는 산밑이며, 앞은 4차선 도로임
- 위치 : 서울대역 지하철역
- 법당 : 35평
- 요사 : 방1개
- 보증금 : 1천만원에 월 70만원
- 시설비 : 방문후 결정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7천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55)323-2858
011-9542-5726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감전동 부근
- 총 40평 (공양간, 방3개)
- 감전 지하철 역에서 5분거리
- 보증금 2000만원 시설비 500만원 월세 25만원

011-813-8806
051)327-9022

사찰안내
- 위치: 대구시 북구
- 대지 320평
- 대웅전, 공양간(2층) 산신각, 요사채 등
- 부대시설완비
- 가액: 13억

011-817-2889

사찰안내
- 위치: 경남통영시내
- 법당, 요사 2채, 화장실
- 가액: 보증금 없음 월 20만원 시설비 2500만원 답사 후 절충

010-6355-6397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시장 사거리
- 평수: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평수 : 3층(5층건물), 35평, 엘리베이터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1백만원 시설비 4천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02)571-0063
016-9374-5319

포교당 안내
- 위치 : 은평구 대조동 연신내부근 구산전철역
- 평수 : 24평
- 시설비 : 300만원 보증금 : 700만원 월 60만원
- 즉시법회, 운영가능

010-6368-2590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 201평, 전 : 33평, 법당 : 20평
- 법당내 108소불,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지장, 탱화 등 영가단 설치 최고시설(즉시법회가능)
- 요사채 : 1동, 40평 – 방 3개, 주방, 화장실내 2개, 옥외화장실 3개, 창고1개, 대형주차완비, 정남향, 교통편리
- 가액 : 1억 5천만원(절충가능)

011-817-4027

포교당(급)안내
- 위치: 울산 남구 인구밀집지역
- 2층건물 중 2층 (32평)
- 건물 (시설) : 법당 15평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016-640-8133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진주 마산 중간지점
- 불사관계로 좋은스님에게 양도하고자함
- 가액 : 300만원 절충상담

010-3189-3525

사찰안내
- 위치 : 경기 양평읍내
- 대지 : 26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5평
- 가액 : 2억 7천만원
- 양평읍내 10분거리 산밑 별장임

010-8678-1322

포교당(급)안내
- 위치: 청주시 흥덕구 2층. 50평
- 삼존불, 각단 후불탱화, 지장전, 법당18평, 큰방 2개, 주방, 화장실 따로. 시설완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약간의 시주금으로 평생절에서 기도하며 함께 지내실 분을 모십니다

016-261-2068

포교원안내
- 위치: 김포시내, 중앙승가대학교 오분거리,현재 4학년 졸업반
- 평수: 3층중 3층 / 55평
- 특징: 큰방2 영가단-방1별도 108명분집기, 최고급불기 스님방에어컨, 전체보일러
- 스리랑카불교이주노동자월례법회
- 법당: 원목상단, 후불탱화/50평 지장호신동불 216불
- 가액: 전세4천/시설비2천/합6천

011-820-150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려3동
- 전세 5천만원 또는 3천만원에 월 3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삼존불, 산신탱화, 원불, 용궁탱화, 신중탱화
- 시설일체

011-9556-8413
010-8623-9234

포교당 안내
- 위치 :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274-23호 (구 서민병원 맞은편 문천사책방 골목)
- 2층건물 2층, 법당 30평, 후불탱화, 삼존불, 신중탱화, 지장탱화, 지장불, 영가단, 법당 앰프시설, 범종, 에어컨, 옥탑에는 삼성각 요사채 30평중 방4개 거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시설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모든집기와 시설비 추후 결정 (선착순)

010-6319-6885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안락동
- 평수 : 35평
- 불상 5불, 각 탱화 모셔져 있음
- 가액 : 보증금 23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300만원
- 집기일체 즉시법회 가능

051)524-8180
011-844-9893

사찰안내
- 위치 : 강릉 I · C 부근 천혜의 소나무 자연 조경
- 부지 500평, 노천 미륵 법당
- 법당 30평, 요사 30평, 산신각
- 가액 : 2억 (융자 6천만원 포함)

011-452-8374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봉덕동
- 건물 : 2층 건물(40평)
- 특징 : 모든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천만원. 월45만원
- 시설비 : 500만원

018-541-1890

포교당 안내
- 위치 : 도봉구 쌍문2동 563번지 2층 건물의 2층
- 평수 : 20평, 방1칸, 부엌1칸, 법당1칸
- 시설 : 아미타불, 상단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관음보살, 지장보살, 종성
- 가액 : 1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 900만원
- 용도 : 철학관, 일반사무실

017-304-2663
02)998-4960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불광동 버스터미널 부근
- 평수 : 20평 지하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019-331-1507

사찰안내
- 위치 : 충북시내가 한눈에보임
- 대지 : 50평, 3층건물. 3층 법당 2층 방3개, 주방, 화장실, 1층 방4개, 주방, 거실, 화장실 교통편리, 도로옆 코너, 포교적지
- 가액 : 2억2천만원. 절충가능

011-753-0768

토굴안내
- 위치 : 충남보령 외곽지역
- 대지 : 270평
- 건물 : 조립식 15평, 스레트 건물 15평,
- 정남향 포근하고 아늑한 기도도량 특히 법사님, 비구니스님, 보살님께 최적의 장소, 자세한건 전화요망

011-526-1824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속초
- 건평 : 60평
- 황토로 내부시설완비 삼존불
- 가액 : 답사 후 결정
- 즉시법회가능

033)631-4831

사찰안내
- 위치 : 경북시내지역
- 대지 : 350평
- 시설 : 집기일체 양도함
- 특징 : 시내가 한눈에 보임
- 가액 : 보증금 1억 500만원 융자안고 양도 可

018-541-1890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총평수 : 37평(지하1층)
- 법당 : 25평,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200만원, 월 12만원 집기 포함 시설비 1500만원

011-9238-9960

좋은 인연 찾음
- 백두대간 지리산 동하 뒤 천황산자락. 무량산. 남 앞으로 천왕봉, 장군봉 좌천룡우백호의 봉황포란형
- 종교부지 300여평 기타 1000여평 태백산 赤松 원통전 30평 요사채 30평 기타 지음
- 자연경관 300여만평의 숲에 쌓임. 숲속산길 일품
- 선방 및 기도처 휴양공간으로 최적. 등산로 옹달샘
- 여러조건 10억 → 지금 5억(불경기 및 급히 인도 요양)

010-8019-4862 고성(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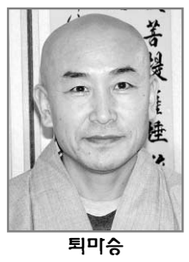
제43회 3000배 용맹정진

500만 배 첫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일 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몰록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은 즉시 이뤄집니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 날 짜 : 1월 29일(토) 저녁 9시 ~ 일요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수련복(하의) 2매, 간단한 간식, 물병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 장 소 : 분당 이매역 하얀마음선원 대법당
- 찾아오시는 길
  - 전철: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 교육도량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 오시는 길: 5,7호선 군자 전철역 4번 출구. 백악관방향으로 100M 이망스 가구 4층
☎ 문의전화: 02)456-4994, 0035(팩스겸용), http://cafe.daum.net/sorisan


퇴마승

영험도량

퇴마란

현 시대는 남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바삐 뛰어도 만족을 못하는 이기주의 현상으로 말법시대입니다.
자업자득 법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짓은 복이 소멸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때 들어나는 것은 전생업마, 현생죄마, 죽은사람마, 동물마, 미생물마, 기타등등이 마음에 장애가 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력이 있는자가 불보살님 힘을 얻어 마를 물리치는 것을 퇴마라 합니다.

영 가	빙 의 현 상 (이유)
조상영가	집착, 미련, 그리움, 애착 때문에
낙태(유산,자연)	무서워, 갈곳이 없어요
타영가	여기저기 다니며 놀고 싶어 왔어요
미물영가	너무 고통스러워 왔어요

오랜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안심하시고 찾아오십시요.
빙의현상, 가정우환, 기타 깨끗이 치료됩니다.

해 원 사 초하루, 18일 지장재일 신중참회기도
031-736-3734 · 732-3790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대역 인접 (봉천동 대로변 아파트 밀집지역)
- 평수 : 35평 일체시설 완비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1백만원 (시설비 절충)

010-7181-1878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 대지 : 230평
- 구조 : 법당 24평, 요사채 30평 주차장 10대 가능
- 가액 : 5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1-848-4210

사찰안내
- 위치 : 밀양읍 지역
- 평수 : 1280평
- 건물 3동, 방5개, 부엌2, 창고1, 화장실 각1개 (실내,실외), 법당 정동쪽으로 위치
- 가액 : 1억7천만원 (집기일체포함)

011-1766-1093

포교원안내
- 위치: 수원시 장안구
- 3층건물 중 3층. 70평
- 내부시설 A급
- 가액: 1천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6304-0036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엄광리 엄광사
- 법당에 부처님 10분, 후불탱화, 산신탱화, 용궁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지장탱화
- 가액 : 1억3천만원

011-824-593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 법당 : 40평
- 특징 : 옥상시설 사용 13평, 판넬
- 보증금 : 1천만원 월 40만원

053)957-9551
011-398-9807

사찰안내
- 위치 : 부산근교 (시내버스 다니는 신도시)
- 대지 60평, 평당 200-250만원대
- 건물 64평 신축건물 1층 32평 요사채 2층 29평 법당 3층 4평 칠성, 산신, 나반
- 실 수요스님 일절 중계인 사절

011-868-599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소사역 걸어서5분 (소사시장 입구)
- 평수 : 35평 스님방, 주방, 접견실
- 가액 :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300만원 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됨 (더이상 좋은조건은 없음)

032)343-5701
010-3448-661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대동면
- 대지 : 170평, 건물 40평 (대웅전, 요사채, 행랑)
- 가액 : 3억 5천만원

절터안내
- 경남 양산시 어곡동
- 임야 3천평, 전 500평
- 가액 : 3억

011-864-7332


김천 직지사 자하문. 측면 공포를 연결한 부재가 부러져 있다.


공주 대원암 칠성도. 습기로 인해 불화의 색상이 훼손돼 흉한 모습이다.


곡성 태안사 보제루. 창방 가운데부분이 부러져 휘어진 듯 보인다.

비지정문화재 '푸대접' 더이상 안 된다

불화 · 전적류 습기 · 해충에 노출, 건축물 보수 뒷전
지자체 관리한계 … 예산부족도 방치 · 부실공사 원인

보존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지정이라는 이유로 많은 문화재가 원형을 잃어가고 있어 비지정문화재 보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성정, 이하 조사단)의 대전 · 충남지역사찰 동산문화재 일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7천714점 가운데 지정문화재는 국보 9점, 보물 49점 등 218점에 불과하다. 절대 다수의 문화재가 '비지정' 상태로 외면당하는 실정인 셈이다. 조사단은 이들 비지정문화재 가운데 보존가치가 높은 154건 2천458점을 지정관리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존 최고(最古) 목불일 가능성이 밝혀지며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개심사아미타불좌상(12~3세기 추정)조차도 비지정문화재라는 사실만 봐도 지정 여부가 곧 문화재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님은 단박에 알 수 있다.

동산문화재 가운데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불화나 전적 · 경판류. 습기와 해충에 취약한 불화 · 전적 · 경판은 대개 상태가 좋지 않아 멀쩡한 것이 오히려 드물 정도다. 많은 불화가 습기나 곰팡이 또는 향과 촛불로 인한 그을음과 촛농으로 본래의 빛깔을 잃어가고 있다. 또 경판은 판각(경판고)을 갖추지 못한 대부분의 사찰에서 한곳에 쌓아두는 식으로 보관하고 있어 썩거나 해충과 쥐로 인한 손상이 심각하다.

건조문화재의 경우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법당 등의 주요건축물은 지정된 사례가 많지만 요사채나 루, 일주문 등은 중요성이 간과돼 충분한 가치에 반해 지정된 경우가 드물다. 직지사 자하문이 대표적인 예다. 직지사 자하문은 구조기법과 조성미가 탁월하고 이른 시기(17세기)에 세워진, 대표성을 띠는 일주문임에도 지정되지 못한 탓에 푸대접을 받고 있다. 측면 공포 연결 부재가 꺾여 평방 위 귀포가 바깥쪽으로 쏠리고 있지만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 태안사 보제루 또한 창방이 부러져 서까래가 처져 있는 상황임에도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 창방은 맞배집에서 특히 중요한 부재로서, 이것이 부러지면 건물이 한쪽으로 일그러져 붕괴까지도 우려된다.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보수 예산은 지정문화재에만 집중되고 있다. 비지정문화재는 지정문화재의 '주변정비' 차원에서 공사가 이뤄지거나 전통사찰 지원비 명목으로, 현실적인 보수비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거의 전부다. 따라서 원형보존에 대한 관심은 희박하기 마련이고,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예도 잦다.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소홀을 악용하는 사찰도 있다. 재정상태가 좋은 일부 사찰에 국한된 이야기이나 비지정문화재는 공사 시행에 제약이 적다는 점을 이용, 보존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어버리고 크게만 지어 사역(寺域)을 망가뜨리는 예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심지어는 '불사'를 위해 지정을 기피한다는 말까지도 있다.

이처럼 비지정문화재가 시련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화재청 차원의 보존대책은 현재로서는 전무하다. 문화재청 한 관계자는 "문화재청은 지정문화재 중심으로 관리하고, 비지정문화재 관리는 지자체의 의무로 돼 있어, 지자체가 자체적인 조례를 제정해 비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며 "가치 있는 문화재에 대한 지정확대를 통해 지정문화재로서 관리하는 것만이 현실적인 대안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현재 동산문화재에 한해 조계종문화유산조사발굴단이 시행중인 사찰문화재일제조사 외에도 금년중으로 건조문화재 일제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지정확대가 하나의 대안이기는 하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계종 한 관계자는 "지정 절차가 복잡해 조치를 필요로 하는 모든 문화재에 적용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돼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지정 여부를 떠나 문화재 관리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의식을 갖고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석조문화유산 보존관리센터 생긴다

문화재청 중장기 대책 마련 … 감은사탑 올 해체보수

유홍준 문화재 청장이 지난 연말 '선언'한 경주 석탑 해체복원 전면재검토 방침에 입각한 보존관리대책(이하 대책)이 나왔다.

현재 문화재청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중요석조문화재보존관리대책'에 따르면 국보 제112호 감은사지서3층석탑은 애초 계획대로 해체 · 보수에 들어가고, 불국사 다보탑은 조사연구를 거쳐 2006년에 보수공사를 시행한다.

또 국보 제21호 불국사 석가탑은 조사연구를 거쳐 보수방향을 검토해 2008~2009년에 확정지을 예정이며, 국보 제20호 정림사지 5층석탑은 보존 및 유지에 초점을 맞춰 2006년까지 보존처리를, 이후에는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감은사지 서3층석탑은 옥개석이 부분탈락하고 옥개받침석이 파손되고 기단부와 옥개석에 판상박리가 나타나 흉한 상태며, 석가탑은 기단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 균열이 생기고 내부에서는 공동화 현상이 발견되는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석탑 보존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왔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중장기적으로는 석조문화유산 보존관리센터를 신설해 국가지정 석조문화재에 대한 수리 및 점검, 보존관리기술 연구에 주력한다는 복안도 세워놓았다. 이를 위해 건축, 미술, 보존과학, 토목, 지반공학 등 전문가들로 종합팀을 구성하고 전담 연구인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사업 시행 전에 시민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1>

연재를 시작하며

사람마다 나이가 먹는 것,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다른 감회를 느낄 것이다. 불교의 시간관은 인도의 전통적인 시간관인 순환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진행적인 시간관에 비해서 순환적인 시간관은 원과 같이 시작과 끝이 따로 없이 돌고 돈다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어느 시간관이 더 옳은가를 알기는 참으로 힘들다. 현대 물리학은 우주에 관한 한은 진행적인 시간관에 손을 들어주는 것과 같이 보인다. 즉, 우주가 매우 짧은 시간에서 생겨났으며, 이때부터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시작점이 있어서 이를 기점으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모델이 멀리 있는 별들일 수록 더욱 빠른 속도로 거리가 빨리 떨어진다는 관측과는 다르게, 빛의 속도는 관측자에 따라서 일정하다. 달리는 기차에서 보면, 옆에서 달리는 기차가 서 있는 듯이 보이지만 빛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험이 통하지 않는다. 시간 역시 빨리 달리는 로켓에서는 더 천천히 흐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칸트가 분류한 진리, 즉 우리의 경험과 관련이 없다는 순수 진리, 예를 들어 직선은 공간상의 가장 가까운 두 직선이라는 진리 역시 칸트의 머리에서 나온 한계가 있는 진리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공간 역시 중력에 따라서 휘기 때문이다.

현대 과학은 서양 문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학은 서양의 전통, 즉, 논리를 숭상하는 철학적 전통에서 생겼다. 철학(philosophy)이라는 단어

논리 뛰어넘은 진리 추구 과학 한계 극복
종교 · 철학 왜소화된 이 시대 불교 '새 빛'

일치하고 있다. 마치 풍선이 부풀어 질수록, 풍선의 그림들이 서로 빨리 멀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그러나 현대 물리학은 특이점, 즉 시간이 생기기 시작하기 전에 대해서는 함묵하고 있다.

초기 경전인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아야 하는 항목 중에서 우주를 누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든다. 이 가르침에는 많은 의미가 있으리라.

차라리 깨달음을 위한 노력을 하는 편이 낫다는 실용주의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깨닫고 나면 그러한 질문들이 자연히 해결된다는 진리에 대한 종교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다. 어느 한 면을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면을 다 말씀하신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거한 생각들이 얼마나 진리에서 먼가를 현대과학이 알려주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빛의 속도에 관한 것, 시간에 관한 것, 공간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경험자체가 앎에 대한 사랑을 나타나는 말이고, 이 앎이라는 자체가 철저한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전통에서 수학이 생기고 경험적 관측을 수학화하고, 수학이 새로운 사실을 예측하도록 함으로써 위대한 과학과 철학의 전통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학과 기술이 우주 존재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 인간의 안전과 예측 가능한 삶을 보장해 주는 단계를 뛰어 넘어서 진화의 법칙을 제어하고자 하는 생명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21세기를 지배하는 물질 문명의 새로운 논리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종교 및 철학이 미치는 영향이 왜소화하는 시대에 부처님과 성인들의 가르침이 전 세계의 많은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빛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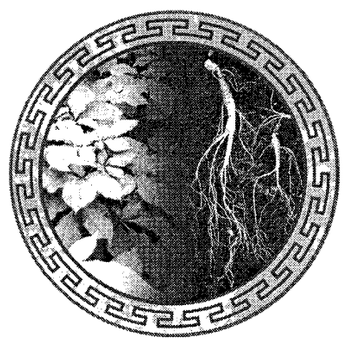
이러한 새로운 빛이 현대 과학기술과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불자들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박영준 교수는
현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로 서울대 교수불자연합회 '불이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미국 매사추세츠대학에서 전기공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대 나노응용시스템 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공주대학교 석교과학연구소 ·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 SAMSUNG 2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상해보험주식회사

이것이 명품이다!
명품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산삼배양근이 함유된 제품으로써
그 효능과 품질로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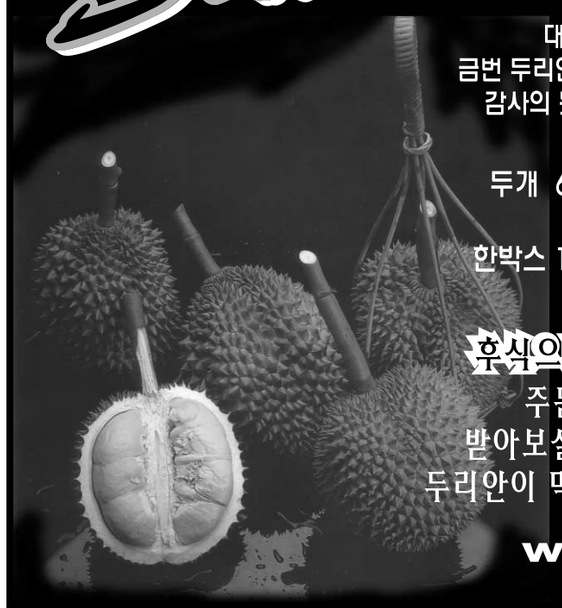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일천분에 한하여
심마니토종오가피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심마니 토종 오가피

중년의 건강과 활력을 부모님에게는 건강한 노후를 자녀에게는 몸과 정신을 튼튼하게
가족 건강이 행복의 최우선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가 지켜드립니다.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47-9114 (주)현풍F&B HYUN PUNG F&B CO.,LTD.

Sale! 과일의 왕 두리안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번 두리안을 대량 수입하게돼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두리안 가격을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두개 6.5KG이상 55,000 원
한박스 13KG이상 100,000 원
후식으로 망고스틴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www.durianshop.com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후레쉬 망고가 입고되었습니다.

일주문



환경위 전체회의 개최

조계종 환경위원장 지원 스님(사회부장)은 1월 31일 오후 4시 서울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환경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신촌 봉원사 제38세 주지에

옥천범음대 학장 구해 스님은 지난 12월 29일 열린 연말 봉원사 대중공사에서 신촌 봉원사 제 38세 주지로 선출됐다.



어린이 동계수련법회

천안불교사암연합회장 대원 스님은 1월 7~9일 천안 부루나어린이집 등지에서 어린이 동계수련법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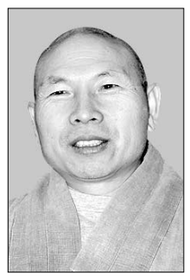


한나라당 정책운영위 의장에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정각회 부회장 박세일 의원이 1월 11일 한나라당 신임 정책운영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됐다.

"건학이념 · 정체성 확립 노력"

동국대 신임 정각원장 진월 스님



"단순히 교내 법당의 책임자가 아닌 종립대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인 진월 스님(사진)이 1월 10일 동국대 제9대 정각원장에 임명됐다. 교원이 아닌 외부인사가 조계종 종립대학의 정각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지난해 8월 대학정관에 정각원장 자격을 기존 교원뿐만 아니라 승랍 30년 이상의 조계종 스님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하면서 상당부분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진월 스님은 "동국대 불교대학이 침체된 데는 외부환경에 맞게 적극적으로 변화하려는 내부의 의지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개교 100주년을 앞둔 동국대의 발전에 정각원장으로서 다양한 외부인사들의 참여를 유도해 동국대와 불교대학 발전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1984년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한 진월 스님은 68년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미국 하와이 대학에서 종교학 석사, 버클리 대학에서 불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으로 종단의 해외포교에 열중해 왔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대북사업 문화 · 생필품 병행"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새 본부장 명진 스님



"최근에 진행한 신계사 복원 사업과 같은 문화교류사업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생필품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1월 13일자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에 임명된 명진 스님(봉은사 선원장 · 사진)은 '의식주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문화교류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2004년은 6 · 15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가 가장 냉각된 시기였다"고 평가한 스님은 "앞으로는 조계종과 조불련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궁극적으로 남북 불교지도자들의 상호방문까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0년 6월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창립 당시부터 상임집행위원장과 부본부장을 맡아왔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상월대조사 94회 탄신봉축법요식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1월 8일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2만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상월원각 대조사 제 94회 탄신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법요식에는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 총무원장 운덕, 종의회의장 정산, 감사원장 도정 스님과 참여불교재가연대 박광서 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동종 용천사서 신년하례법회



조동종(총무원장 심월)은 종정 지명 스님 등 40여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1월 6일 서울 용천사에서 신년하례법회 및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스님들은 최근 일어난 동남아 지진 및 해일 피해 돕기 성금을 모금하는 것에 적극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본원종 서림사서 신년하례법회



본원종(총무원장 대화)은 1월 7일 양평 서림사에서 2005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원로의원 범용, 종회의장 대은, 포교원장 대봉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종정 무구 스님은 "올 한해에도 부지런히 수행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원융종 원융사서 시무식



원융종(총무원장 법륜) 시무식이 1월 8일 서울 원융사에서 4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원융종은 이날 3월 26일 종단 창종기념법회, 6월 25일 수륙대재, 7월 22일 종정예하 탄신일, 10월 현해탄 수륙대재 등을 올해 종단행사로 실시키로 했다.

"전국 사찰 공연 투어하고 싶어요"

불자가수 홍경민 6집 내고 불심 up!



"언젠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전국 사찰을 순회하며 공연하고 싶습니다."

2년 2개월간 군복무를 마치고 우리 곁에 돌아온 불자가수 홍경민(사진)이 최근 6집 앨범 'Listen & Repeat'를 출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앨범은 군 입대 전 한국의 '리키 마틴'으로 불리며 활약하던 과거 댄스 음악의 틀에서 벗어나 록 음악을 가미한 곡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홍경민은 "2년여 동안의 군 생활은 극한상황에서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한층 성숙한 가수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군 복무 중 힘든 훈련을 앞두었거나 슬럼프에 빠졌을 때면 어머니께서 주신 염주를 돌리며 마음을 가다듬었고 알기 쉽게 부처님 말씀을 담은 <법구경>을 여러 번 탐독했다"며 "무엇보다 무사히 제대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위해 매일 새벽 부처님께 기도드린 어머니의 지극한 불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SBS 인기가요와 케이블TV 음악방송 m · net 등 공중파와 케이블 TV를 오가며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끼와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홍경민은 왕성한 가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여름 시즌을 겨냥한 다음 앨범도 서서히 준비중이다.

그는 또 당분간은 가수활동에만 매진하겠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TV드라마와 영화에도 출연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홍경민은 국군방송 홍보대사로 임명돼 1월 18일 서울 용산동 국방홍보원에서 위촉식을 갖고 앞으로 1년간 국방부 관련 행사 등 각종 군 관련 홍보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전국에 계시는 대사 · 현인 · 기사 · 이인 각위께



제가 「六壬」하나 들고 세상에 나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 육임래정비법 」** ① 2십5만원짜리부터 ② 3십5만원짜리 ③ 1백3십만원짜리 ④ 1백5십만원짜리 ⑤ 2백5십만원짜리를 써서 교환해 드린 기간도 5년입니다.

제가 책을 쓴다고 알려 드리면, 저를 신뢰 하시고 큰 돈을 미리 선 입금하신 다음 책이 나올 때까지 넉넉하게 기다려 주신 그 큰 공덕에 힘입어 저의 소명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 육임래정비법 」** 시리즈 마지막 판 **「육임대계전서」**를 60갑자 **60권**으로 써서 **매일 일진별로 1권씩 꺼내 보겠끔** 만들었습니다. 책 크기는 교과서만 하게 줄이고, 흰 바탕에 검정 활자체로 큼직큼직하게 처리해 기존의 책들보다 시원스럽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특히 물어오는 항목을 30개로 늘리고, 이 30개 각 항목마다 세부적인 소항 목을 17개~3개씩 부연시켜, 좋다는 육임, 어렵다는 육임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도 막힘없이 확실한 말씀이 되도록, 정확도를 높이는 등 기존의 불편한 부분들을 말끔히 해소 시켰습니다.

아주 쉽게 잘 나왔습니다. 또한 **「귀신침범」, 「빌미 · 부정」, 「산소탈」을 명시**하고 **그 비방법을 자세하고 명쾌히 적시**해 놓아 「효과 있다 택일하라」,「효과 없다 기다리라」고 써놓은 것만 보면 어떤 수법을 행해도 안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미 **6개월 전부터 선입금**하신 분들께는 지난 1. 12일까지 3차에 걸쳐 배본을 끝냈고, **「육임래정비법수정보완본(적색)」 교환신청**도 마감하여 발송해 드렸습니다.
한정본 500질 (1질 60권)만 발간했습니다.

제가 쓴 책의 정확도를 믿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 **「평생의 반려」가 될 이 보서**를 크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효사활인천역집II」CD 역시 명품으로 나왔습니다. 컴퓨터를 기본만 하시면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육임대계전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육임활용서를 못쓰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동방대학원대학교의 초빙교수로써 석 · 박사 과정, 연구과정, 문화교육원과정의 육임강의를 맡아 육임학(역학)의 제도권 연착륙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는 **1월 20일 전까지 입금**하시는 분께는 입금 순서대로 전국 어디든 「한진택배」로 주문 다음날 까지 도착시켜 드리겠습니다. **鼓卜子 曉 史 배상**

● **문의전화 : 02)993-8680** (담당 : 이명옥) ● **가 격 : 400만원 (카드결재 · 홈페이지 전자결재도 가능합니다)**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 **견본열람 :** www.taotemple.net (한국육임학회) 「서적 · 비디오 · CD」란을 클릭 하십시오.

"시중포교의 지혜로운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득도후 평생 법 공부만 열렬했던 소승이 시정(市井) 포교 인연을 맺다보니,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제반 애로가 쌓여 고심하던 차, 「육임대계전서」와 「효사활인천역집II」 CD를 큰맘 먹고 구입했는데, 과연 듣던 대로 효과가 커서 포교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역학을 전혀 몰랐던 소승이, 이 책과 CD와 인연이 된 뒤로 신도들로부터 많은 찬사와 귀의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은, 시중포교의 애로를 겪는 분만이 아는 절실한 문제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소승이 이「명품」을 굳이 소개 하는 것은, 저처럼 市中포교의 현장에서 어려운 경험에 당황하고 계실지 모르는 寺門들께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져 하는 마음에서 입니다. 특히 무슨일로 왔는지? 어떤 사정인지? 무슨 귀신침범인지? 부정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 산소탈인지? 천도시식의 효과가 있는지, 없겠는지? 그 해소법까지 자세하고 영험하게 적혀있어 가히 백미 이더군요.

참 좋습니다.

생소한 것들을 암기할랴, 시간낼랴, 대중과 섞여 일반공부, 특히 역학을 공부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감안할 때, 이 「책」과 「CD」는 오히려 절약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아주 시원한 방편입니다!

나무지장보살

은 천 사 주지 象 山 합장 011-341-7540

■ **배본 · 설치신청**
● 부산 051-756-0141 ● 광주 062-571-9075 ● 대전 042-223-8680
● 대구 053-624-8680 ● 전주 063-284-7714 ● 인천 011-729-6011
● 춘천 033-682-4653 ● 제주 064-732-0335 ● 서울 02-993-8680
※ 위 곳에 주문하시면 배본 · 설치는 물론 활용방법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육임무료강의를 각 지역 학당에서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책 중 각 일별 각 시간별 각 국수에 적시된 30개 정단항목의 부연항목 일부 내용

■ 본 초사(初辭) : 가장 먼저 할 적중되는 말은?
이사부터 하시지요. 살집이 못 됩니다.
관재 · 소송이 발생하겠어!
남 : 타인의 부인을 내 마누라처럼 쓰고 있네?
여 : 고진감래(苦盡甘來)야!

■ 본 래정(來情) :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낮 시간 판단	나 자신과 형제의 근심 · 걱정건 이다.
●밤 시간 판단	나 자신과 형제의 근심 · 걱정건 이다.

▮초사

一사업사	① 어떤 사업이 좋은가? 여부	土, 인수 이다.
	② 신규사업(계획) 성패 여부	반은 성공한다.
	③ 사업진행과정 길흉 여부	어려운 상태이나 이겨낸다.
	④ 거래(관계)인 이해득실 여부	이득이 없다.
	⑤ 거래(관계)인 가정사 파악 여부	낮 : 분쟁 이다. 밤 : 분쟁 이다.
	⑥ 난사 교섭 성부 여부	어렵다.
	⑦ 교섭사 전후 난이 방침 여부	참고 기다리라.
	⑧ 공사 진행 차질 대비 지침 여부	관계에 대비하라.
	⑨ 영업장 설치 성쇠 여부	불가하다.
	⑩ 사업(업무) 진퇴결심 여부	물러서라.
	⑪ 계획사 늦고 빠른지 여부	늦다.
	⑫ 공적 · 사적 추진 길흉 여부	보류하라.
	⑬ 투자 득실 여부	중지하라.
	⑭ 회의(안건)반대자 유무 여부	반대자의 세가 강하나 무방하다.
	⑮ 중요상담 승부 요령 여부	남서방을 등지라.
	⑯ 행사예정일 청 · 우 여부	흐리고 비 이다.
	⑰ 개업 · 고사 · 행사일 택일 여부	축(丑) 일을 택하라.

▮사업사

五소송승패사	① 소송 승패 여부	원고가 승소한다. 고난이 있다. 화해가 길하다.
	② 구속 · 불구속 여부	구속되지 않는다.
	③ 처벌 · 무혐의 여부	혐의가 없다.
	④ 중죄 · 경죄 여부	경하다.
	⑤ 도망 길 방위는?	丑 방향, 북북동쪽 이다.

▮소송 승패사

十五질병사	① 무슨 질병인가?	심장, 위장계 이다.
	② 질병발단 이유?	귀신 침해 이다.
	③ 치료가능 여부	낫는다.
	④ 치료 길방위 지정 여부	辰 방위로 가라.
	⑤ 효과있는 치료방법 여부	정성 기도하라.
	⑥ 교통사고 생사 예측 여부	산다.

▮질병사



▮전60권 매일 1권씩



불자 세상보기

신 준 식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KTX, 서비스는 '완행열차'

금년 1월 1일부로 국영철도가 공영철도로 바뀌면서 철도공사가 창립되었다. 먼저 한국철도공사의 창립을 축하하는 바이다. 1899년 우리나라 최초의 철로인 경인선이 개통 된지 105년이 지나서야 국영철도에서 공영철도로 바뀐 셈이다.

공사는 정부의 기업형 경영체제로 발전적 조직으로 본다. 그래서 국민이 갖는 기대도 크다. 또한 기대가 큰 만큼 비판도 따를 것이다. 그래서 공사로 전환한지 며칠 되지 않아 KTX의 빈번한 연착과 고장문제, 새로이 변경되는 규정으로 이용객들의 불편과 혼란을 겪는 등 언론과 사용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개인이나 조직이 비판을 전혀 받지 않을 수는 거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비판에 무감각하거나, 비판을 고의로 무시해 버리면 서로가 손해를 보는 것이다. 문제는 철도공사의 사고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다. 바꿔 말하면 철도공사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철도공사 스스로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기업들은 철저히 '고객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다. 그것은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철도공사가 민간기업이라면 과연 지금과 같은 안일한 운영과 정책을 펼 수 있었을까?

인간의 모든 조직과 제도는 궁극적으로 다수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비판이 많은 것은 무엇보다도 청소년에게 주어지던 할인요금혜택을 없애버린 것이다.

우리나라가 70~80년대의 피눈물나는 노력으로 세계사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제법 잘 사는 나라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는 정체된 상태, 아니 그보다 못한 상태에서 국민 다수가 더욱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학생만을 한정해 보더라도,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학생, 학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학생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하지 않은가. 우리의 공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학교에서 학원으로 또한 학원에서 학교로 오가면서 혹사를 당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에 실망한 나머지 조기 유학생이 자꾸만 늘고 유학생에게 송금하는 돈이 1년에 약 10조원에 육박할 정도라니 놀랄 일이 아닌가. 유학이 직·간접 원인이 되어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이 늘고, 병역이 문제가 되어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까지 생기고 있다.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진정 우리의 학생이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제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청소년 요금할인제도만 해도 이것은 청소년을 위한 부분적 복지이고 나라 발전을 위한 투자인 것이다. 다수 국민이 바라는 좋은 제도로 바뀌면서 복지차원의 혜택을 더하지는 못할 망정 주어지던 혜택을 빼앗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청소년을 위한 요금제도에 개선이 있었으면 한다. 공사가 됨으로 해서 직무 영역에 많은 재량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교통수단의 중요 목표는 합리적인 요금 하에서 편리와 쾌적한 탑승 그리고 안전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철도공사도 국영기업인 이상 이익을 많이 올리면 좋은 것이다. 특히 공사로 바뀌면서 5조원이나 되는 부채를 갖는 입장에서 수익사업에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철도교통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이 소홀히 될 만큼, 또한 철도공사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물음이 제기 될 만큼 수익사업에 욕심을 내어서는 아니 된다. 철도교통이 국민들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게 되고, 이용자의 이익과 공사의 이익이 합쳐질 수 있는 노력을 하게 되면 진정한 공사의 발전은 따라 오기 마련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최근 큰스님들의 줄이은 입적과 맞물려 지나치게 외형적이고 대형화된 스님들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교단 내외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온게 사실이다. 거액의 돈을 들이고 수많은 인파를 동원하는 것이 마치 입적한 스님의 위상과 법력을 보여주는 것인양 여기는 풍토는 공수래공수거를 강조하는 불가의 진면목과는 사뭇 거리가 먼 것이어서 세간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또한 이같은 다비식 등의 행사에 참석한 많은 스님들에게 일일이 여비를 나눠주는 관행은 그 액수가 만만치 않아 어느 절에서는 빚을 내어 행사를 치렀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해당 사찰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게다가 사찰에 찾아와 과도한 여비를 요구하거나 전문적으로 여비를 타러 다니는 신원불명의 승려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때에 종단 일각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간소한 사찰행사' 환영한다

지난 1월 7일 해인사에서 열린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는 스님들의 영결식과 다비식, 또는 진산식 등의 행사를 간소하게 치르고 객스님들에게 여비를 나눠주는 관행도 없애자고 결의를 했다고 한다.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러한 결의가 자칫 교구의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옹색한 아이디어는 아닐 것으로 믿는다.

진실로 검소하고 배금주의에 물들지 않는 승가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더구나 요즘처럼 온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때에 행사차원이든 개인차원이든 승가의 과소비적 행태와 허례허식은 반불교적일 뿐만 아니라 세간의 비판도 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행히 본사주지스님들 뿐만 아니라 원로회의와 중앙종회에서도 여기에 동의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종단의 통합적 결의로 보여져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전국비구니회에서 부고시 부조금을 받지 않기로 결의한 것도 박수를 보낼만한 일이다. 조계종 총무원장스님도 허례허식과 불필요한 경비지출이 근절되도록 적절한 지침과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니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자 한다.

검약과 무소유야말로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도수(정업도량 회주)

이렇게 들었다 뇌물

잘못된 일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라.
그 잘못된 일은 결국 고통을 불러 온다.
그러나 옳은 일은 사양하지 말라.
그 옳은 일은 결코 고통을 불러오지 않는다. 〈법구경〉

최근 MBC 매체비평 프로그램인 '신강균의 사실은…' 팀 3명이 (주)태영으로부터 고가의 핸드백을 받았다 돌려줘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현재 프로그램은 폐지 결정이 내려졌고 관계자들도 대거 '책임' 문제에 휩싸이게 됐다.

'사실은…'이라는 프로그램은 그 동안 언론, 특히 거대 신문사들의 보도 행태에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주목을 받아왔다. 흔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면 그 자신에게 더 큰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된다는 말을 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대중은 당연하게 '사실은…' 보도팀에 높은 도덕성을 기대했지만 관련자들은 이번에 그 기대를 무너뜨렸다. 사실 각 언론사의 보도태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팀 쪽의 과실만이 제기되고 원인제공자인 (주)태영은 아예 보도에서 사라져버렸다는 점은 특히 그렇다.

그러나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돌려줬다'는 행위도 '받았다'는 행위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법구경〉에서는 '잘못된 일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이른다. 처음부터 그 핸드백을 받지 않았다면 관련자 징계, 프로그램 폐지, 시청자들의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 자명하다. 결국 '그 잘못된 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된 것이다.

순간적인 욕망의 유혹은 뿌리치기가 힘들다. 그러나 보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이겨내야만 진정한 도덕성이 갖춰지고, 비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김강진(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템플스테이, 다시 생각해보자

몇 해 전부터 시작된 템플스테이가 일반에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관광개발 및 육성 차원에서 템플스테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템플스테이는 관광산업 개발론자의 머리에서 처음 나온 것이다. 템플스테이의 기본개념은 어디까지나 관광에 있다. 즉, 템플스테이는 외국인이나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하나의 체험관광에 불과하다.

사찰은 관광도량이 아니라 수행도량이다. 하루 이틀의 체험으로 그들이 불교인이 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헛된 욕심이다. 템플스테이로 인해 수행자들의 일과가 얼마나 변질되고 있는가. 템플스테이라는 관광 가치에 맞추기 위해 사찰의 목적이나 환경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2004년도에 정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15억원을 조계종 총무원에 지원했고, 총무원은 이를 강원도 낙산사를 비롯해 전국의 38개 사찰에 배분했다.

그런데, 지원금은 거의가 수세식 화장실 개선, 샤워시설, 숙박시설 개선에 투입되었다. 이런 사업들은 모두 불교의 유구한 전통문화에 반(反)하는 사업들이다.

특히 템플스테이로 인한 사찰 환경의 변질은 이미 우려 수준에 있다. 우려되는 변질 가운데 하나가 물 환경이다. 수세식 화장실과 샤워시설은 모두 물을 엄청 소비하는 쓰는 서구식 생활양식이다.

산중 사찰의 물 환경을 보면, 수질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상류에 위치해 있어서 수량은 매우 부족하다. 정부의 지원금으로 지은 수세식화장실과 샤워시설에 쓸 물을 얻기 위해 부득이 사찰에서는 지하수를 팔 수 밖에 없다.

지하수를 많이 쓰면 사찰 주변 계곡들이 메마를 수밖에 없다. 물이 고갈되면 주변 식생에 영향을 주고, 식생의 파괴는 곧 충과 조류 생태계의 파괴를 불러온다.

템플스테이, '무조건 NO'라고 주장하지는 않겠다. 다만, 이쯤 해서 다시 한번 다각도로 깊이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타인의 아픔' 악용하다니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다가 경악한 일이 있다. 다름 아닌 지진해일 피해로 상처받고 슬픔에 잠겨있는 남아시아를 두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어느 목사의 설교 내용이었다.

도대체가 생각이 있는 것인가. 크리스천들이 다수 학살당한 곳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면 그곳에 있었을 소수의 크리스천들은 왜 같이 벌을 받아야했나. 상식이 없는 짓이다.

또 유럽인들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많이 가는 태국 푸껫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도 안간다는 얼토당토 않은 말은 근거가 있는 것인가.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했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놓으라는 예수의 사랑을 기억했다면 상처입고 신음하는 남아시아에 이런 비수를 찌르는 언동은 못할 것이다.

자신의 종교를 내세우기 위해 타인을 상처입히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종교인의 행태를 보면서 과연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 주고 의지처가 되어야 할 종교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자세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임영희(서울 강남구 신사동)

아! 지율 스님

지난해 100일이 넘도록 천성산을 지키기 위해 단식을 감행한 지율 스님이 다시 70일이 넘도록 단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내 가슴이 저리다.

몸은 거의 죽은 상태라고 담담히 말하면서도 천성산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계시는 스님의 모습 속에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저리도 처절하게 매달리나 하는 생각까지 든다.

부디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으면, 아직도 멀리 떨어져 평행선을 그리고 있을 뿐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의견 차이를 조금씩 좁혀 해결점을 빨리 찾아내 더 이상 스님이 단식하지 않기를 바란다.

박광수(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謹賀新年
을유년 새해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기도도량 운수사
사부대중일동
부설)운수불교대학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3동 산 5번지
TEL 051)317-5671

부산여성불자회
자문위원 이영숙, 박성빈, 백명숙
회 장 왕선자
부회장 이윤목,홍말연, 김현숙
총 무 류경자, 하영조
재 무 김지언, 박정연
감 사 이경월, 이소연
교 화 이복선, 이은지, 박갑연
운 영 임정숙, 김경자, 서화영
봉 사 박영옥, 김경희, 박순천
장학위원장 홍말연
이사 및 각 지구회장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1동 393-12(불교회관 5층)
TEL 051)854-4166 / FAX 051)867-8048

대한불교조계종
내 원 정 사
주지·관장 정련
● 내원정사
유치원 ☎(051)244-0691
● 사회복지법인 내원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051)264-9033
내 원 어 린 이 집 ☎(051)264-9031
부산서구노인인력지원기관 ☎(051)244-6700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반야원 ☎(055)682-1854
부산사하자활후견기관 ☎(051)263-6697
●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
함지골 청소년 수련관 ☎(051)405-5223
합천군 청소년 수련관 ☎(055)932-5662
중구문화의집 ☎(051)247-8425
● 석암장학회 ☎(051)243-0692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산3-2
TEL 051)242-0691 FAX 051)248-0691

수진스님 "선으로 본 금강경" 대강좌
불교TV 화엄경 강좌에서 정통 강백 선강을 들려주셨던
전 해인사 강주 수진스님이 부다피아와 함께 "선으로 본 금강경"을
총 24회에 걸쳐 강의합니다
● 장 소 : 부산시 사하구 괴정1동 1063-56번지 해인정사 대적광전
● 일 시 : 매월 초하루, 보름 오전 10시
● 연락처 : 051)291-1176
● 수진스님의 강의는 불교 포털 사이트 부다피아를 통해 다시 들으실수 있습니다.



을유년 설맞이 마하몰 지상특별전

●행사기간 : ~ 2월 9일까지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전화 02-732-1520

하나. 구매고객 특별사은행사
모든 구매고객에게 차걸이용 미니달력(진흙속에 피는연꽃)을 드립니다.
5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 불자달력(동승일기)을 드립니다.
10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 불보살 캐릭터 액자를 드립니다.

둘.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서 삼성, 신한카드로
5만원이상 결제시 무이자 할부 혜택 을 드립니다.
삼성,신한카드 : 3개월 무이자할부(2월 28일까지)

설 맞 이 특판상품



▮ 십이지신상-닭(酉) 금도금 : 25,000원
·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닭과 함께 2005년을 힘차게 여시기 바랍니다.
· 종류 : 구리,주석,황동 : 20,000원
· 크기 : 55 X 25 X 80 (mm)



▮ 불교다이어리북(2005년)
7,000원
· 불교의 지혜가 솔솔 묻어나오는 불자들의 필수품



▮ 측우기 가습기(수량한정)
~~400,000원~~ → 360,000원
· 선화당 측우대를 거북형상의 받침을 사용한 가습기
· 크기 : 340 X 500 X 500 (mm)
· 재질 : 마블



▮ 연꽃목어조각목탁
· 3.5치 : 200,000원 · 4치 : 260,000원
· 4.5치 : 340,000원 · 5치 : 400,000원
· 수공예목탁의 진수를 느낄수 있는 제품
· 오동나무케이스 포함
· 재질 : 벗나무(국내산)



▮ 포대화상(초축광)
150,000원
· 재복을 가져다 주는 신비의 포대화상 (8시간 이상 빛을 발함)
· 크기 : 180 X 180 X 245 mm
· 중량 : 6Kg



▮ 관음도족자 : 35,000원
· 크기 : 42×90cm



▮ 반야바라밀다심경판
88,000원
· 크기 : 770×230×25
· 재질 : 뉴송



▮ 기능성 숯단주
45,000원
· 기력을 보충하는 팔찌기능의 숯단주



▮ 실버건강팔찌
~~150,000원~~ → 99,000원
· 사이즈 : 대(20-23cm)
소(17-18cm)
· 고급 명품스타일 디자인과 은볼에 자력을 넣어 자력효과를 줌



▮ 심장안정 숯목걸이
30,000원
· 비장탄이 발생하는 기(氣)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 모양: 귀, ♡, ○



▮ 실크숯 목보호대
19,800원
· 음이온 1000cc/개 발생하여 목을 살리는 기능성 웰빙제품



▮ 기능성 숯안대
19,800원
· 원적외선 효과로 눈을 살리고 뇌신경과 혈압을 안정시킴



▮ 에밀레 용걸이종
· 大 : 37,000원(지름12cm X 높이21cm
· 中 : 25,000원(지름8.5cm X 높이14.5cm
· 小 : 17,000원(지름6cm X 높이10cm
· 종류 : 녹청, 금색, 갈색, 흑색



▮ 천연연꽃비누
· 개당 : 15,000원
· 세트(12개) : 150,000원
· 고급식물성 오일과 천연재료를 첨가



▮ 금강경병풍
· ~~정가 2,800,000원~~ → 1,800,000원
· 금강반야바라밀경 친필병풍(해서체)
· 작가 : 김양규
· 고급 스기나무, 생사비단 사용



▮ 희담석 허리팩 + 어깨팩 세트 초특가 판매
· ~~정가 110,000원~~ → 88,000원

건강용품



▮ 희담석 찜질팩(신형)
· 39,800원
· 기존제품의 두배반 이상의 희담석원료 사용



▮ 홍삼무설탕캔디
(200g x 3ea)
· 25,000원



▮ 홍삼액(60포)
· 120,000원
· 함량 : 홍삼71.58%(국산) (홍삼70%, 홍미삼30%)
· 80g ×60포



▮ 농협홍삼정과
· 177,000원
· (400g) : 79,000원
· 홍삼 (국산 4년근 이상)100%



▮ 숯매트(1인용)
· 150,000원
· 전기없이 따뜻한 느낌을 주는 매트
· 참숯백탄 5kg



▮ 희담석 방석
· ~~198,000원~~ → 178,200원
· 크기 : 385mm X 355mm
· 색상 : 회색, 살구색



▮ 희담석 좌복
· ~~360,000원~~ → 298,000원
· 크기 : 720mm X 390mm
· 색상 : 회색, 살구색
· 희담석의 뛰어난 생체 활성 메커니즘을일상생활에서 느껴보세요.



▮ 홍삼진액(40포)
· 88,000원
· 5년근 홍삼근 99.01%(국산) (홍삼20%, 홍미삼80%)
· 100g × 40포

茶 & 다구



▮ 연향차 : 30,000원
· 유기농 재배한 통불사 연향차
· 연잎 100%, 40g



▮ 불성차(100g)
· 중작 : 35,000원
· 세작 : 50,000원
· 우전 : 100,000원
· 지리산 전통 수제녹차



▮ 백련정차
· 50g : 18,000원
· 100g : 35,000원



▮ 연인다인(連人茶人)-연화차
· 50,000원
· 예부터 불가에서 많이 드셨던 특품차



▮ 연마을 11호(백련차 선물세트)
· 32,000원



▮ 연마을 6호(잎차+수제다기세트)
· 58,000원



▮ 연마을 7호(잎차+3인다기)
· 83,000원

반야심경반지 펜던트

반야심경 반지



▮ 반야심경 반지
반야심경 전문 270자가 외부(外部)각인된 金반지
· 14K Gold : 245,000원
· 18K Gold : 352,000원



▮ 반야심경 반지
반야심경 전문 270자가 내부(內部)각인된 金반지
· 14K Gold : 150,000원
· 18K Gold : 198,000원



▮ 반야심경 은(銀)반지
은 92.5% 로듐도금
크기 : 폭 약 8mm
· 38,500원



▮ 반야심경 목걸이(원형)
가로 18mm, 세로 33mm
▮ 반야심경 목걸이(사각)
가로 21mm, 세로 32mm

· 특징 : 반야심경 전문270자가 각인된 원형 펜던트
(뒷면에는 연꽃 문양과 옴자 양각)
· Silver 92.5% · 은 : 48,000원 ※ 팬던트와 체인 포함



▮ 반야심경 팬던트 Gold
· 14K Gold : 260,000원
· 18K Gold : 380,000원
※ 체인별도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조계종 현역 최고령 포교사 **이흥세** 옹

새벽 4시에 일어나 관음정근, 강의원고 1만장 넘어
7년 전부터 '새싹포교' 위해 어린이집 운영
30년간 써온 강의록 묶어 출간 예정



불심은 노심(老心)이든 동심(童心)이든 상관없이 통하는 법. 행화 어린이집 아이들이 "법사님 사랑해요"라며 하트모양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



이흥세 옹이 30년 넘게 써온 경전강의록 원고 묶음들을 보여주고 있다.

나이? 숫자에 불과 포교원력은 언제나 청춘

나이 93세, 백수(百壽)를 바라본다

그간 짊어지고 온 세월의 무게는 어느덧 그를 노쇠한 우바새로 만들었지만, 그는 정작 자신을 '젊은 장로(長老)'라 부른다. 팔순의 나이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린' 제자가 된 마하가섭처럼 말이다.

그래서일까? 그는 '불가의 나이테'가 서른넷이라고 말한다. 환갑이 다 돼 오계를 받고 불문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불자였던 할머니의 영향은 그에게 이미 불종자를 심게 했다. 그리고 반세기가 흘러 동국학원 이사장이었던 경산 스님의 "자네는 불교 일을 해야겠어"란 말 한 마디는 그를 포교사의 길로 이끌었다.

이흥세 옹. 그는 지난 1982년 조계종으로부터 정식 포교사 품수를 받은 최고령 포교사다. 세간의 잣대로 가늠하면, 벌써 은퇴하고도 남았을 나이다. 그러나 이 옹은 아직도 '현역'이다. 24년째 서울 마포포교원에서 7년 전부터는 어린이집 설립운영자로 지역과 새싹포교 현장을 누비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자기 수행 또한 철저하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1시간씩 관음정근을 한다.

"월 · 수 · 금요일은 어린이집 학부모 법회, 화 · 목요일은 포교원 신도 상담, 틈틈이 법회 법문 준비와 경전해설 집필 일정으로 빡빡하게 보내. 그간 주말법회만 총 1306회를 열었어요."

이 옹은 누런 원고지 묶음 50여개를 서재에서 주섬주섬 꺼내놓았다.

"이게 뭔지 알아? 내가 지난 1971년, 그러니까 내가 불교에 귀의한 날부터 30년 넘게 만년필로 꾹꾹 써온 경전강의록이야. 매일 4시간씩 <법화경> <능엄경> <화엄경> <승만경> 등 대승경전들의 원문, 한글해석, 종합해설들을 빼곡히 담았지. 장수로만 1만여 장이 넘어. 법회별 일정도 조목조목 적어 놓았지."

그간의 불교공부 열정인 원고 뭉치가 금세 탁자 위에 가득 쌓였다. 왜 이 옹은 이처럼 불교에 매달렸을까? 오직 불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다. 펜을 쥔 손마디가 딱딱하게 굳어져도, 며칠 밤을 한문 경전에 파묻혀도 열정은 그대로였다. 때문에 육필 법문집에는 이 옹의 고민과 노력이 녹아있다.

"어려움도 많았어. 완전하게 해야 했으니까. 함부로 내 맘대로 번역하면 안 되잖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큰 스님들을 귀찮아할 정도로 찾아갔어. <화엄경> 강설을 준비했을 때였지. 어느 경전 한 구절이 꽉 막히더군. 그래서 탄허 스님에게 또 쫓아갔지. 그 때 스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자주 찾아와 묻는 사람은 자네 밖에 없네. 나 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왜 자꾸 와. 그만하면 됐어'라고 하시더군."

전법 원력은 포교원 신도들의 신행상담 활동으로 이어졌다. 신도들의 희노애락을 지켜보며 그들과 함께 했다. 아니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말기 간환자 신도가 절규하면 같이 절규했고, 자녀가 아파 엄마들이 애태우면 똑같이 애를 태웠다. 신도들과 부대끼며 포교를 했다.

"하루는 30대 보살이 포교원을 찾아왔어. 그런데 다짜고짜 '시어머니를 빨리 죽게 할 수 없느냐'고 묻더군. 보살의 표정을 살폈지. 시어머니와 좋지 않은 관계 때문에 얼굴이 어둡더라고. 그래서 방법이 있다고 했지. 시어머니가 죽기를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했어. 대신 조건을 달았어. 집에 가서는 일체 시어머니에게 절대 복종하고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하라고. 1주일이 지났을까? 그 보살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기더군. 시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생각이 오히려 더 들게 되더라고 내게 털어놓았어. 한 달이 지나자 그 보살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 시어머니가 오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군.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간 잘못 마음 먹었던 자신을 참회하게 된 것이지."

이러한 신행상담 에피소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의 전법 원력은 공군 장교 재직 시절부터 이미 비롯됐다. 지난 1955년 대령으로 전역한 이 옹은 부하들과 함께 조회 때마다 법회를 봉행했다.

"그때는 군법사가 없었어. 군승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니까. 그러다보니 내가 군승노릇까지 했지. 나를 바라보는 부하들의 눈망울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군 제대 후, 1961년 유학재단인 성균관에 이사로 자리를 옮기면서도 그 열의는 그대로 이어졌다. 그 전에도 그랬듯이 작은 불상을 사무실 캐비넷에 모시고 조석으로 예불을 올렸다. 유림들의 눈치에도 아랑곳 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림들과 불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해묵은 불교와 유교의 갈등사를 풀어냈다.

"불교의 핵심이 인과응보지. 유학도 마찬가지야. '선인선과 악인악과'라는 가르침은 종교와 상관없어. 모든 행동에 추호도 인과응보를 의심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이웃 종교인들을 만나도 당당하게 불교를 말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지."

하지만 시련도 있었다. 지난 1981년 마포포교당을 개원할 즈음이었다. 타종교세가 워낙 강한 마포지역에 포교원을 세우는 것은 처음부터 '바위에 계란치기'였다. 전단지를 가가호호 찾아가 뿌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담뿐이었다. 가끔 만나는 불자들조차 다른 절에 다닌다며 이 옹을 외면했다.

"오기가 생기더군. 개척정신을 다시 발휘했지. 우선 포교방향을 아이들의 마음잡기에 맞췄지. 그래서 7년 전에 어린이집을 개원했어. 새싹부터 불심을 심어야 하니까."

그래서 문을 연 것이 마포 아현 3동에 마련한 행화 어린이집이었다. 어린이는 물론 학부모들에게 불법의 고갱이를 알려줄 생각에서였다. 매주 한 차례 아이들과 함께 부처님 일대기를 옛날 이야기하듯 들려주며, 동심에 불심을 심고 있다. 뿐만 아니다. 전국 어디든 원하는 곳만 있으면 한 걸음에 달려가 법음을 풀어놓는 데도 인색하지 않는다.

2시간가량의 취재가 끝날 무렵. 이 옹은 마지막 다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가진 것을 모두 풀어놓고 가려고 해. 죽는 날까지 불법을 널리 전하고 갈 거야. 그거 부처님의 제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어."

글=김철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우리 모두의 따뜻한 손길을 원합니다.

불교TV는 조계종 총무원과 공동으로
동남아 지진, 해일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모금을 전개합니다.

불자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조계종, 불교TV 공동주관 동남아시아 지진해일 구호성금

모금전화 ARS 060-700-0482



대한불교조계종 Btn 불교TV

www.btn.co.kr

나의 수행법

김홍근 (下)

나는 육조사 선원에서 실참을 하면서 두어 번의 선체험을 했다. 첫 번째 선체험은 이렇게 왔다. 저녁참선 후 선원장스님이 소참법문을 해주시는데, 누군가가 스님께 체험을 하면 어떤 변화가 오는가 하고 물었다. 스님은 '물을 담은 통나무의 밑창이 콱 터져나가는 것 같았다'고 대답해 주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나는 내게서 나를 확 잡아 뺐다. 오른손에는 나의 껍질이 들려졌고, 앞에는 고요하면서도 밝은 무언가가 보였다.



이후 나는 인터넷에 '참선일기'를 연재했는데, 스님께서 일기를 읽고 이런 지적을 해주셨다. "거사님이 '앉아서 자성을 기다린다'고 일기에 썼는데, 이미 물속에 있는 사람이 물을 다시 기다려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앉은 사람은 누구며, 기다리는 자성은 누구에게 속한 자성인가?"

첫번째 선체험 후 그 느낌에 계속 집착
스님과 문답통해 '중도' 찾고 생활참선

지적을 받고 돌아보니, 나는 이전의 선체험을 되풀이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기다린다'는 표현을 쓰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됐다. 불성과 함께 있으면서도, 불성을 기다리는 모순을 범했던 것이다. 나는 기왕 지난 선체험까지 돌이켜 보았고, 거기서 치명적인 잘못을 발견했다. 내가 나를 잡아 뺐을 때, 한 손으로는 나의 껍데기를 들고 눈으로는 알맹이를 보았는데, 미처 그것들을 '보는 자'가 있는 줄은 자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스님께 여쭤보았고, 스님은 "자성은 양변을 여의었다."고 대답해 주셨다. 그 당시 '보는 자'가 남아있음으로써, 나는 '보이는 것'과 '보는 자'가 있는 양변에 떨어졌던 것을 알게 됐다.

나는 내가 체험했던 것을 부정당하게 되니 앞뒤가 꽉 막혀 답답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후 참선 중에, 껍데기와 알맹이 그리고 보는 자의 셋이 모두 부정된 그 막막한 공간에 무엇인가가 숨쉬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셋 모두 자성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가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쓸려나간 뒤 남아있는 '바닥'의 발견. 나는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중도'를 찾은 것이다. 나는 속이 시원해졌다.

이후 나는 생활 중에 부닥치는 경계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공부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돌아보는 순간, 그 자리의 생생한 자성 대신에 자꾸 지난 선체험 때의 느낌을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두 번째 체험 역시 하나의 마장(魔障)이 되어 내 마음을 과거에 얽매이게 했던 것이다.

이후 나는 나의 체험을 완전히 버리고 처음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참선에서는, '나의 수행법'은 없고, 단지 불조가 확립하여 내려오는 '바른 수행법'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먼저 그동안 허공중에서 화두를 들어온 것을 반성하고, 화두가 자리 잡을 땅을 먼저 다졌다. 나는 "일체 중생 안에는 깨닫는 성품이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안에 있는 깨닫는 성품, 즉 불성을 관(觀)하여 감지하도록 노력했다.

이제 나는 생활 중에 늘 깨어서 '보고 듣고 자각하고 아는 것(見聞覺知)을 대하는 자'를 감지하려고 노력한다. 참선은 나를 바꿔가고 있고, 나는 다른 의심이 없어졌다. 나는 '깨닫는' 참선보다 '사람이 변화되는' 참선이 우선이라고 믿고 싶다. 나는 참선에 매달리는 생활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참선이 되는 공부길을 걷고 있다.<끝>

■ 성천문화재단 연구실장

진각종 탑주심인당 7일 진언수행 현장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참부처는 나' 확인하는 불사



1월10일부터 7일간 진언용맹정진에 들어간 진각종 탑주심인당의 진언행자들. 사진=고영배 기자



'내가 법신불'임을 확인하는 진언수행. 보살들의 수행열기가 뜨겁다.

1월 10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탑주심인당(주교 효암). 밀교종단 진각종 총본산인 총인원 한 가운데에 자리 잡은 심인당(心印堂;진각종의 법당)에 300여 신교도(신도)들이 가부좌를 틀고, '진언'을 염송(念誦)하고 있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육자진언 정근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매년 1월 첫째 주를 '새해 대서원 불공' 기간으로 정하고 7일 정진에 들어간 진언행자들. 용맹정진의 열기로 심인당이 후끈 달아오른다.

정근에 앞서 신교도들은 '교리참회'를 합송했다. '내가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으로 늘 큰 자비심을 품고 육바라밀을 실천해 성불하겠다'는 맹서를 자신에게 했다. 또 인연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해탈 · 제도되길 기원하는 '강도(講度) 발원'도 올렸다.

참회와 발원이 끝나자 효암 정사(진각종의 남자 성직자)의 설법이 이어진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내가 법신불'임을 확인했습니다. 몸(손)으로 금강지권(비로자나불 수인)을 결인하고, 입으로는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고, 마음으로는 법신불을 관하는 삼밀관행을 했습니다. 스스로 법신불이 돼 본 것입니다."

그럼, 삼밀관행(三密觀行)의 요체는 어떤 것일까. 또 어떻게 육자진언을 염송해야 하고, 육자진언의 뜻은 무엇일까? 효암 정사의 설명이 계속된다.

"입으로만 진언을 외는 일반적인 진언수행과 다릅니다. 진언행자가 직접 법신불의 말과 몸,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바로 삼밀관행 수행의 핵심입니다. 즉 나의 삼업(三業)이 법신불의 그것임을 알아차리는 행법이 진언수행인 것입니다."

정근前 인연있는 모든 사람들의 해탈 기원
손 모아 육자진언 외며 법신불 관하기

이 같은 삼밀관행은 육자관(六字觀)으로 구체적인 진언수행법이 된다. 육자관은 '옴마니반메훔'의 여섯 글자를 수행자의 신체와 연결시키는 관법으로, 내 몸 구석구석이 바로 부처라는 것을 보는 진언수행법이다. 그래서 육자진언을 한 자 한 자 염송할 때에는 자신의 몸이 법신인 다섯 부처님과 금강보살이라는 것을 체득해야 한다. '옴'자를 욀 때는 날숨에 맞춰 배꼽에 포자(布子;씨를 뿌리듯 심는다는 뜻)된 비로자나불을 관하고, '훔'자는 인후에 포자된 금강보살을 보면서 들숨으로 호흡을 거둔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자는 각자의 근기에 맞춰 일정 시간을 정하고 반복한다. 그러면서 본래 자신이 자성불(自性佛)임을 깨달아 들어간다.

때문에 삼밀관행법은 '옴마니반메훔(Om mani padme hum)' 본존(本尊)에 합축된다. 이 육자진언은 '온 우주(Om)에 충만한 지혜(mani)와 자비(padme)가 지상의 모든 존재(hum)에게 그대로 실현되라'는 뜻을 갖고 있다. 원래 옴(Om)은 태초 이전부터 울려오는 우주의 소리(에너지)를, 마니(mani)는 여의주로서 깨끗한 지혜를, 반메(padme)는 연꽃으로서 무량한 자비를 상징하며 훔(Hum)은 우주의 개별적 존재 속에 담겨 있는 소리로서 우주 소리(Om)를 통합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진각종 교리를 집약한 <진각교전(眞覺敎典)>에서는 육자진언이 부처와 모든 보살, 중생들의 본심(本心)이라고 설한다. 또 육자진언을 자신 마음에 새겨있는 '불심인(佛心印)'으로 설명한다. 이는 삼밀관행으로써 자심(自心)에 항상 불심인을 아로새겨 자신이 '자성법신(自性法身)'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탑주심인당 수각 시무(진각종의 예비 정사)는 "본심진언 옴마니반메훔을 오나가나 항상 외고 하루 열 번 이상 참회를 하면, 탐진치 삼독심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한다"며 "진언 염송은 내 마음이 곧 참부처의 마음이란 것을 깨닫게 하는 수행법"이라고 말한다.

진각종 서울교구청인 탑주심인당은 현재 3천여 신교도들이 신도회 산하에 합창단 다도회 봉사회 등을 두고 다양한 신행을 펼치고 있다.

정기 불사(법회)는 매주 수 · 일요일 오전 10~12시 및 오후 6시 30분~7시 30분이다. (02)914-0840~1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인터뷰

"진언은 이 몸 그대로 부처되는 수행"

탑주심인당 주교 효암 정사



"일상생활 속에서도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이 진언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진언은 이 몸 그대로 곧바로 부처가 된다는 '즉신성불(卽身成佛)'의 구체적인 수행법이 되는 거지요."

탑주심인당 주교 효암 정사는 중생의 삼업이 곧 법신불의 삼밀임을 알게 하는 수행법이 진언이라고 말한다. 즉 부처의 삼업(三業) 즉 몸과 입, 뜻으로 짓는 행위는 '삼밀(三密)'이라 하는데, 부처와 중생의 본성이 하나로 계합하는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손으로 인(印)을 맺고(身密), 입으로 진언을 외며(口密), 생각으로 부처님과 중생이 하나임을 관(意密)해야 한다는 것이다.

효암 정사는 특히 진리로 있는 법신불이 '참부처'라고 강조한다. 법신으로서의 자성불은 석가모니 부처가 연기법을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생멸 없이 '그대로' 우주법계에 있어왔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방편으로 드러낸 형상에 집착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이어 효암 정사는 "진언수행을 통해 '내가 자성법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마음 밖에 부처를 찾거나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불·교·태·고·종·과·함·께·하·는 개·교·기·념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 (4학기) / 연구과정 (2학기)
신입생 모집 (추가)
2005.1.10~1.31

◆ 개설학과

학 과	세부전공	모집인원
문인서화학과 (文人書畵學科)	서법예술전공 동방회화전공	OO명
불교문예학과 (佛敎文藝學科)	불교음악전공 불교미술전공	
민속문화학과 (民俗文化學科)	역경예측전공 풍수환경전공 민속연희전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지원자격
– 석사과정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연구과정 : 일반 성인 남 • 여 / 학력 • 연령 제한 없음

문화교육원 전문과정 신입생 모집

과정	교육과정	세부과정	담당교수
불교문예	불교음악 실기	사찰기초의식	김 구 해
		범패실기 (홑소리)	심 상 현
		불교무용 (나비춤)	김 법 현
	불교미술 실기	불교조각	이 상 배
		불화기초실기	원 미 희
	불교경전 강의	불교한문강독	심 재 동
		대승경전 연구	주 명 철
		불교기초교리	심 상 현
역경명리	역경학 강의	주역 연구	신 성 수
	육효학 강의	복서육효 연구	김 용 연
	명리학 강의	사주 초급	박 영 창
		사주 연구	박 영 창
		명리학 초급	김 동 현
		명리학 연구	김 동 현
	기문둔갑학 강의	기문둔갑 연구	이 승 전
	육임학 강의	육임	효사
	점성술 강의	정통점성술	이 현 덕
	풍수환경학 강의	생활풍수인테리어	박 시 익
		풍수지리학	정 경 연
민속문화	민속연희 실기	민속극 • 음악 • 무용	이 정 섭 정 상 철 박 상 만
		무속 • 제의 • 민속	
	가요 실기	가요 연구	임 부 희
	자연치유학 강의	대체의학 연구	이 송 득
		한방과 사주학	한 승 철
		비전한방론 연구	윤 영 배
		실전치유기공	최 원 섭

과정	교육과정	세부과정	담당교수
서법예술	한문서예 실기	금문,전서 연구	이 영 철
		예해 연구	조 성 주
		행초 연구	권 인 호
	한글서예 실기	한글 연구	노 승 환
	전각예술 실기	전각 연구 A	노 승 환
		전각 연구 B	조 성 주
회화예술	사군자 실기	사군자 연구	사공홍주
	수묵화 실기	수묵화 연구	최 현 익
	옷칠화 실기	옷칠화 연구	이 종 헌
	현대채묵화 실기	현대채묵화 연구	하 영 준
	서 • 화론 강의	서 • 화론선독	임 광 빈
외국어	중국어 강의	중국어 회화	김 영 진
	일본어 강의	일본어 회화	박 국 영
	한 • 시문 강의	대학,중용	신 성 수
		한시창작	정 충 락
		선시강독	김 미 선

*교육생이 적정수에 미달된 과정은 개강을 보류할 수 있음.

◆ 접수 및 등록기간 2005.1.10~2.25
◆ 수강대상
– 일반 성인 남 • 여 / 학력 • 연령 제한 없음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 사진(3cm×4cm)2매
◆ 접수방법
– 본 교육원 교학과에 직접 방문
→원서 작성 → 해당 등록금과 함께 접수
– 해당 등록금 온라인 입금
→본 교육원에 전화로 입금 확인 → 원서는 개강 시 작성

공개강좌 특별과정 모집

<공통> ◆ 모집기간 : 2005.01.10 부터 선착순 마감
◆ 수강대상 : 일반 성인 남 • 여 / 학력 • 연령 제한 없음
◆ 특 전 : 총장명의의 수료증 수여
◆ 개 강 : 3월 첫주

주택풍수감정사 / 천명사주감정사
교재 최초공개!저자직강 민속문화학과 노 병 한 박사
◆ 모집정원 : 각 과정별 30명
◆ 수 강 료 : 각 과정 당 100만원
(2과정 동시 수강 시 25만원 할인) * 교재 별도 구입
◆ 교육기간 : 18주
◆ 특 전 : 대학교자격증 수여운영규정에 의한 총장명의의 자격증 수여
◆ 교 재 : 음양오행사유체계론, 거림천명사주학, 거림가택풍수학

과정 \ 시간	기초 5주 (03.12~04.09)		실전 13주 (04.11~07.09)	
	과목명	강의시간	과목명	강의시간
주택풍수	음양오행학	(토) 14:00~18:00	주택풍수학	(토) 14:00~17:00
천명사주	음양오행학	(토) 14:00~18:00	천명사주학	(금) 19:00~22:00

민화진채 실기
명실상부한 전문인 양성! 서 공 임 교수
◆ 모집정원 : 20명
◆ 수 강 료 : 100만원
◆ 교육기간 : 16주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전 10:00~오후 16:00 (6시간)

침구 • 교정 과정
중국 현지 침술 연수! 이 명 희 교수
◆ 모집정원 : 40명
◆ 수 강 료 : 60만원
◆ 교육기간 : 16주(2년 과정)
◆ 특 전 : 년 1회, 중국 현지 침술 연수 30일(연수비 별도)

새로운 동방문화 예술의 길잡이 東方大學院大學校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dongbang.ac.kr 136-82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92-1 Tel. 02-745-2141

요가치유 현장을 찾아서 - **꽃마을한방병원 요가요법실**

자세만 잘 잡아도 '고질병' 사라져요



꽃마을 한방병원 요가요법실은 의학적 효능이 돋보이는 요가동작들을 고안했다. 사진은 요가요법 강좌 현장.

모든 병 오장육부 불균형에서 시작
수술않고 수련통해 심신 균형 잡아
개개인 신체 특성에 맞는 체위 처방
8년간 질병완치환자 수백명 달해



김성옥 요가지도자

깍지 낀 손은 머리 뒤로 넣고, 무릎을 구부린 다리의 두 발은 발바닥끼리 마주한다. 땅에 의지한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아등바등할 때쯤, 요가지도자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 상태로 머리를 들고 양 무릎 높이를 확인하세요. 높이에 차이가 있다면 양 골반 역시 그 높이만큼 틀어진 겁니다. 오른쪽 무릎이 높다면 무릎을 오른 쪽으로 틀고 시선은 반대방향으로 향하세요. 그렇게 자세를 교정하다보면 잘못된 자세로부터 오는 질병 치유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습니다."

1월 10일 오전 11시 꽃마을한방병원(원장 강명자) 요가요법실 치유 현장. 편한 옷차림을 한 10여명에 이르는 수련생들이 김성옥 요가지도자의 안내를 따라 요가동작에 몸을 맡겼다. 고난이도 아사나 등의 특별한 기교는 요구되지 않지만, 온 몸을 고루 사용하고 다루는 동작 하나하나에 이마 한가득 구슬땀이 흐른다. 땀내가 배인 동작 하나가 약재 백 봉지 이상의 효력을 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일까, 그들 움직임에는 용맹정진 수행의 열기가 그대로 살아 있다.

최근 요가가 대체의학의 한 분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요가요법을 치유의 방편으로 제시하는 병원이 늘었다. 그 가운데서도 꽃마을한방병원의 경우 요가요법실을 8년째 꾸리면서 수천 명에 이르는 환자들에게 '요가요법'을 실시해 왔다. 요가요법은 환자들에게 약이나 수술을 제안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다 마련한 대체요법. 의료진은 수술이 아니면 치료하기 어려웠던 불임, 디스크 등의 질병을 '요가' 만으로 다스려왔다.

"요가와 의학적인 치료를 결합한 치유요가를 통해 우리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은 오장육부의 불균형에서 시작되고 그 같은 불균형은 잘못된 자세에서 오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자세를 '수정'하는 것이 곧 질병의 근본적인 치유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옥 요가지도자가 수련시간 중간 중간에 '요가요법'에 관한 설명을 덧붙인다. 그에 따르면 스트레스, 불면증과 같은 현대인의 질병 역시 몸의 불균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불안정한 뇌파나 짧은 호흡 등은 기울어진 어깨, 틀어진 골반, 불균형한 다리 길이 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꽃마을한방병원 요가요법실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의 신체를 직접 '교정'하기 이전에, 스스로의 수련에 의해 심신상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 처방 역시 개인에 따라 다르다. 물구나무서기 체위는 '요가 자세의 왕'으로 통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최고의 자세가 될 수 없다. 목뼈가 눌려있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고, 고혈압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 꽃마을한방병원 요가요법실 강좌에서는 자신의 신체를 바로 볼 수 있는 동작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해법까지 일러준다. 신체상의 문제점을 인지한 환자들은 이후 어디에서건 자신에게 필요한 동작을 수련하면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질병의 완치를 이룬 환자들만 해도 수백 명에 이른다.

허리 디스크를 수술 없이 요가요법으로 극복한 김진아(29)씨는 "요가동작의 70%이상이 척추운동이라 그런지 반복되는 자세 교정 운동으로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었다"며 "요가를 실습하는 동안 신체가 전반적으로 이완돼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된 듯하다"고 말했다. (02)3475-7037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새로나온 명상서

생활 속에서 명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명상안내서 두 권이 새로 출간됐다.

<건강을 지키는 생활 속의 반복명상>(지혜의 나무, 게르트 슈낙 · 헤르만 라우에 공저)는 꾸준한 반복을 통해 호흡과 생각, 감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명상수련법을 소개한다. 단어, 노래, 춤 등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다보면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짧은 시간 안에 긴장 완화는 물론 활력 증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저자는 음악치료 전문가의 이력을 살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생활 속 반복명상법들을 제시한다. 부록 명상 CD, 값 1만 2천 원.

<1분의 명상여행>(꿈꾸는 돌, 스와미 웨다 바라티 지음)은 세계적인 학자이자 시인이며 히말라야 명상요가협회를 이끄는 명상가인 '스와미 웨다 바라티'가 지은 명상서다. <바가바드 기타> <우파니샤드>등을 통달한 영혼의 스승이 철학의 깊이와 수행의 경험을 아울러 한 줄 문장으로 명상 메시지를 전달한다. 값 9천 8백원. 강신재 기자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2> 부처님은 선사다

'부처님을 선종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선종사를 서술하는 모든 편찬자들의 화두였다. '무슨 소리냐?'고 모두가 되물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선종사(禪宗史) 즉 <전등록(傳燈錄)> 서술자들은 이 문제 앞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했다.

왜냐하면 중국의 화엄종 천태종 율종 법상종 등등 많은 종파불교가 나름대로 전성기를 구가하는 시대 속에서 후발주자인 선종의 역사적 정통성 확보는 선종의 명운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선종이야말로 부처님의 사상적 정통성을 가장 충실하게 이어받은 종파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그 근거를 제시해야 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작업이 법맥도의 완성이다. 인도의 부처님에서 가섭존자를 거쳐 달마대사 혜능스님을 잇는 33조사라는 계보의 확립이다. 이 삼삼(?三)조사의 법계를 통하여 부처님은 선종의 제1대 조사 즉 대선사로서 자리매김되었던 것이다.

사실 부처님에게서 선사적인 캐릭터를 찾아낸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선종의 교판(敎判)인 이심전심(以心傳心) 교외별전(敎外別傳)의 사상적 기반이면서 상징적 사건인 '염화미소'는 나중에 방장실을 염화실이라고 부르게 된 근거가 된다. 이처럼 선종은 '부처님은 선사이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세존께 어떤 바라문이 찾아왔다.

양손에 꽃 두송이를 양손에 들고 와서 공양을 하고자 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버려라."

바라문이 왼손의 꽃 한송이를 버렸다.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버려라."

바라문이 다시 오른손에 들고있던 꽃 한송이를 마저 버렸다.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버려라."

이에 바라문이 말했다.

"저는 지금 빈 손으로 서 있거늘 다시 무엇을 버리라고 하십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종 법맥도에 부처님 1대 조사로 기록
선문답의 전형, 염화미소 등서 나타나

"나는 너에게 그 꽃을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다. 네가 육진(六塵)과 육근(六根), 육식(六識)을 일시에 버려서 버릴 곳이 없는 곳이라야 그 때가 생사(生死)를 면하는 곳이니라."

이 말을 마치자마자 바라문은 그 자리에서 깨쳤다.

부처님을 방장스님으로 대치시키고 바라문을 만행다니는 납자로 바꾸고 무대를 중국의 어느 총림으로 옮겨놓으면 바로 선문답의 전형적 양식이 되어버린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그림 · 이준석

2005학년도 동방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982년에 교계 최초로 설립하여 21세기 불교를 이끌어 갈 주역을 양성하고 있는 20년 전통의 불교 대학에서 정진할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기간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불교학과	2년	정규00명 통신00명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의 학력자	강원사집과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승 가 과	2년	정규00명	· 입학원서(소정양식)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반명함판사진 6매	종단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범 패 과	2년	정규00명		
불교미술과	2년	정규00명		

■ 종법 제20호 교육법
제 3절 불교대학 제 31조(수학의무)에 의거, 불교대학은 승려 및 정사(재가승)의 기본교육과정으로서 본종 승려 및 정사는 누구나 이수해야 한다.

2. 특전
· 졸업생 전원 2급 정포교사 자격증 발급
· 승려인 경우 종단의 대선법계품수
· 본교 졸업생으로 재입학하여 졸업하면 중덕법계품수(※종단 승려인 경우)
· 범패과 전원 영산재보존회 이수증 수여
· 문화재수리기술기술자 자격취득(국가고시)
· 성적우수자 및 각종 장학금 지급

3.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5년 1월 3일(월) ~ 2005년 2월 15일(화)

4. 전형일
· 2005년 2월 18일(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5. 전형방법
· 필기시험 및 면접(공통), 실기(범패과 · 불교미술과)

6.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학처 : 서울 성북구 성북2동 330-586 (TEL. 02-745-2030~2, FAX. 02-744-3461)
· 홈페이지 : www.dongbang.org
· E-mail : dongbangdae@hanmail.net
· 태고종총무원 : 서울 은평구 신사동 9-16 (TEL. 02-382-7361~2)
· 각 시 · 도교구종무원

한국불교 태고종립 東邦佛教大學
서울 성북구 성북 2동 330-586 ☎(02)745-2030~2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강의(28)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수많은 비누 거품 속에 찍혀있는 내 얼굴들

나가세나는 자신의 '이름'이 "다만 부모님이 붙여준 딱지"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나가세나든, 수라세나든, 비라세나든, 시하세나든, 그런 것들은 다만 명칭이고, 관념이고, 습관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형조'는 다만, 이름일 뿐, 거기 어떤 '정체성'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일까요.

무아, 혹은 천의 가면들

실제 '나'는 수많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하나의 얼굴로 고정되거나 환원되지 않습니다.

제 하루를 더듬어 볼까요. 전화로 걸려온 물음에 아는 척 교만을 떨었고, 음악을 틀어놓고 흥얼거렸으며, 앞 차 끼어든다고 화를 내다가, 점심 뭐 먹을까를 고민했고, 원고 청탁을 승낙하며 원고료를 꼽아보다가,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재난에는 작은 정성을 보탰으니…. 이 무상한 엇갈리는 천의 얼굴들….

이 가운데 어느 것이 제 얼굴일까요. 이 모두가 제 얼굴이고, 또 이 모두가 제 얼굴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불교가 말하는 무아(無我)가, "네 자아란 없다"는 뜻이라기보다, "너무 많은 자아가 있어,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란 뜻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제 부모의 '아들'로 태어났고, 한 여자의 '남편'이며, 내 아들의 '아비'입니다. 학교에서 스승으로부터 배운 '제자'이면서, 이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얼굴도 갖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승객'이고, 술집에 가면 '고객'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친구'였다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졸지에 '원수'로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모두 인연에 따라 이렇게 다른 얼굴을 통해 세상과 만나고, 다른 역할들을 통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수많은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선한 얼굴과 악한 얼굴, 아귀와 야차의 얼굴에서 자비와 헌신의 보살의 얼굴까지, 생로병사 희로애락의 그 중중무진(重重無盡)한 얼굴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무 각박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돌아본 다음,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과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 불도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각자, 천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무상한 변화는 누가 일으키는 것일까요. 내가 '전적으로' 일으키는 것은 천만 아닐 것입니다. 그랬다면 경전 <중부 아함>의 비유처럼, 나는 늙거나 병들지 않을 것이며, 또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버리지도, '이게 아닌데' 하면서 악을 저지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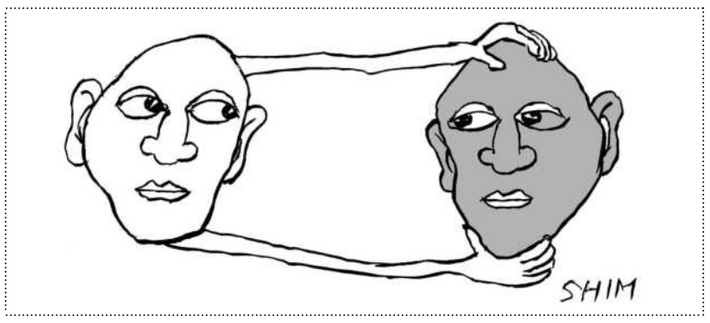
어디 내 몸과 마음뿐입니까. 세상 또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바람과 운명이 대체로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나'는 스스로 정립하는 주체가 아니고, 타자에 의해, 상황에 의해 의타기(依他起)적으로 세워지는 '허수아비'요,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 하나의 얼굴로서의 '주체', 혹은 '자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아(無我)의 뜻입니다. 불교가 무아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나의 얼굴이란 없으며 세상에 개입하는 나의 역할이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오해'가 무아를 둘러싼 논쟁, 특히나 윤회와 관련된 논쟁을 쓸데없는 소모와 공전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 자신 "자아란 없다"고 생각하는 이 같은 허무주의를 단견(斷見)이라 하여 크게 경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은 다만 그 얼굴을 '단 하나의 고정된 가면'으로 여기고, 그 역할을 종신 철밥통처럼 '단 하나의 고정된 지위'로 간주하는 상견(常見)을 부정할 뿐입니다. 그 사이에 적절한 이해로서의 중도(中道)가 있습니다. <능가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 생기고 이어지는 것인 까닭에 '사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원인과 조건들과 '상대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자아는 수많은 법(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들은 원인과 조건으로서, 또 다른 법들과 인연에 의해, 모여 행(行)을 형성했다가 순간적으로, 즉 찰나에 멸하고, 또 다른 형성력이 사태를 진전시킵니다. 그리하여 우주는 찰나에 멸하는 법(法)들의 연기(緣起)로 정식화할 수 있습니다.

연기된 것들, 조건지어진 것들은 그렇게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것은 내 작은 자아가 장악할 수 없는 도도한 흐름입니다. 그것이 세계와 우주의 실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아는 흡사 '거품'처럼 일어났다가 다시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강경>의 마지막 구절의 말씀처럼 자아는 다른 일체의 유위법(有爲法)처럼 명멸하고 출몰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의 명문, 주공탑명

조선 후기의 연암 박지원(1737~1805)은 어느 스님의 탑명에서 그 소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황 탕약을 짜서 걸러보니/ 거품은 솟아나고 방울은 부글부글/ 그 속에 내 얼굴이 수없이 찍혀 있네/ 거품마다 내가 있고/ 방울마다 내가 있네/ 큰 거품에는 내 모습도 커다랗다가/ 방울이 작아지니 내 모습도 줄어든다/ 방울 속에 내 눈동자가 있고/ 내 눈동자 속에 방울이 들어 있네/ 짐짓 얼굴을 찡그려보니/ 어쩌니 싫어 웃었더니/ 다들 웃음을 터뜨리네/ 성난 체를 해 보았더니/ 다들 팔뚝을 걷어 붙이고/ 잠자는 척을 했더니/ 모두 두 눈을 질끈 감는다."

그는 이 다양한 자아의 출몰, 중중무진의 연기를 어떻게 진흙으로 빚을 수 있으며, 어떻게 수를 놓고 붓으로 그릴 수 있을 것이냐고 한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찰나에 명멸하고 인연 따라 출몰하는 얼굴들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을 '나'라 할 것이며, 어느 쪽에 '자성'을 부여하겠습니까.

연암은 이런 물음 앞에서 장난기를 발동시킵니다. 그의 유희정신, 예술가적 감성은 놀랍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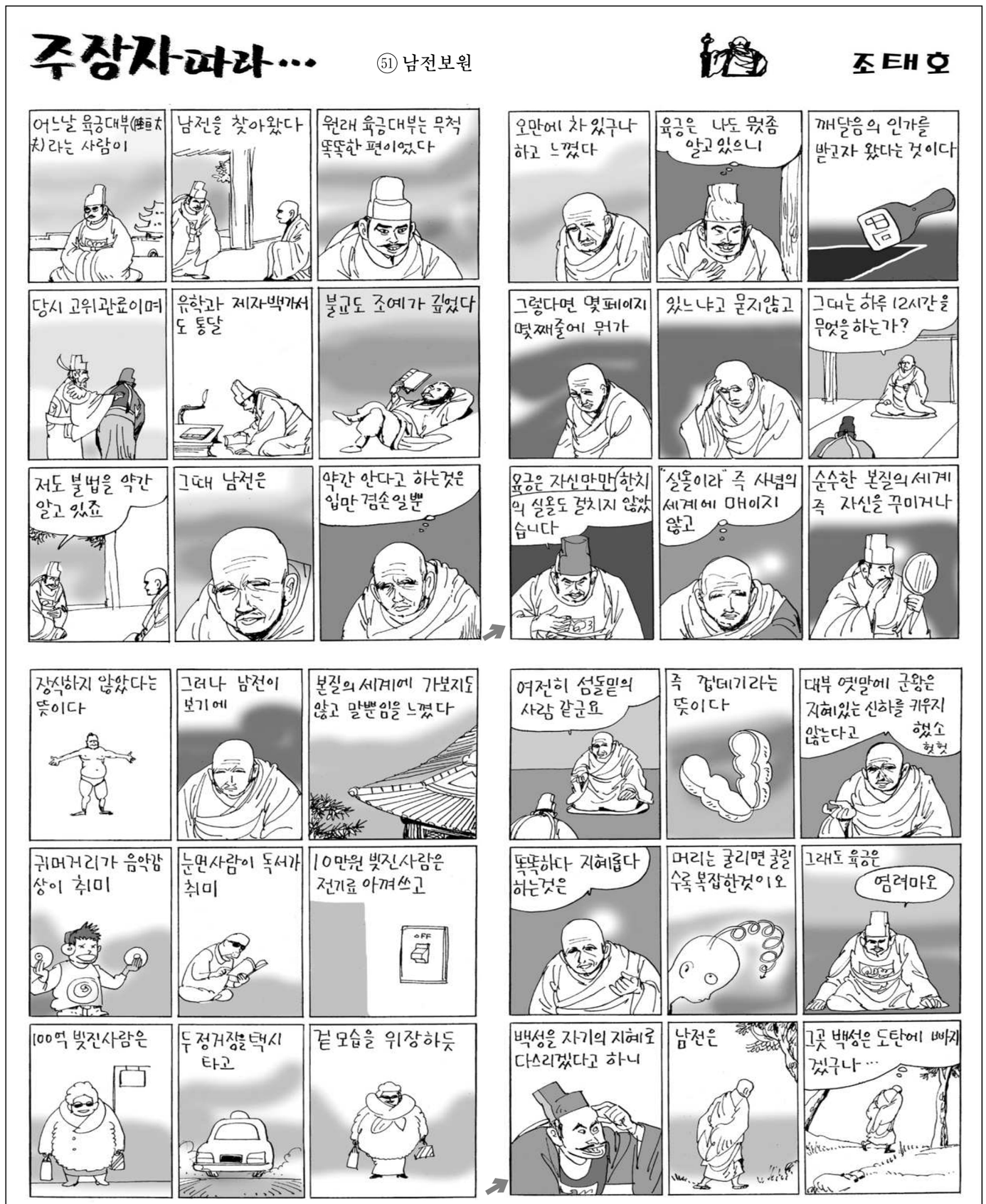
"방울을 지그시 눌러도 보고/ 머리털로 콕 찔러도 보네/ 시간이 지나 그릇이 식고 차분해지자/ 향기도 사라지고 모습도 잦아들어/ 수백 수천의 내가/ 어디로 갔는지 자취가 없네"

당신은 당신의 얼굴을 내게 '이것이오' 하며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 수많은 얼굴들 가운데 어느 것이 당신의 진짜 얼굴입니까.

"너는 누구냐"는 불교와 선의 오래된 물음임은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달마와 혜능뿐만 아니라, 서방의 세익스피어도 이렇게 곤혹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한국학중앙연구원



남전 보원(748~834): 당나라 스님. 757년 대혜 종고 선사에게 득도. 남전산에서 30여년간 하산하지 않고 손수 밭 일구며 수행. '남전참묘' 공안으로 유명.

네티즌 교리문답

"건당식(建幢式)은 무엇입니까?"

문 불교계에서 흔히 '아무개 스님, 건당했다'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당이란 무엇인지요? 궁금합니다. (IP 보현)

답1 : 건당식은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하는 의식으로,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합니다. 조사는 법의 신표로 붓다의 의발을 전해 내려 왔고, 중국에 와서 6조 혜능 스님에 이르러 그쳤습니다.

이처럼 의발전수가 끊기 이유는 스승의 의발이 제자들간 다툼이 대상이 되면서 입니다. 이때 혜능 스님은 "너의 대에서 그쳐라. 그러면 선종이 천하에 널리 퍼질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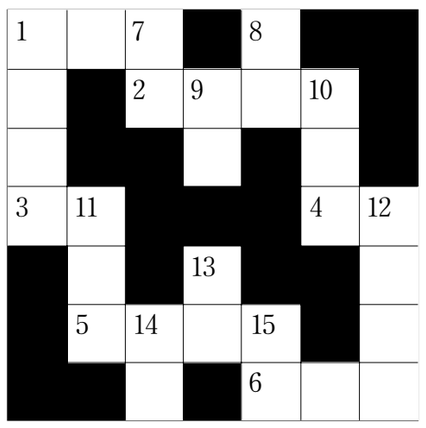
전법게도 받습니다. 이 같이 건당식은 불조직전(佛祖直傳)이며 법이 이렇게 상속돼 내려갑니다. 경계가 열린 도인은 서로 알지만, 일반 대중은 깨달은 분이 누군지 법을 모르므로 이렇게 대중에게 공개리에 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면 대중은 누구에게 법이 갔다는 것을 알게 돼 다툼도 의혹도 없어지게 되죠. 6조 혜능 스님이 5조 홍인 문하에서 삼경에 법을 전해 받고 강을 건너 멀리 남방으로 갈 때, 대중이 뒤늦게 알고 뒤를 쫓아 목숨이 위태로웠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근세에 들어서는 만공 스님이 입적하자, 제자 보월 스님의 법을 금오 스님이 잇는 건당식을 열어 준 일이 있습니다. 서옹 스님도 광제 스님에게 건당식을 열어 주었고요. (별님)

답2 : 전법의식(傳法儀式)입니다. 스님은 출가할 때 은사(恩師)를 정하는 득도식(得道式)을 행하고, 고된 수행 끝에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선사 또는 강사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수행의 정도를 인정할 수 있는 법사를 정해 법사의 법맥을 계승하는 의식, 즉 스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를 건당식이라고 말합니다. 건당식이 끝나면 법사로부터 법호와 의발(衣鉢)을 전해 받게 되는데, 법호를 줄 때는 법사가 제자의 법호에 대해 해석을 하며, 법통 계승의 내용을 기록한 족패(族牌)를 줍니다. 이 의식 때 제자는 반드시 최초의 설법을 해 여러 스님들 앞에서 스스로의 경지를 보여줘 잘못된 건당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증명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신라말부터 선종파 교종이 모두 행하였고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습니다. (불학자)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가로

1. 그리스 신화 중 나르시스가 죽어서 된 꽃 2. 백자나 되는 높은 장대의 끝을 나타내는 고사성어로 위태로움을 뜻함 3. 두 명의 선수가 글로브를 끼고 링 안에서 치고받는 스포츠 4. 학식과 의견을 나타내는 말로 사물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5. 유비, 관우, 장비가 복숭아나무 밑에서 한 맹세 6. 객지에 있는 향우들끼리 친목을 위하여 가지는 모임.

세로

1.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뜻으로 열심히 공부함을 이르는 고사성어 7. 화가를 높여 이르는 말 8. 저녁에 나오는 신문 9. 등골뼈, 추궁이라고도 함 10. 이야기의 맨 앞부분에 주제가 있는 글쓰기 방식 11. 물체에 평행광선을 비추어서 평면 위에 나타낸 그림자로써 그 물체의 모양을 나타낸 그림 12. 가당치 않은 말을 억지로 조리에 맞게 붙여씀을 이르는 한자성어 13. 부정 · 모순 · 결함 등의 근원을 파헤쳐 깨끗이 없앰 14. ○○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15.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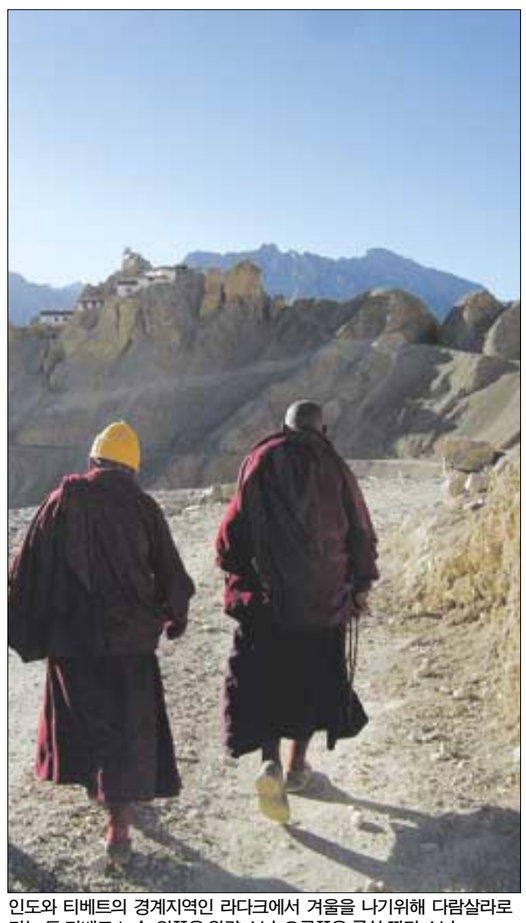
정답은 26면에

인도 오지서 만난 사람들의 聖스런 삶


티베트 스피티의 고산지역에 위치한 당카르의 절들.



영혼의 순례자
조연현 지음 | 한겨레신문사 펴냄 | 9천5백원


인도와 티베트의 경계지역인 라다크에서 겨울을 나기위해 다람살라로 가는 두 티베트 노승. 왼쪽은 왕갈 스님. 오른쪽은 롭상 쩐뒤 스님.

"난 호기심 어린 권유에 마지못한 척 자전거에 올랐다. 그런데 잠시 자세가 흔들렸을 뿐 바퀴가 구르기 시작하자, 곧 균형을 찾았다. 25년 전 자전거를 처음 탔던 감각을 되찾는 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어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업(業)도 이와 같지 않겠는가. 선업도 악업도 한 번 길들여지면 이처럼 몸에 익어 세월이 지나도 다시 나타날 것이다."

한겨레신문사 종교담당 기자 조연현씨(42)가 2003년 9월부터 인도에서 보낸 1년간은 자기반성과 깨달음의 시간이었다. 그 결실을 묶은 것이 이번에 출간한 <영혼의 순례자-신만이 사는 땅, 인도 오지에 가다>이다.

이 책은 일종의 인도 오지 체험 기행문이다. 지은이는 각 종교의 주요 사원을 돌고 그곳에 있는 성직자들을 만나면서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등의 역

종교란 무엇인가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화두' 배낭에 담고
1년간 만행하듯 취재기행

사와 사상, 교리를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붓다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과연 힌두교는 포용의 종교인가', '시크교는 화합의 종교인가', '아힘사를 내세우는 자이나교는 비폭력 종교인가' 하는 물음과 답을 찾는 종교 순례기이기도 하다.

뿌연 안개가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인도로 처음 떠날 때 지은이의 머릿속 화두는 '영혼이 살아 숨쉬는 그곳의 삶과 사람들은 어떨까'였다. 그래서 그는 요즘도 산적들이 득실거린다는 비하르주를 비롯해 북부 끝 히말라야의 스피티 지역과 가로왈 지역에서 최남단 케냐쿠마리까지 오지의 사찰과 아쉬람(수행공동체)을 샅샅이 훑었다. 대부분 소, 돼지, 걸인 등이 거리를 헤매는 오지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의 만행은 고행이라고 느낄 정도로 험난했다.

실제로 시크교도에게는 사기를 당하기도 했으며, 산사태로 길이 끊어져 천길 낭떠러지 아래를 굽어보며 목적지까지 기어가기도 했다. 척박한 고산지대에서는 뼈마디 쑤시는 고열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때 그의 입에서는 티베트불교의 고승 아티샤 대사의 <입보리행론> 한 구절이 흘러나온다.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오네.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심에서 오네."

고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보드가야 위파사나 센터에서는 새끼 도마뱀들과 동고동락(?)했다. 또 여행중 배낭속에 있던 꿀물이 새는 바람에 개미떼의 습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은이는 이런 고생을 여행에서 흔히 만나는 해프닝이나 무용담의 소재로 치부해 버리지 않았다. 도마뱀들 때문에 밤새 잠을 설쳤지만, 이들이 모기와 독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는 고마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잠시나마 가졌던 도마뱀에 대한 원망을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했다.

티베트의 망명정부가 있는 다람살라에서는 그 곳에 유독 많은 개와 원숭이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번 생각한다. '견원지간(犬猿之間)'이지만 극한 상황에서도 마치 싸우는 것처럼 페인트 모션을 쓸 뿐 피터지게 싸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전쟁을 일삼고 죽고 죽이는 것을 서슴없이 하는 인간에게 그만한 금도라도 있다면…"하고 안타까워 하기도 한다.

또한 이 책에는 지은이가 신을 닮은 사람들을 만난 기쁨도 들어있다. 간디, 비노바 바베, 데레사 수녀, 메논, 달라이라마 등의 실천적인 삶의 궤적은 물론이고, 노승, 걸인, 떠돌이 수도승, 히말라야 여인 등 길거리에서 만난 뭇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행복은 거기가 아닌 여기에 있다',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는 소박하면서 강렬한 깨달음을 얻었다.

특히 "'증오하고 화를 내는 것'과 '자비심을 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지, 우리는 유익한 쪽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많은 이들이 수행을 한다고 하고, 오체투지를 수만번 한다하더라도 누군가를 대할 때 평화롭게 미소지을 수 없다면 그런 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하는 달라이 라마의 법문은 만행을 끝낸 지금까지도 지은이의 가슴속에 깊이 남아 숨쉰다. 지은이는 생각한다. 깨달음은 인도나 히말라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내안에 있는 것이란걸.

한편 '신만이 사는 땅', '신을 닮은 사람들'을 담은 80여 컷의 사진들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인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 글맛을 돋워주는 애피타이저 역할을 하고 있다. 지은이는 "이 사진들은 내 조그만 카메라가 아수라의 눈물을 진주로 토해낸 것"이라는 말에서 이번 사진들에 대한 그의 애착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책 속에 등장하는 사진들은 화려하거나 매혹적인 장면은 많지 않지만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들어 책 장을 쉽게 넘기지 못하게 만든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현대연극의 쟁점
김효 지음 | 1만5천원 | 연극과인간 펴냄

서양의 고대 신화로부터 동양의 노장사상에 이르기까지 종횡무진 넘나드는 풍요로운 인용에, 예술사의 문맥을 짚어내면서도 문제의 핵심을 파고드는 저자의 필력이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다.

연극평론가 김 효가 그간 써온 논문들을 한 권으로 묶어낸 이 책은 크게 4부로 나누어져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연극 담론의 핵심인 '몸'의 부상이나 연극인류학에서부터 가장 원론적인 개념들, 예술의 기원으로부터 비극과 희극의 장르 가르기 문제, '예술성'과 '대중성'의 문제, 그로부터 배설된 한국연극계의 리얼리즘 강박증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다. 특히 일관되게 흐르는 저자의 철학적 좌표를 간파할 수 있다. 서구 지성사의 계보를 이으면서도 동시에 반성적인 철학자 들뢰즈, 가따리의 사유를 바탕에 깔고 다양하게 '배치'된 주제를 탐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의 이력도 눈여겨 볼만하다. 79학번 불어과, 탈춤 반 소속, 불란서 유학파 등 그가 인생에서 겪은 고뇌들이 고스란히 이 책에 녹아있다. 또 혼돈과 잔혹의 시대를 거친 본인의 실존과도 맞물려 있다. 때문에 그가 대학시절 조동일의 책 <탈춤의 역사와 원리>를 헤집으면서 비판한 부분은 그러한 색을 잘 드러낸다. 물론 서구중심주의를 반박하기 위해 저자가 기댄 것 역시 서구연극이

연극계 서구중심주의 해부

론과 철학사상이다. 그러나 저자의 논지는 "우리 안의 서구중심주의"를 질타하고 반성하는데 있다. 논의의 마디마디에서 오리엔탈리즘의 왜곡을 반복하는 우리 학문풍토와 연구현실을 꼬집고 있기에 그렇다.

저자는 무엇보다 보편성이라는 환상 속에 서구의 잣대로 동양의 특수성마저 재단하려는 오류를 지적한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서구 '재현'의 역사와 비극의 범주에 이의를 제기한다. 비극은 과연 보편적 장르인가? 저자는 비극은 그리스라는 시대의 정치 · 사회상황의 산물이지 보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한편, 제의기원설이 허구라는 것을 폭로하면서 그로부터 산종되는 많은 문제들을 포착해 논의의 핵으로 삼고 있다.

이밖에도 '비극'이라는 경전에 주술 걸린 우리나라 전통연희 연구와, 정극(正劇) 혹은 리얼리즘에 대해 목을 매는 우리 연극사 연구의 허점을 정돈해주고 있다. 서구의 지배 담론에서 배제 당한 비서구, 탈식민지적 관점의 연극적 고찰이자 사유인 셈이다. 그러면서도 저자는 들뢰즈의 '생성'의 논리로 우리 연극에 해법을 제시한다. 전체주의적 동일자이론으로부터 탈주하여 타자(생성)의 관점에서 한국연극사 다시쓰기는 역동적인 문화상호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원어 실력만을 키워온 듯, 편리하고 협소한 공부만을 하고 돌아온 유학파들의 지지부진한 공부 량에 비해 김효의 스펙트럼은 깊고 넓어 보인다. 서구지성사의 눈으로 다시 한국을, 그것도 서구지성을 반성하는 탈구조주의적 관점을 반향하면서 한국연극의 현실과 조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동안 이러한 글쓰기가, 적어도 연극판에서는 없었다는 점에서 저자의 글은 파격이다. 나아가 문학과 예술 그 뿌리에 대한 폭넓은 사유를 열어주고 있기에 이 책의 가치는 더욱 크다. ■**김숙현** (연극평론가 · 동국대 예술대 강사)

탈종공고

● 등록번호 : 제 46-75호
● 사찰명 : 白 蓮 寺
● 소재지 : 서울 노원구 상계1동 1013-36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5. 1. 19

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장 법하

불자 희소식

● 언어장애 어린이 (종아포함)
● 학습장애 (지진아, 자폐아)
● 정서불안
● 뇌병변 (어린이가 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병)
● 각종 정신질환 (간질)
● 각종 신병

※ 뇌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병들이 아니며 귀신이 들리고 접하여 발생한 병들이 아닙니다
※ 질병발생의 원인을 규명하여 100% 될 수 있습니다

관 음 정 사 무법
도봉구 쌍문 2동 80-21호 (쌍문역 4번 출구)
02)991-7727

謹賀新年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송광사 대구분원 **관 음 사**
주지 元明
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2가 26
TEL 053)421-3700 / FAX 053)427-1889

대한불교조계종
재단법인 선학원
보 성 선 원
주지 보연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1동 1952-1
TEL 053)653-7558

謹賀新年
韓國佛教太古宗 奉元寺
住持 金九海
副住持 石禪岩
總務 李起峰
敎務 金太虛
社會 李雲峰
財務 曺曉光
庶務 金光浩
宗會議長 崔惺潭
議員 朴古山, 馬一雲
趙玄聲, 全智岩
韓國佛教太古宗 奉元寺
大衆一同
韓國佛教太古宗 奉元寺
觀音會 會長 宋花榮 會員一同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전화 : 02)392~3007~8 / 팩스 : 02)393-9450

석주 스님 일대기 나는 오로지 만족할 줄 안다



도심 속의 도인 석주 큰스님
김현준 엮음 | 효림 | 4천원

석주 스님이 93세 되는 해 어느 날, 법산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이 설날 세배를 드리러 갔다. 방문을 두드리고 살짝 들어섰을 때, 석주 스님은 전등도 켜지 않고 열심히 붓글씨를 쓰고 계셨다.

"스님, 불이라도 밝히시지요."

"괜찮아요."

"정월 초하루인데 왜 이렇게 글을 쓰십니까."

"아, 누가 절을 짓는다고 글씨를 3백장 써달라는데 아직 반도 못썼어."

누군가 포교나 불사를 위해 글씨를 부탁하면 "돈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니 글씨로라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며 '붓글씨 불사'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석주 스님. 김현준 불교신행연구원장이 지난해 11월 입적한 석주 스님의 일대기와 수행일화를 책으로 엮었다.

1909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23년 15살의 나이로 출가한 스님은 불교정화운동에 앞장선 것을 비롯해 동국역경원의 전신인 법보원 설립, 세 차례에 걸친 총무원장 역임, 어린이 청소년 포교 등 불교발전을 위한 숱한 발자취를 남겼다.

<도심 속의 도인 석주 큰스님>은 2002년 석주 스님이 직접 들려준 수행담을 출가와 수행행적(1장 한결같은 수행정진), 불교정화와 역경 · 포교 활동(2장 중생교화의 세연), 제자들과 신도들에 얽힌 일화(3장 큰스님의 일화)로 나누어 엮었다.

'어머니 생각을 하면 눈시울이 젖어드는' 효성 깊은 아들의 모습과 아흔이 넘어서까지 손수 빨래를 하며 시자에게 "내 시봉보다는 공부에 마음을 두라"고 가르치는 자상한 스승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직접 구멍 난 양말



석주 스님이 불자들에게 수만 장도 더 써준 '나는 오로지 만족할 줄 안다'는 뜻의 '오유지족(吾唯知足)'.

을 기워 신고 속옷의 고무줄을 몇 번이나 새로 넣어 입었던 스님의 일화에서 '안과 밖, 시작과 끝이 똑같은 스승'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실감할 수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경전과 만난 심리학 마음공부의 길 찾다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대승기신론
서광 스님 지음 | 불광출판사 | 8천원



지난해 <알몸이 부처되다> <문제는 항상 부모에게 있다> 등을 출간하며 활발한 집필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광 스님(미국 보스턴 서운사 주지)이 이번에는 <대승기신론>을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낸다.

왜 '심리학'일까?

우선, 스님이 대학(효성가톨릭대 심리학과)과 대학원(미국 세이브룩 대학원 초자아 심리학 박사과정)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낸다면 첫 번째 의문을 풀 수 있다. 이에 더해 불교와 심리학의 공통점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다룬 다는 것이라는데 생각이 미쳤다면, 두 번째 의문도 풀린 셈이다.

"<대승기신론>은 마음의 본질과 작용, 그리고 깨달은 마음과 깨닫지 못한 마음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통해 깨달음과 무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마음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소중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대승기신론>을 현대심리학의 관점에서 풀이함으로써 올바른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고귀한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뜻을 알기 어려운 한자용어 일색이라면 일반 불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일 터. 스님은 <대승기신론>의 전통적인 분류체계 대신 내용에 따라 장과 절을 새로 나누어 읽기 편하게 편집했고, 용어도 쉬운 현대어로 바꾸었다.

1장에서는 책의 저술동기와 구성형식, 대승의 본질과 의미를 설명한다. 2~4장에서는 '마음의 양면성'과 마음이 오염되는 과정, 깨달음과 무지의 정의 등을 보여준다. 5~7장에서는 지관수행, 선과 위빠사나 등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소개한다.

돌에 새겨진 선조들의 지혜



한국의 석조문화 박정근 외 지음, 다른세상, 1만5천원

2004년 6월, 강원 고성군 건봉사 내 능파교(보물 제1336호)가 보수공사 도중 무너졌다.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서산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은 최근 기단부 암석의 균열과 광물질 성분이 녹아내리는 백화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부여 정림사터 오층석탑과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무량사 오층석탑 등도 한국문화재보존학회의 석조문화재 조사결과 5등급의 위험 판정을 받았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지난해 12월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대공학이 발달했다 해도 자연의 리듬에 맞추는 노하우는 과거만 못한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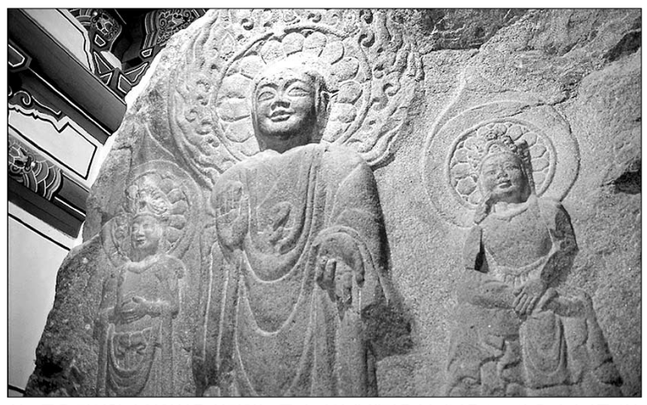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토 어디서나 석조문화재를 만날 수 있음에도 왜 '자연의 리듬에 맞춰' 돌을 다루는 솜씨는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일까? 혹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돌과 자연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사찰과 탑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소재구 학예연구사는 "오늘날의 과학문명 속에서 우리는 과거 너무나 친숙했던 돌의 문화와 창조적 안목과 기술을 모두 잃어버렸다"며 "하지만 우리 주변에 돌이 존재하는 한 돌의 문화는 계속될 것이며, 돌에 대한 옛 정취를 음미할 수 있다면 앞으로 더욱 성숙된 돌의 미학(美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암각화 남근석 돌장승 석불 돌다리 등 석조문화에 담긴 의미 · 아름다움 설명

최근 발간된 <한국의 석조문화>는 암각화 남근석 돌장승 석불 석탑 석축 돌다리 고인돌 등 우리 석조문화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이 책은 2000년 도서출판 다른세상에서 출간된 <돌의 미를 찾아서>와 <징검다리 건너 석정에 오르다>를 합본해 새롭게 펴낸 것이다.

돌은 때로는 초월적인 상징물로, 때로는 웅장하고 세련된 조형물로, 때로는 아름다운 조각 예술품으로 이 땅 위에



선조들은 강인함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돌과 바위에 생명을 불어넣음으로써 우리나라를 '석조미술의 나라'로 만들었다. 사진은 백제 석조미술의 절정을 보여주는 서산 마애삼존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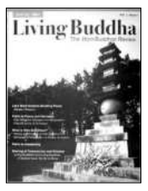
담긴 돌장승 등은 생활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반영해 왔다. '원시시대의 산물'로 치부되기 쉬운 고인돌도, 100톤 이상의 돌을 운반하고 세우기 위해 의상소통이 원활하고 지휘체계가 잡힌 조직사회에서 만들어졌음을 생각한다면 결코 간단치 않은 의미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석불이나 석탑에는 '불국토'를 염원하는 바람이 담겨있다.

"석불은 불교적인 것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조성 당시 우리 민족의 미의식과 정서가 담겨 있다. 석불에서 민족의 애환과 숨결을 느끼게 되는 것은, 진리의 입체물인 석불에 민족의 정신과 자아실현의 가정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선사시대 사람들의 신앙의식을 연구하고 있는 박정근 씨(세종대박물관 특별연구원)와 국립민속박물관 김종대 박호원 씨, 국립중앙박물관 곽동성, 소재구 씨 등 소장학자들이 자신의 전공분야를 맡아 집필했다. 지은이들은 석조문화를 통해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살고자 한 우리 조상들의 원초적 생명과 그 생명을 향한 희망의 미학을 발견한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원불교 영문잡지 나왔다



영어로 읽는 원불교-Living Buddha
박광수 지음 | 동아시아 | 9천원

원불교와 한국 종교를 국내외에 소개하는 연간 영문잡지 <영어로 읽는 원불교-Living Buddha>가 나왔다.

책은 원불교의 역사와 사상, 좌선법, 남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혜심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 자비와 지혜의 나눔이라는 원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와 국제사회에서의 종교의 역할', 1960년대 강원룡 목사가 이끈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종교대화운동' 등을 소개함으로써 국내의 종교계를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려져 있다. 이 잡지는 국내외 도서관과 서점 등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박광수 교수(원광대)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차장으로 일했으며 현재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평화교육위원장을 맡아 종교간 대화와 협력, 남북종교인 교류 등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 사찰답사 가이드북



경기도로 떠나는 사찰기행 2
우리사찰답사회 글/사진 | 문예마당 | 1만2천원

우리사찰답사회가 펴내는 사찰기행 시리즈. 경기도권 두 번째 책. 여강이 감싸 도는 봉미산 자락에 안긴 여주 신륵사와 한글 현판인 '큰법당'으로 유명한 남양주 봉선사, 1100년의 세월을 지켜 온 은행나무가 있는 양평 용문사를 소개한다. 풍부한 사진자료와 가람배치, 주변 볼거리, 찾아가는 길 등을 담고 있어 실제 답사에 활용하기 쉽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용서	달라이라마	오래된미래
2	오체투지	한 경 혜	반디미디어
3	禪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	여 시 아 문
4	입보리행론	샨티데바	하 연 연 꽃
5	한국의 선사들	김신곤 외	우리출판사
6	이판사판 화엄경	성법 스님	정신세계원
7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도법 스님	아름다운인연
8	물 속을 걸어가는 달	김 진 태	학 고 재
9	텐진빠모의 마음공부	텐진빠모	열 림 원
10	인연법과 마음공부	혜국 스님	효 림

도서 안내 : (02)737-0695



(주)야단법석과 함께 할.... 모집합니다

· 수익사업을 생각하는 사찰
· 기금 마련을 하고자 하는 신도회 불교단체
· 신행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갖고자 하는 불자

야단법석은...

● 문수사업부 -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봉축행사,
산사음악회 기획 연출

● 보현사업부 - 다음 생을 위한 법회, 사십구재보험



스님은 다비와 사십구재,
신도는 시다림과 사십구재

● 관음사업부 - 법회때마다 음향때문에 고생하셨다면……



2005년 음향 임대 사업 시행

● 지장사업부 - 다비는 스님의 마지막 法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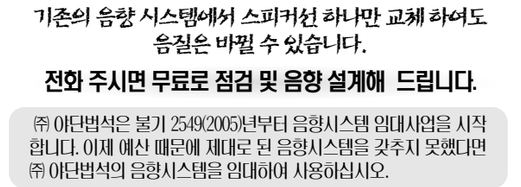


충남 금산 서대산 일불사,
전북 정읍 용천사 지정 다비장 운영

야단법석 문의 : 050-5244-0108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기존의 음향 시스템에서 스피커선 하나만 교체 하여도 음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 야단법석은 불기 2549(2005)년부터 음향시스템 임대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예산 때문에 제대로 된 음향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면 ㈜ 야단법석의 음향시스템을 임대하여 사용하십시오.

▌좋은 제품으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 맞추다 보면 제품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목돈보다는 월 임대료로…
불사를 하다 보면 소소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음향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여 법당장엄은 잘하고도 싼 음향 시스템을 설치하여 법회 때마다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관리를 해드립니다.
설치하고 몇 년 지나면 부품이 없어서 A/S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단법석은 책임지고 동일한 사양으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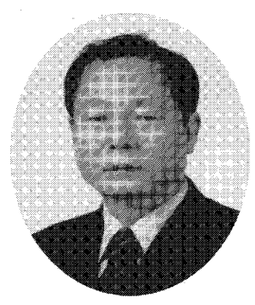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 사 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大吉)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424쪽
각권정가10,000 원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성명학-누구나 이름을 지을 수 있다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수행과 붓질 융합돼야 진정한 선서화”



1월 11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선서화 강의를 펼친 석정 스님.

석정 스님 특강 인기…선서화가 뭐길래?

예술의 전당서 ‘선서화 역설에 대한 이해’ 주제로 강의

형상을 여읜 학, 문자를 벗어나 승천하는 듯한 ‘龍’字, 일필에 담은 달마상…. 불립문자(不立文字)를 논하는 선승들이 그림으로, 글씨로 그들의 족적을 남겼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할 뿐 그 어떠한 상(相)에도 얽매이지 말라고 하였거늘, ‘선서화(禪書畵)’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남은 이 자유분방한 붓의 흔적은 무엇일까.

지난 해 국립청주박물관 전시에 이어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개막된 ‘고승유묵–경계를 넘는 바람(2월 27일까지)’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선서화’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월 11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선서화의 역설에 대한 이해’ 특강을 참조해 선서화란 무엇이며, 또 그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다.



석정 스님의 일원상(一圓相).

▽선서화란?

스님의 그림이나 글씨는 모두 선서화가 될 수 있을까. 석정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은 “선종 전통을 따르는 우리나라 스님들의 모든 작품들을 선서화라 이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스님은 재가자의 작품일지라도 글씨나 그림에 몰입해 자신도 모르게 선의 경지에서 작업해 내놓은 결과물이라면, 선(禪)의 정신을 담은 선서화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석정 스님은 “스님의 ‘수행’과 ‘붓질’이 융합되지 않는다면 선서화의 최고 경지를 이룰 수 없다”고 말한다. 선서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현실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사실성에 높은 점수를 주는 한편, 석정 스님은 “영감이 발달한 까치는 솔거가 표현한 소나무의 정신성에 이끌렸을 것”이라고 말한다.

‘잘 그린다’ 벗어난 사사무애의 경지

주체는 수행으로 다져진 선미(禪味)와 선기(禪機)가 살아있어야 하고 예술작품을 형상화할 수 있는 표현상의 규칙까지 체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표현에 있어서도 ‘기법’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 원광대 고고미술학과 최순택 교수는 “문인화는 사의화(死義畵)라 해서 그림에 그리는 이의 취향이나 인격을 배제한 그림이지만, 선화는 그러한 개념까지 초월해 자신을 포함한 그 어떤 것에도 속박받지 않는 사사무애의 경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은 잘 그리려는 생각이나, 잘 그린다는 기준으로부터 벗어나야 선서화인 것이다.

따라서 선서화를 감상하는 사람 역시 대상에서 특정한 실체를 보려고 한다면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석정 스님은 “선미와 선기는 그저 느껴질 뿐”이라고 말한다.



3.5m 대형 달마도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범주 스님.

▽선서화, 무엇을 담고 있나?

그렇다면 선서화에서 중시되는 ‘스님들의 수행력’은 선묵(禪墨)에 어떻게 녹아날 수 있을까. 석정 스님은 신라시대 화가 솔거가 그린 소나무의 예를 들었다. 솔거가 황룡사 벽에 그린 소나무를 보고 까치는 진짜 소나무인줄 착각하고 앉으려다 그만 떨어지고 말았다.

집착하지 않는 禪 정신 붓으로 표현

의 심금을 울릴 수 없는 선서화는 그 가치를 말할 수 없다.

선서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무기교의 기교’도 선의 정신과 무관하지 않다. 기교의 고개를 넘고 넘어 ‘무기교’에 이른 선서화는 객관적인 기준을 넘어선 ‘파격’의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아주대 교양학부 홍성기 교수는 금강경의 ‘응당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낸다(應無所住而生其心)’는 구절로 ‘무기교의 기교’의 개념을 풀어낸다. 즉, 어느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선의 정신이 붓의 획으로 화하여 ‘마음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있는 듯 없는 듯 알 수 없었던 선미와 선기는 일거에 드러나기 마련이지만, 그 상(相)을 의도적으로 지으려 한다면 선미와 선기라 이름할 수도, 느낄 수도 없다. 홍 교수는 “이 같은 역설 구조를 떠날 때야 선의 정신이 비로소 환히 드러난다”고 말한다.

▽선서화는 부적이 아니다

최근 ‘영험함’을 내세운 달마도를 사고파는 이들이 늘고 있다. 수행력을 필력으로 소화한 달마도에는 스님들의 좋은 기운이 묻어나기 때문에 달마도는 액운을 막아주고 병을 고쳐주는 ‘좋은 부적’이라는 생각이 암암리에 퍼진 것이다.

그러나 석정 스님은 “깨달은 이의 선묵에는 맑은 기운이 흐르기 마련이지만, 수준 미달의 ‘단순한 그림’으로 대중을 오도하는 것은

흉내뿐인 그림들 “불교 기만 행위”

문제”라고 말한다. 달마도의 거장으로 불리는 범주 스님 역시 “수준 이하의 달마도를 부적처럼 팔아대는 것은 달마 스님을 모독하고 불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무기교를 의도적으로 흉내내며 수도 없이 생산되는 졸작들도 문제다. 일부 스님들은 선기로써 거침없이 내지르는 것이 선화라며 작품을 하루에 수백 장 이상씩 ‘찍어내기’도 한다. 그러나 홍성기 교수는 “기계적인 반복과 의도적 무기교로 생산된 작품에는 인공조미료와 같은 작위가 남아있다”며 “아무리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이 자유로운 필치라 하더라도 선기의 상으로 삼는 순간 집착이라는 어리석은 행위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한다.



거칠게 내려 그은 붓끝에서 생동하는 학의 기운이 느껴진다.
중광스님 作

결과적으로 졸렬한 선서화는 현상의 ‘모양을 본뜬 글씨’인 일본의 ‘상서(相書)’에 지나지 않는다. 바람이 부는 모습을 ‘風’자의 모양 속에서 표현할 수는 있지만, 바람의 근본적 속성을 담아내는 것은 어렵다. 선기를 드러내는 작품보다 선기를 흉내낸 작품이 더 많은 현실에서, 수행력과 필치가 최상의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선서화는 과연 언제쯤 제 빛을 찾을 수 있을까.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2004년도 불교역사를 한 눈으로 「현대불교신문 합본 10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4년 합본집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습니다. 매주 32면 발행으로 풍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큰스님 법문,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 더 없는 불교신행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2004년 합본집을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VCD를 증정합니다.

■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2004년 1월(404호) ~ 6월(480호)
  하권 2004년 7월(481호) ~ 12월(506호)
- 판형 : 신문원형(40cm × 55cm)
- 절차 : 전화신청 → 입금확인 → 택배발송
- 가격 : (상 · 하 2권) 총 80,000원(발송비 무료)
- 입금계좌(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 주문 및 문의
– 전화 (02)737-0090 (直) (02)737-8881 (代) | 팩스 (02)737-0697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2004년도 이전 합본집 한정 특가 판매 !!
• 2003년(상 · 하 2권) 70,000원 • 2000년 ~ 2002년 각 50,000원
※ 재고가 많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 하세요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15>



덧없다 참 덧없다 ①

옛날 성안에 연화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매춘부였습니다. 얼마나 자태가 고운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내로라하는 집안의 자제들은 그녀와 하루를 보내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연화에게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그래, 출가하여 스님이 되면 여생을 착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연화는 부처님 계신 곳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샘물을 만났고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러자 샘물에 여전히 빼어나게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순간 연화는 '아차' 싶었습니다.

'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답기도 쉽지 않은데 왜 이런 미모를 버리고 사문이 되려 하였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마음껏 즐기고 즐가 같은 건 뒤에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서 발길을 돌렸을 때 부처님께서 연화를 교화하시려고 그녀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여인을 변화로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을 샘물가에서 마주치게 하였습니다. 두 여인은 이내 벗이 되었고, 는 건장한 이도 마침내 죽음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셋째는 일가친척이 한데 모여 즐겁게 살다가도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넷째는 아무리 태산처럼 재산을 쌓아둔다 해도 결국은 다 흩어지고 만다는 사실이다."(<법구비유경>제1권)

지난 12월26일 지구 역사에 대재앙으로 기록될 끔찍한 자연재해가 남아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재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행방이 묘연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희생이 된 사람들 중에 애틋한 사연이 없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희생자들의 사연을 듣자면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들에게 그 지역은 파라다이스였고, 유토피아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쉬고 싶었고 부부간의, 혹은 가족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고, 효도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재앙의 현장으로 달려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밟고 다녔다거나 시신이 부패해서 더 이상 신원확인은 어려울 것이라거나 부패한 시신에서 나는 악취로 견디지 못하겠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런 말은 뭘

존엄했던 존재 숨 끊기자 한순간에 부패
귀천 가리지 않는 무상의 이치 눈으로 확인

연화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에게 이런저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던 그 고운 여인은 몹시 졸린 듯 연화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름다운 눈을 감고 잠이 드는 순간 갑자기 이 여인은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토록 아름답던 여인의 모습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옥 같던 얼굴은 썩어 문드러져 구역질이 날 정도의 악취를 풍겼고 곱고 팽팽하던 배는 부풀었다 터지더니 벌레가 기어 나왔습니다. 이빨은 빠지고 머리털이 떨어졌고 사지는 고스란히 허물어져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연화는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조금 전의 그토록 아름답던 여인이란 말인가! 어쩌면 이렇게 덧없게 되었는가! 그토록 곱던 여인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으니 내가 어찌 영원한 아름다움을 보장받을 수 있으랴. 이제 다시 부처님에게 나아가 가르침을 청하고 부지런히 수행하자.'

연화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은 것을 확인하신 뒤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믿지 못할 네 가지 일이 있다. 첫째는 젊은이도 결국은 노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둘째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고 직후에는 그나마 여전히 아름답고 싱싱한 모습을 가족들의 가슴에 남겨주더니 하루 이틀 지나면서 시신은 이제 전염병을 일으키고 악취를 풍기는, 빨리 처리해야 할 '고민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귀하고 존엄했던 존재가 어찌 숨이 끊어지자마자 한 순간에 그토록 가치를 상실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길을 저 역시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자니 비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세계 각국의 숭고한 구호의 손길이 있어 덧없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맛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재앙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 '따스한 구호의 손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 절세가인이 연화에게 보여준 그 무상의 이치를 우리는 지금 15만 건이나 되는 실례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한 셈입니다. "재앙이 갑자기 찾아오니 피할 길도 없느니라.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일단 죽으면 몸이 썩어 없어지니 속절없이 아낀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라는 <자비도량참법>의 메시지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작심하는 순간마다 길 열려



지상 백고좌

경조 스님

(불입종 종정)

새해를 맞았으니 여러 가지 결심도 하고, 또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도 세웠을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만 매일같이 작심하다보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다시 결심하고 하다보면 그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나'를 발전시키는 힘이 됩니다.

해보다가 잘 안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할 바에는 세상을 사는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번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될 것이 없지요.

많은 결심을 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보람있는 것은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보통 이타행 이

이기심 버리고 남 돌아보자

타행 하지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기심을 버려야만 이타행을 할 수 있는데, 이기심 버리는 것이 어디 한순간에 되는 일이겠습니까.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면서 마음을 닦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세요. 구석구석 시끄럽지 않은 곳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거칠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이 바르지 않으니 시끄러울 수밖에요.

이기심을 버리는 것은 나를 찾는 일이자 중생을 구제하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부처님 법만한 공부가 없지요.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화두를 들거나 기도를 하거나 경전을 독송하거나 모두가 똑같습니다. 제각기 근기에 맞는 수행방편을 찾아 일심으로 정진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도 <법화경> 공부야말로 평생에 한 번은 해야 할 일입니다. <법화경> '법사품'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한량없는 많은 경을 설했지만 그 중에서도 법화경이 제일이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법화경>은 수승한 경입니다.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불진언 언불진의(書不盡言 言不盡意)'라. '글로써 말을 다 할 수 없고, 말로써 뜻을 다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처님 법이 그렇습니다. 어찌 글로, 말로 다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법은 '불가시 불가설 비사량분별지소능해(不可示 不可說 非思量分別之所能解)'라 했습니다. 보여줄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니 사량분별로 헤아려 풀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화경>에는 그 깊고 깊은 불법의 이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을 보면 부처



경조 스님이 <법화경>을 펼쳐보이고 있다.

님 법이 보입니다. 부처님 법이 들립니다. 방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이치를 알게 해줍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말에 산하가 다 포함돼 있듯이 <법화경>에는 일체 경의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경 제목만 계속 염송해도 좋은 것입니다.

사경이나 독송하는 것도 좋지만 <법화경> 수행 가운데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것이 바로 '수지(受持)'입니다. <법화경>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느 백만장자에게 철부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불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놀고 있었습니다. 집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쳐도 노는데 정신이 팔려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백만장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보여주며 아이들을 불러냈습니다.

<법화경> '비유품'에 나오는 중생계를 '불타는 집(火宅)'에 비유한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불타는 집은 삼계(三界)를 말하는 것이고, 장난감은 방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난감이라는 방편보다는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게 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불법의 궁극은 방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주위를 잘 둘러보세요. 좌선을 하느니 염불정진을 하느니 하면서 수행을 한답시고 이

꼭 한번 해야 할 공부 '법화경'

곳저곳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는 것이 꽤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껍데기뿐입니다. 방편만 알고 있을 뿐이지 부처가 되는 진짜 길은 전혀 모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가 되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편 자체에만 집착하다보면 그 길을 잃게 됩니다.

날카로운 칼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고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극약도 마찬가지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약이 되기도 하지요. 머리가 좋은 사람도 그 머리를 좋은데 써야지 나쁜데 쓰면 악한이 됩니다. 방편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깨달음의 길을 찾고 안 찾고는 자기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불교는 그 판단을 도울 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불법은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배가 고프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불교는 바로 배고프지 않도록 해주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 중에서도 법보시를 제일로 치지 않습니까. 이기심을 버리고 중생을 구제하려면 법을 알고 법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네 사는 세상을 보면 정(正)과 사(邪)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합니다. '파사현정(破邪顯正)'이 필요합니다. 파사현정을 하려면 취사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을

경조 스님은 경조 스님의 <법화경> 얘기가 시작되면 듣는 사람은 '도대체 저 많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법화경> 어디에 어떤 구절이 있는지까지 소상히 알고 있을 정도로 <법화경>에 관한 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수행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평가는 경조 스님이 출가 이후 50년이 넘게 <법화경> 수행에 몰두해왔음을 감안하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스님은 지금도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법화경> 독송을 할 정도로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으며, 6개월 전에는 대전에 법화포교원을 개원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두 차례 법화경 설법을 하고 있다.

1927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경조 스님은 48년에 출가해 태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백화사 전문강원 대교과를 수료하고 보은 화광사를 창건했다. 1965년 불입종 수교부장에 이어 72년 불입종 총무원장을 역임했으며, 79년부터 지금까지 불입종 종정으로서 종단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불입종 총본산인 충북 보은 화광사에 주석하고 있다.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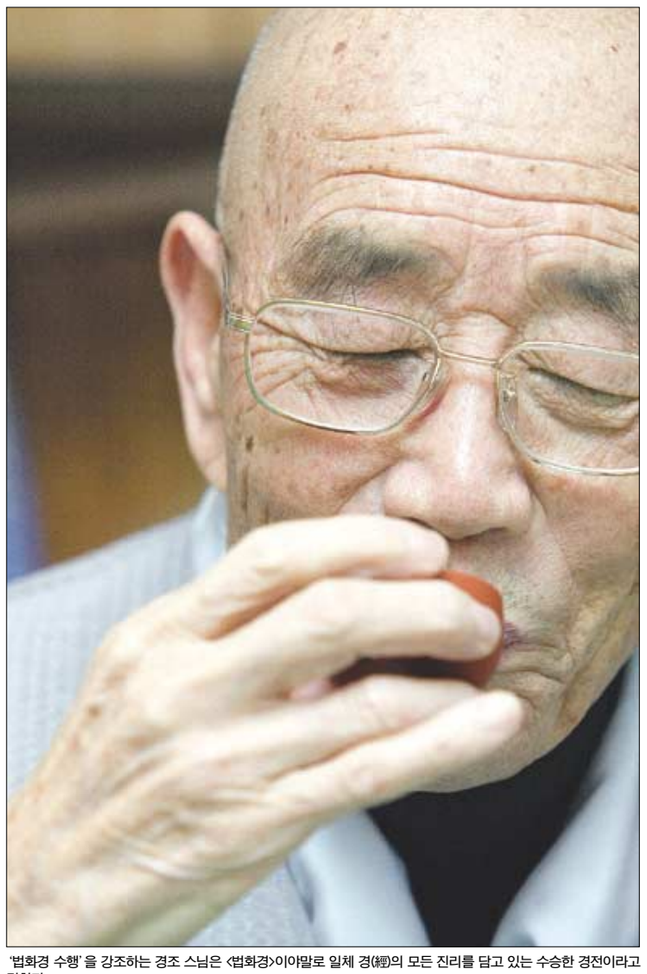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결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정어리 북정어리 왕금정어리 氣가막힌 북이틀어와 왕금운으로 변합니다.



'법화경 수행'을 강조하는 경조 스님은 <법화경>이야말로 일체 경(經)의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수승한 경전이라고 말한다.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부터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계속해서 낡은 것을 벗고 새 것을 얻게 됩니다. 이때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엔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열등한 것을 버리고 수승한 것을 취하는 것, 나쁜 것을 버리고 바른 것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진리에 가까이 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열등하고 나쁜 것을 버린다는 것에는 참회의 의미도 포함돼 있습니다. 잘못을 알지 못하는데 올바른 취사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관보현경>에 '일체업장해 개종망상생 야욕참회자 단좌염실상 중죄여상로 혜일능소제(一切業障海 皆從妄想生 若欲懺悔者 端坐念實相 衆罪如霜露 慧日能消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 같은 일체업의 장애는 모두 망상에서 일어난다. 만약 참회하고자 하는 자는 단정히 앉아 실상을 염하라. 모든 죄업은 마치 서리와 이슬과 같아서 지혜의 해가 능히 없앤다'는 뜻입니다.

참회는 이기심을 버리는데 가장 필요한 요건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망상을 일으키고 그 망상에 매달리다가 한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을 살려면 자기 마음의 모든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있을 때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것이지요.

<법화경> '여래수량품' 에 있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 의사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 두 아들이 약을 잘못 먹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의사가 돌아오자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의사는 약을 만들어서 두 아들에게 먹이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독이 덜 돼 상태가 조금 나은 아들은 아버지가 준 약을 먹었는데, 상태가 심한 아들은 약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준 약을 먹고 병이 나아서야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부처님이고, 중독이 덜 된 아들은 부처님 제자고, 중독이 많이 된 아들은 중생을 말합니다. 중독이 심하다는 것은 마음의 때가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 낫고 보면 부처님은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마음의 때를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래도 자갈도 바위도 물에 넣으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배에 실으면 가라앉지 않지요. 불자들이라면 마땅히 중생을 구제하는 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도 이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선(小善)이 대악(大惡)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지요. 예를 들어 어떤 종교인이 자기 종교만을 위한답시고 불교를 비방했다고 칩시다. 자기신념 측면에서 보면 충실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겠지만 자기 종교를 위해 다른 종교를 비방했으니 결국엔 소선이 대악이 됩니다. 무딘 칼은 잘못 써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날카로운 칼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이익(小善)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배(大善)가 되어야 합니다.

법회 때 어떤 학생이 "선과 악의 경계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다 지키면 선이고 다 범하면 악인 것입니다. 세간법에서는 개미를 죽이고 남을 비방하는 것이 별로 이상할 것 없을지 모르지만 출세간법에서는 큰 죄입니다. 작은 마음의 때라도 벗겨내야만 진정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누가 "당신 주머니에 무엇이 들었소"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금주머니라도 금이 들어있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고, 평범한 주머니라도 금이 들어있으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금을 채워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은 금주머니가 됩니다.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의지해야 할 것과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사의사불의(四依四不依)' 이니, 의법불의인(依法不依人) 의의불의어(依義不依語) 의지불의식(依智不依識) 의요의경불의불요의경(依了義經不依不了義經)을 말합니다. 그 뜻은 '법에 의지하되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뜻에 의지하되 말에 의존하지 말고, 지혜에 의지하되 분별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진실된 경전에 의지하되 방편경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허공에 핀 꽃과 같습니다. 고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넘쳐나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자란 것도 과한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평등한 세상에서 중생은 자비심을 잃고 번뇌 속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전쟁, 싸움, 비방, 폭력은 재앙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 모두는 자비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본래면목을 찾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는 용서와 화합이 있습니다. 굳이 <법화경>이 아니라도 좋으니 자기가 믿고 공부할 수 있는 소의경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올해는 소의경전을 완벽하게 공부하겠다는 결심으로 정진하세요. 올 한 해는 부처님 마음을 꺼내 쓰는 그런 해가 되어 서로 해치는 일이 없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모두가 노력하기 바랍니다.

정리=한명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지현 스님의
스님이야기
설송 스님 (下)

노행자 설송 스님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이십년 전쯤의 일이다. 토굴을 끼고 있는 반농반어(半農半漁)의 어느 외진 마을, 거기 산자락에 엎드려 있는 수도암이란 작은 암자에서였다.

도반 몇 명이 함께 꾸려가고 있던 그 곳에 설송 스님이 찾아 들었다. 저녁연기 스미듯 스며들었다. 초파일이 얼마 남지 않아 아주 번다한 때에 그는 그렇게 와서 잠시 머물다 떠나갔다. 차를 나누며 스님은 그간의 행장에 대해 띄엄띄엄 얘기를 풀어놓았다. 중의 살림살이가 다 그러하지만 그 또한 바람처럼 구름처럼 그렇게 산하대지를 떠돌아 다녔다. 제방의 선원에서 안거하기도 하고 빈 토굴에서 지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중의 포교당에서 어린이 법회를 맡아 보기도 하고…



그림 · 문병성

요즘은 경북 포항 오천이라는 곳에 있는 오어사라는 절 부근 후미진 화전민 마을에 터를 잡고 앉아 있다고 했다. 거기 비어있는 집을 하나 수리해서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채소도 가꾸고 그럭저럭 소일한다고 남의 얘기하듯 했다. 그런 생활이 몸에 익어 별로 불편하지 않다고, 떠가는 조각구름을 무심히 바라보며 쪽마루에 걸터앉아 해바라기 하는 재미가 솔솔하다며 웃었다. 한 두 집 남아 있는 화전민들과 어울려 그들과 함께 산기슭의 척박한 농토를 일구며 산 지 벌써 몇 해가 되었노라고, 심심하지도 적막하지도 어렵지도 않다고 했다. 어쩔 때는 훌쩍 떠나 큰절 뒷방을 얻어 한 철 지내기도 하고 선방에서 가부좌 틀고 안거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화전민 마을의 움막으로 찾아들어 묵은 밭을 일구며 산다고 했다.

"그대가 여기서 지내고 있다는 얘길 풍문에 듣고 한 번 들려 봤네. 참 좋아 보이는군, 그래."

여전히 맑은 목소리, 맑은 눈매의 스님은 조금씩 여유롭게 차를 마셨다. 농부같기도 하고 선승같기도 한 노행자 설송 스님, 그가 내 앞에 앉아 있다는 게 새삼 신기하게 느껴졌다.

철석철석 파도소리가 들렸다. 해풍이 창호문을 흔들며 지나갔다. 바닷가 살림살이도 괜찮은 것 같군 그래. 중은 그저 제 맛에 살아가는 것이지만… 철석거리는 파도소리에 해풍에 귀를 기울이며 그는 쟁반 위에 놓인 귤 하나를 까서 입에 넣었다. 여기 수도암에서 한철 같이 지내보자고 그러자고 권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두 해쯤 떠돌았으니 이제 포항 어디쯤의 자기 움막으로 돌아갈까 한다고, 거기 가서 새롭게 땅을 일구며 사는 데까지 살아볼까 한다고, 그러면서 그는 잘 주무시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객실까지 스님을 안내하고 돌아 나오면서 나는 멀리서 깜박거리는 등대를 바라보았다.

등대… 우리에게 등대는 있는 것인가. 물론 있다, 있고말고. 석가모니부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곧 등대가 아닌가. 그 등대를 의지하여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험한 물결 헤쳐 나가는 것이 아닌가.

먼 바다에 점점이 어화(漁火)가 떠있었다. 밤이 깊어 가는데도 생업을 위해 잠 못 자고 떠 있는 어부들의 삶이 바다 위에서 껌벅이고 있었다. 그들 아내의 아이들의 삶이 어화로 남아 껌벅이고 있었다. 철석철석 파도소리가 들었다. 소금끼 실린 해풍이 뜨락의 나뭇가지들을 몹시 흔들리게 만들고 있었다. 등대… 그리고 점점이 어화가 떠 있는 먼 바다를 바라보며 한참이나 장승처럼 서 있었다.

구름처럼 토굴로 선방으로 유유히 흘러가듯 수행

어촌 마을은 불심이 깊다. 바다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 옛부터 불심이 깊게 마련이었다. 고기 잡으러 바다로 떠난 남정네들의 무사귀환을 위하여 바닷가 마을 아낙네들은 늘 부처님께 기도드렸다. 부처님께 기도드리기도 하고 남근을 깎아 굴비 두릅처럼 새끼줄에 엮어 걸어 놓은 해신당(海神堂)에 기도드리기도 했다. 그들에게 있어 절의 법당과 해신당은 하나였다.

그래서 작은 어촌의 작은 암자의 초파일도 조금은 붐빈다. 조금은 어수선하고 조금은 들썩거린다. 노행자 설송스님도 절마당의 여기저기를 바쁘게 다니며 연등을 걸고 촛불을 켜고 장난질치는 아이들을 다독거리고, 그렇게 꼬박 밤을 밝혔다. 어수선하고 들썩거린 초파일을 지낸 뒷날 아침, 노행자 설송 스님은 내게 작별을 고했다. 그만 떠나가 보겠노라고, 잘 지내시라고 합장하며 미소 띤 얼굴로 작별을 고했다.

그와 작별한 지 이십 년 쯤 지난 오늘 이 새벽나는 그가 그립다. 하늘 가득 별이 초롱초롱하다. 이 새벽에 그는 깨어나 내가 머물던 곳, 철석이는 파도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저 바닷가 해변 마을의 조그만 암자를 기억하며 앉아있지나 않으신지. 그 암자의, 조금은 들썩거리는 초파일 밤을 기억하며 노송(老松)처럼 설송(雪松)처럼 앉아있지나 않으신지… ■ 봉화 청량사 주지

3차 성 명 서

무속인이 사암을 사칭하며 불상을 모시고 굿당을 하고 있다. 사암은 절이라고 한다. 무속인이 절을 사칭함은 법법이며 탈법이다.
무속인은 부처를 모시지 못하며 사암을 사칭 못하며 만자기도 달지 못한다. 이러한것이 법법에 적용된다. 사월초파일에 등달고 무속행위를 하는 것을 사진 찍어서 법에 제소 할 것이다. 2월 25일까지 대표나 대변인은 해명바란다. 해명이 없을 시 법에 제소 할 것이다.

불교발전연구협의회 대표 상산 혜광 법광 혜만 법상 혜우 법행 법경
011-9836-9561 / 팩스 043)732-9561

취 지 문

다양한 종파가 난립할 것이다. 가짜 상표가 진짜를 능가 할 것이다. 무속인이 불가를 곤욕스럽게 하며 망칠 것이다. 현시점에서 불가와 무속의 조례를 헌법에서 귀정되어야 할 것이다. 뜻을 가르치시는 스님들께서 종파초월해서 범불교 발전 연구협의회를 법인체로 발전해야 될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여해주시고 방향을 제시 해주신 큰스님 사암주지스님 신도회장님 수많은 스님께 감사합니다. 입회 또는 문의사항 연락주시길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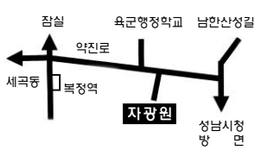
기도처 자연속에 보금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보살 염불원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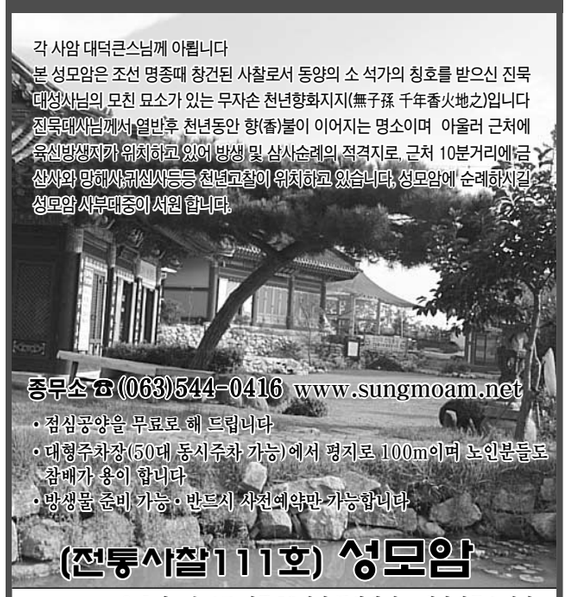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식당, 오락실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정월 방생 및 삼사순례



각 사암 대덕큰스님께 아룁니다
본 성모암은 조선 명종때 창건된 사찰로서 동양의 소 석가의 칭호를 받으신 진묵대성사님의 모친 묘소가 있는 무자손 천년향화지지(無子孫 千年香火地之)입니다
진묵대사님께서 열반후 천년동안 향(香)불이 이어지는 명소이며 아울러 근처에 육신방생지가 위치하고 있어 방생 및 삼사순례의 적격지로, 근처 10분거리에 금산사와 망해사,귀신사등 천년고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모암에 순례하시길 성모암 사부대중이 서원 합니다.

종무소 ☎(063)544-0416 www.sungmoam.net
•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 대형주차장(50대 동시주차 가능)에서 평지로 100m이며 노인분들도 참배가 용이 합니다
• 방생물 준비 가능 • 반드시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전통사찰111호) 성모암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26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기 2549년
1월 19일 수요일 제 509 호

게시판

동산불교대학생 모집 동산불교대학은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의 제26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불교다도학과와 불교미술학과를 포함해 6개 학과며 원서접수는 1월 31일까지다. (02)732-1206

치료레크리에이션 자원봉사자 모집 연꽃마을에서는 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들에게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신청방법은 전화 및 내방접수며 연중 모집. (02)365-3677

주말연극학교 대전여민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겨울방학특집 '신나는 주말연극학교'를 1월 15~30일까지 연다. 선착순 20명 모집. (042)252-9790

디지털문예아카데미 오프라인 강좌 디지털문화예술아카데미가 13일부터 3월10일까지 오프라인 무료강좌를 마련한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며 장소는 서울 중구 예장동 문학의집. 1월 중 강의는 함민복, 이정록, 유성호 씨가 맡고, 2월17일부터 3월10일까지의 강의는 이정우 철학아카데미원장이 맡을 예정이다.(02)323-1081



장애인 IT 직업 훈련생 모집(사진)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정보통신기술(IT)에 관심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8기 웹개발자 과정 직업훈련생을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 (02)2092-1700

20면 상식 퍼즐 정답

수	선	화		석		
불		백	척	간	두	
석			추		괄	
권	투				식	견
	영		척			강
	도	원	결	의		부
		수		향	우	회



태백산 눈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축제의 한 부분인 눈꽃등산을 즐기는 모습. 사진제공=태백시

몸도 마음도 새하얀 눈꽃세상

이달말 대관령 · 태백산 눈꽃축제

하늘을 나는 유니콘, 이집트의 상징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쥬라기 공원에 등장하는 티라노사우로스 등등. 이 모두는 놀이동산에 있는 미니어처가 아니다.

바로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열리는 눈과 얼음으로 빚어 낸 눈꽃축제의 조각상들이다.

"올 겨울방학 땐 아이들 데리고 어딜가지?", "사랑하는 그녀와 함께할 수 있는 환상의 주말여행 코스는 어딜까?" 이런 걱정(?) 거리는 이제 그만. 자! 이제, 학업에 지친 자녀들에겐 동심의 꿈을 지루한 일상에 빠진 부부에겐 풋풋한 사랑을 색다른 추억을 원하는 연인에겐 낭만을 선물할 수 있는 설원 속으로 몸을 맡겨보자.

올해로 13돌을 맞는 '대관령 눈꽃축제(1월 27~30일)'는 지난 10여 년 동안 수백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하얀 눈 가득한 겨울 대관령의 아름다움을 만끽한 세계 10대 눈축제로 꼽힌다.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눈꽃축제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한 다채롭고 이색적인 행사가 흥미롭다. 개 썰매 체험, 알몸마라톤대회, 전통놀이문화체험(인발구, 소발구, 전통썰매 등), 눈사람만들기대회 등은 답답한 회색 콘크리트의 마천루 속에 살던 도시인들에게는 설원 속 낭만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특히 대관령 눈꽃축제가 아니고서는 경험하기 힘든 개 썰매 경험은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8마리의 개들이 끄는 개 썰매를 타고 약 1.5km의 설원을 달리는 당신은 이미 북극의 설원을 누비는 에스키모.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눈축제의 열기에 흠뻑 빠지다보면 어느새 즐거운 식사시간이다. 혹시 축제행사장엔 밥값이 너무 비싸다고 미리 겁먹는 것은 기우다. 행사장 전역에 마련된 이 지역 특산품인 감자를 관광객을 위해 모닥불로 구워 무료로 나눠주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행사장 내에 모닥불을 피워서 야외에서 멧돼지 바비큐를 맛 볼 수도 있다.



태백산 눈축제중 환상의 은하수 조명쇼.

또한 1월 21~30일 열리는 태백산 눈꽃축제도 흥미롭다. 태백산 도립공원 당골광장에서 열리는 이 행사의 볼거리는 역시 세계눈조각가초청전, 전국대학생눈조각경연대회에 출품된 높이 5m, 길이 6m의 대형 눈, 얼음 조각품들이다.

하얀 눈 덮인 설원에 전시된 스핑크스상, 유니콘, 쌍용, 독수리 조각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장엄함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행사장에서 열리는 마당극과 록 밴드의 음악공연, 추억의 먹거리 시식 이벤트도 놓칠 수 없는 볼만한 축제의 다크호스다.

이런 눈꽃축제 행사를 마친 후 태백산 적멸보궁 정암사와 대관령 보현사에 잠시 들러 여행에 지친 몸과 마음을 비우고 일상으로 돌아감을 마지막 여행코스로 정함은 어떨까.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눈꽃축제 프로그램 및 일정

		태백산 눈축제				대관령 눈축제			
공연		1월 22~30일 12:00~12:30-가요, 팝, 락 공연 1월 22~30일 12:30~14:00-마당극, 사물놀이, 무술시범				29일 13:00~17:00-한국의 소리, 강원의 소리공연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		환상의 은하수 조명 쇼, 얼음미로체험, 컬링, 앉음뱅이 얼음썰매, 게이트볼, 추억의 먹거리 장터, 알몸마라톤대회(23일,5 · 10km단축마라톤)				눈사람 만들기 대회, 눈꽃백일장, 눈꽃등산, 소발구, 인발구, 눈꽃노래자랑, 개 썰매			
찾아 가는 길	시외버스	출발지	첫차	막차	운행횟수	출발지	첫차	막차	운행횟수
		동서울	06:10	18:30	23회	동서울	06:32	17:10	12회
		인 천	07:30	14:30	4회	인 천	06:30	18:40	13회
		대 전	07:10	13:30	3회	대 전	08:01	18:35	9회
		대 구	07:50	20:10	12회	대 구	07:00	19:00	9회
		광 주	07:00	17:30	6회	광 주	07:00	17:30	6회
		부 산	05:56	13:57	5회	부 산	05:56	18:40	5회
	기차	청량리	12:00	22:00	6회	청량리	11:00	19:00	10회
		동대구	11:01	15:30	2회	동대구	11:00	15:30	2회
		부 산	14:00	-	1회	부 산	14:00	-	1회
	승용차	수도권: 경부 · 중부고속도(신갈 · 호법IC)-영동고속도(남원주IC)-중부고속도(제천IC)-영월-태백 영남권: 경부고속도(서대구IC)-중앙고속도(영주IC)-영주-봉화-태백 충청권: 대전-충주-제천-영월-태백 호남권: 88고속도(서대구IC)-중앙고속도(영주IC)-영주-봉화-태백				수도권: 경부 · 중부고속도(신갈 · 호법IC)-영동고속도(횡계IC)-456번국도(평창) 영남권: 중앙고속도-만종분기점-횡계IC-456번국도 충청권: 중부고속도(호법IC)-영동고속도(횡계IC)-456번국도 호남권: 88고속도-중앙고속도(만종분기점)-횡계IC-456번국도			

산사서 별보는 재미 별나네

도피안사, 19~21일 어린이 천문학 교실

안성 도피안사는 제2회 불교어린이 천문학교실을 초등학교 4~6년(중 · 고생 가능)을 대상으로 선착순 50명에 한해 1월 19~21일 운영한다.

천문관측 지도는 이시우(前 서울대 천문학과) 박사가 담당하며 교육진행은 '밤별보기(19:00~23:00)', '새벽 별 보기(04:00~06:00)', '별의 세계와 불교의 우주관' 강의 등으로 이루어진다. 참가자들은 천체 망원경(구경 220mm, 쌍안경 배율15 · 구경 80mm)으로 각종 성운과 달, 행성 등을 직접 관측하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031)676-8700

노병철 기자



천체망원경을 통해 별자리를 보는 어린이들.

전시

고판화 보고 떡도 만들고

치악산 명주사 '나무-붓 · 칼 · 종이의 만남' 展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에 전시되는 고판화 반야심경(33.4×16).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선학 스님)은 '나무-붓 · 칼 · 종이의 만남'전(展)을 본관 상설전시장에서 1월 3~3월 30일 연다. 이번 전시는 사라져 가는 우리 선조들의 고판화의 흔적을 다양한 분야로 발굴하고 정리하여, 그들의 판화사랑을 현재적 시점으로 다시 한번 꽃 피우는 계기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 전시회의 특징은 능화판, 시전지판 등에 국한된 기존 고판화 전시의 지엽적인 틀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고판화의 세계를 조명했다는 것이다. 흔히 볼 수 없는 채색판화가 출시되며, 공개되지 않았던 다양한 민화판화들을 볼 수 있고, 판화로 찍어진 조선시대의 목판본 서책 등 총 100점이 전시된다.

특히 국사 교과서에 자주 등장했던 익살스런 호랑이와 까치의 모습을 담아낸 '까치와 호랑이 8죽 병풍', '십장생 채색판화' 등이 눈길을 끈다.

또 직접 판화도 찍어보고, 떡살을 이용하여 떡도 만들고, 찰흙을 이용해 조각품도 만들어 보는 체험의 장도 준비돼 있다. (033)761-7885 노병철 기자

공연

신비 · 감동 전하는 그림자극

국립극장 '마늘 먹는 호랑이' 23일까지



창작그림자극 '마늘 먹는 호랑이'의 한 장면.

완성도 높은 작품성과 창작성을 가미한 인형극이 겨울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을 찾아간다.

극단 '길'은 국립극장 별오름 극장에서 춘천 국제 인형극제에서 대본상을 수상한 그림자극 '마늘 먹는 호랑이'를 1월 2일~1월 23일 공연한다.

이 작품은 어린이에게는 자연의 소중함과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현재 아동극 전반에 팽배한 명작위주의 공연 문화에서 탈피함으로써 연극계에 새로운 활기를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작품은 사람과 인형, 그림자 형식이 환상적으로 조화를 이룬 것으로 민족의 영산인 금강산을 배경으로 사람이 되고 싶은 호랑이의 전설을 그린 작품. 이 작품을 통해 사람의 탐욕과 진실, 동물에 대한 사랑과 우정을 화려한 그림자 배경과 실제 금강산을 재현한 듯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다.

한편 공연을 보고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직접 재연할 수 있는 시간과 그림자극에 대한 실습과 원리 이해를 위한 특별과외도 마련돼 있다. (02)934-2830 노병철 기자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십이지신상-닭(酉)

2005년 을유년에는 '십이지신상-닭'을 소장하여 소원을 빌어보자. 예부터 우리네 조상들은 닭을 풍요와 다산, 지혜를 밝히는 등불, 권세의 상징으로 생각했다. 사업 번창과 학업 성취를 바라는 이들에게 '십이지신상-닭'은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색상은 금 · 주석 · 구리 · 황동 등 4종류가 있다. 크기 5.5×8cm, 가격 2만 5천원.(02)732-1520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서울 FM 101.9 MHZ / 부산 FM 89.9 MHZ / 광주 FM 89.7 MHZ / 대구 FM 94.5 MHZ / 청주 FM 96.7 MHZ / 춘천 FM 100.1 MHZ

17일 14:05 음악의 마을
18일 17:10 무명을 밝히고
19일 18:15 뉴스 파노라마
20일 10:05 BBS신행상담실
21일 20:05 마음으로 듣는 음악
22일 12:10 황승환의 뮤직펀치
23일 07:40 참선이야기

Btn 불교TV —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17일 23:40 한국의 명찰
18일 14:30 불교TV 메디칼
19일 1:10 명상음악산책
20일 12:00 산중대담 선지식을 찾아서
21일 19:30 특집-통도사화엄산림(종범 스님)
22일 16:40 부처님경전이야기
23일 21:50 혜정정사의 밀교수행강좌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정목 스님의 마음으로 듣는 음악(1월 21일 저녁 10:05~10:55)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정목 스님의 정겨운 입담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틈틈이 소개되는 명상 시 감상을 통해 삶의 힘겨움을 잠시 놓을 수 있다.

■**불교텔레비전**: 불가비전수행 선무도(1월 22일 저녁 8:30~9:10) 이번 주에는 동적 요가인 오체유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발 뻗고 윗몸 숙이기', '발 세우고 고개 들고 윗몸 숙이기', '몸틀기' 동작 등을 익혀 굳은 몸을 풀고 지친 마음을 충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제10회 신행수기 입상작
특별상(종단협의회장상)

슬픈 눈물과 기쁜 눈물 (상)

김성식 (대전시 중구 부사동)



그림 · 문병성

장교가 되겠다는 당찬 꿈을 키우던 어느날 갑자기 쓰러져 입원했으나 병명조차 몰라…

속리산 법주사 미륵 부처님 앞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관광객이 빽빽이 들어찼는데도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다. 하염없이 절을 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서글픔이 물밀 듯이 몰려왔다. 육신의 힘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빠져나간듯 하여 배를 웅크린 채 눈물을 펑펑 쏟았다.

올 때는 버스를 타고 왔는데, 갈 때는 기력이 다 떨어져 기다시피 법주사 일주문을 나서서 택시를 탔다. 간신히 택시 문을 열면서도 속으로 '지금 내가 무얼 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아무리 강한 의지와 끈질긴 집념을 불태우며 살았다 해도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괴로움과 맞서야하는 용기와 힘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할지 그것부터 막막했다. 이해할 수도 극복할 수도 없는 막다른 길목에서 맞부딪친 느낌이었다. 누구라도 좌절감과 불안과 공포로 마음이 가득 차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변의 조언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올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충고와 권유대로 열심히 따랐지만 상황은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그때의 심정은,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해 화가 치밀기도 했지만 인간의 두뇌로 어찌해볼 도리가 없어서 그냥 주저앉는 기분이었다.

부모님은 택시비를 준비해 대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셨다. 병명도 밝혀지지 않은 채 세월을 보내다가 큰 사찰을 찾아가는 병든 아들을 도울 수 없는 부모님의 심정은 얼마나 가슴 졸이고 안타까웠으랴.

나는 어릴 때부터 또래 아이들보다 체격이 컸다. 언제나 제일 뒷자리를 배정 받았고, 나를 힘으로 대적할 친구는 없었다. 그래서 일찌감치 나는 꿈을 무관인 육군 장교로 정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키지도 않은 목표를 세워놓고 보니 스스로가 너무도 대견했다. 친구들 앞에서 잘난 체를 하고 장교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며 말을 할 때는 누구도 나의 이론을 따라 올 자가 없었다.

중학생이 되면서 헬스클럽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니며 체력관리에 힘썼다. 학업성적은 중위권에 머물렀다.

부모님은 공부보다 체육관에 열심인 나에게 반대는 하지 않으셨고, 때때로 공부에 대해 방향제시를 하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인정하고 밀어주셨다.

고등학교에 가서야 겨우, 장교가 되려면 체력도 중요하지만 공부 또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친구들이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부모님을 졸라 과외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고3이 되어 해군 사관학교에 시험을 쳤는데 영어점수가 턱없이 낮아 보기 좋게 떨어졌다. 이때부터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좌절감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려하니 죽을 맛이었다. 나는 대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육군 헬기 조종사 시험에서도 낙방하고 나서야 담임선생님과 상의한 후 성적에 맞는 대학에 입학했다. 진학한 후 학군사관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당장 신청했다.

학업성적, 체력검사, 신원조회를 마치고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한없이 기뻤다. 더구나 장교로서 장래가 보장되고 4년 동안 군(軍)장학금을 준다니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받는 장학금은 졸업 후 군복무를 하면 급료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나는 일찍부터 자력으로 대학을 다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부모님에게 크게 효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체적으로 내 친구들은 은연중 군 입대를 꺼려하는 기색이 보였다. 그러나 오히려 나는 어서 빨리 세월이 흘러 빛나는 장교복을 입고 싶었다. 장교가 된 멋진 모습을 상상하며 도취되곤 했다.

친구들은 내 생각과 달랐지만 그렇다고 정면으로 나의 의견을 반박하지 못했다. 당시 내게는 그들이 꿈도 없고, 희망과 목표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대학 2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더위 먹은 것 같이 몸이 나른하며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병원에 갔는데 급성 A형 간염이라며 10여 일간의 입원을 권했다.

그동안 건강하다고 자부해 왔던 내가 쓰러지다니… 지켜보던 부모님 앞에서 황당한 기색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때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곤하여 약국 문을 자주 드나들며 한 학기를 마쳤다.

이듬해 봄. 집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학교 옆에서 후배들과 자취를 하려고 했다.

첫날. 후배들과 자취방에서 보내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려 견딜 수 없었다. '이러다 사람이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웠다. 후배들을 깨우지 않고 혼자서 응급실에 도착하여 입원을 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께 연락하면 크게 놀라실 것 같아 그냥 참고 날이 밝아서야 연락을 했다.

응급실에 실려 오는 다양한 사람들 중에 내가 끼어 있는 것이다. 그것도 뚜렷한 이유 없이 어정쩡하게…

부부싸움을 하다 가스를 폭발시켜 화상을 입은 사람, 부모님 싸움에 진절머리가 난다며 농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나지막하게 내뱉는 소리는 모두 공통되게 '살려 주세요!'였다. 의식적으로 죽으려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어 살려달라는 허약함에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다. 이튿날 어머니께서 한걸음에 달려 오셨다.

그 후 지속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다. 웃으며 장난도 쳤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 날부터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음식물만 먹으면 토했다. 입맛도 없어졌다. 보름 만에 몸무게가 15㎏이 빠져 핼쓱해졌다. 넘길 수 있는 것은 물과 멀건 죽뿐이었다. 어서 이 병을 떨치고 일어나 학교도 가야하고, 체력도 길러 군장교도 되어야 하는데, 나는 거꾸로 가고 있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renvy@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으랏~ 차차! 한겨울 차한잔 기운난다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파고드는 겨울. 따뜻한 차 한 잔이 절로 생각난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찻자리는 잦아지고, 봄에 갈무리해둔 차는 서서히 바닥을 드러낸다. '차 춘궁기(春窮期)'에도 차를 마음껏 즐길 순 없을까?

차 보관이 쉽지 않았던 시절에는 단차(團茶) 등의 덩이차나 겨울 찻잎을 따서 만든 '동차(冬茶)'로 겨울을 넘겼다. 한겨울에도 차를 즐기고자 했던 선조들의 차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전남 강진이나 곡성, 경남 하동 등지의 민가에서 상비약으로 준비해두었던 단차는 대표적인 겨울차다. 전차(錢茶)나 떡차(餠茶)로도 불리는 단차는 4~5월에 채취한 찻잎을 시루나 가마에 쪄 절구에 넣고 찧은 후 다식판 같은 틀로 모양을 만들어 햇볕에 말린 것을 말한다. 보통 단차는 곱게 가루를 내어 마시거나 끓는 물에 넣어 맑은 다탕(茶湯)으로 마신다. 집 처마에 매달아 1년 정도 묵힌 단차는 겨울이면 그 진가를 발휘한다. 겨울철 마실거리로서뿐만 아니라 감기에 걸렸을 때나 여행 시에 비상약으로 쓰이는 약재로서도 손색이 없다.

단차는 만들어 말리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보관이 쉽고 끓여 마시기 편리해 조선시대에 즐겨 마셨다. 근대에 들어 엽차(葉茶)문화가 발달하면서 단차의 전통이 끊기는 듯 했으나, 최근 차 동호회나 제다업체를 중심으로 단차를 만들어 마시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흔히 일본 고유의 차로 알고 있는 가루차(末茶)는 삼국시대부터 우리 선조들이 즐겨 마신 전통차다. 신라인들이 가루차를 즐겨 마셨고, 고려시대 때에는 떡차를 가루로 내어 마시기도 했다. 찻잎을 통째로 먹는 가루차는 찻잎의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 때문에 쉽게 활기를 잃기 쉬운 겨울철 비타민C를 보충하는데 제격이다.

겨울에도 잎차를 즐기고 싶은 차인들의 바람은 '동차'의 전통을 낳았다. 동차를 만들어 마셨다는 문헌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차를 마시고자 하는 이들이 겨울철 찻잎을 채취해 차를 만들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찻잎을 쪄서 찧은 후 동그랗게 빚어 말린 단차(사진 왼쪽)와 찻잎의 영양을 모두 섭취할 수 있는 가루차는 겨울철 차인들의 '차갈증'을 채워준다.

단차 · 동차 등 지친 몸에 자연 영양소 전달
가능한 뜨겁게, 속 냉한 사람 발효차 마셔야

동차란 한겨울 눈 덮인 숲에서 자란 찻잎으로 만든 차를 말한다. 양력 10~11월에 딴 차는 봄철에 돋아나는 새순에 비해 잎이 뻣뻣하고 맛과 향이 떨어지지만 싱싱한 자연의 기운을 전해준다는 특징이 있다. 근래에는 남도 야생차지기(www.sanjillo.co.kr) 회원들이 눈 속에서 딴 찻잎을 가마솥에 덖고 손바닥으로 비벼 맛을 낸 '동설차'를 재현해내기도 했다.

삼애다원의 '춘설차'도 동차의 일종이다. 광주 증심사 근처 5만여 평의 차밭이 바로 춘설차의 생산지. 해발 700m 위에 만들어진 이 차밭은 1910년경 일본인이 개량해 만든 것을 해방 후 의재 허백련 화백이 인수해 차밭으로 일군 것이다. '춘설차'는 봄눈 속에 갓 돋아난 여린 찻잎의 영롱한 빛깔에서 영감을 얻어 지은 이름으로, 눈이 녹기 전에 돋아난 차의 여린 잎을 채취해 만든 차다.

하지만 아무리 차의 효능이 뛰어나다고는 해도 무턱대고 마신다면 독(毒)이 될 수 있다. <본초강목> 32과(果)에는 "차는 맛이 쓰고 달며 성질은 약간 차고 독이 없다"고 했다. 또한 <신농본초경>은 "위가 허하고 피가 약한 자가 차를 오래 마시면 정신을 상하게 되고 야위게 된다"고 적고 있다. 때문에 겨울에 차를 마실 때는 가능한 뜨겁게 마시고, 몸이 차거나 위가 약한 사람은 우롱차와 청차, 백차, 홍차 등의 발효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여수령 기자



남도 야생차지기 회원들이 눈밭에서 찻잎을 따고 있다. 사진제공=도서출판 김영사



■정다산 유적지 개발된다

조선후기 실학자이자 차인이었던 다산 정약용(1762~1836)의 유배지인 전남 강진군 '정다산 유적지(사적 제107호)'가 본격적으로 개발된다.

지난달 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마친 강진군(군수 황주홍)은 사업비 1,325억원을 들여 5만평규모의 '다산역사테마파크'를 2010년까지 조성한다고 1월 10일 밝혔다.

군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다산이 유배 당시 처음 기거했던 동문샘과 주막, 2년 동안 제자를 가르쳤던 이학래가(家), <목민심서> 등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한 다산초당, 초당에서 백련사까지 이어지는 800m의 오솔길 등을 정비하게 된다. 또한 올해 준공되는 정다산 유적지 교육관과 수련원, 현재의 전시관을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다산은 강진군에서의 유배생활 중 초의선사와 혜장 선사 등을 통해 차와 인연을 맺고 차와 관련된 시와 글 40여 편을 남겼다. <동다기>라는 다서를 썼다고 하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

■氣와 맛으로 보는 한 · 중 · 일 다기전

한중일 삼국의 다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氣)와 맛으로 보는 한 · 중 · 일 다기전'이 2월 2일부터 8일까지 한국공예문화진흥원 별관 2층에서 열린다. 전시를 주최하는 코리아 미라클 아트(www.miracleart.co.kr)는 "기운이 뛰어나고 차와 궁합이 맞아 맛을 잘 살려내는 다기를 엄선했다"고 밝혔다. 전시회에서는 다완과 자사호, 찻잔, 주석차통, 다실에 걸 수 있는 민화와 불화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02)733-9040

■동산불교대학 다도학과 신입생 모집

'다도 포교사' 양성을 위해 설립된 동산불교대학 불교다도학과가 2005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기본과정 3년과 지도자과정 2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은 차의 역사와 한중일의 차문화 강의, 다도고전 강독, 제다실습 등으로 이루어진다. 입학식은 2월 5일, 개강은 3월 8일이다. (02)732-1206



궁중 다방 설치, 차 발전 도자문화에 영향

고려시대 ②

고려가 건국하여 자리 잡고 송(宋)이 중국을 통치하게 되면서 차문화는 더욱 발전하여 병차(餠茶)에서 연고차라는 명품을 만들게 된다. 이에 우리도 고려 초기부터 차문화의 발전에 힘입어 도자문화가 크게 발전한다.

왕실의 여러 행사와 외국 사신 맞이, 불전행사 및 중신회의 때까지 다례를 행했고, 고승과 중신의 상사에도 많은 양의 차를 하사했다. 궁중에 다방(茶房)이라는 부서를 두어 전담관원을 정하고 관장케 했다.

중국도 황실을 중심으로 연고차 시대가 열리므로 공다법(貢茶法)과 전매제도가 생기고 수출이 성행했으니 특히 다마(茶馬)무역은 후대까지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일본도 이 시기에는 실제 왕가나 승가에서 일부 차생활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전한다.

① 도자의 역사는 바로 차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송대의 오와 월의 요지가 가까운 호남의 강진을 중심으로 우리의 청자 생산이 궤도에 오른다.

② 임금이 차를 맷돌에 직접 가는 것을 보고 최승노가 "다방이라는 전담기구가 있는데 선대부터 왕이 직접 맷돌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간했다.

③ 성종이 포(布) 천필, 쌀 삼백석, 차 이백각, 향 20근을 내렸다.

④ 성종이 애도하고 다른 물품과 함께 뇌원차 이백각, 대차 열근을 내렸다.

⑤ 차는 귀한 것으로 취급되었으나 민간에서도 많이 마셨다.

⑥ 국가에서 부의품으로 차를 내리고 예식에 차를 사용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비색 청자의 다기가 생산된 것으로 차문화의 깊이를 알 수 있다.

⑦ 공신 서희의 장례에 뇌원차 이백각, 대차 십근을 내렸다.

⑧ 송의 건국은 중국 차문화를 절정기에 이르게 한다. 가장 기교적인 연고차 시대를 열고, 차에서 생기는 이득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⑨ 오숙(947~1002): 송대 사람. 평소 차를 아주 좋아해서 <다부(茶賦)>를 남겼다.

왕우칭(954~1001): 북송의 문인으로 차를 즐겨 '은사용봉차(恩賜龍鳳茶)'라는 작품을 남겼다.

주욱(朱彧): 북송의 문인으로 <평주가담(萍州可談)> 속에 차 얘기가 많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시대별 연표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고려시대	952 일본 장곡사에 보물 33종을 보냄	송대	960 송의 건국(조광윤) ⑧	헤이안 시대	951 공야상인(空也上人)이 차를 나누어 줌
	959 중국과 무역 증대		연고차 시대		954 천태종의 선희(禪熙)가 어머니 영전에 차를 올림 <부상약기>
	@ 청자공예가 번성하기 시작 ①		공다법		960 다도구(茶道具)라는 어휘가 나옴(인화사어물실록)
	982 공덕제를 위해 왕이 차를 맷돌에 갈다 ②		차의 전매제		970 전다(煎茶)를 금하다(양원)
	천추절(千秋節)에 다례를 행하다		다마무역		980 조다사(造茶使)라는 관직
	983 삼성 육조 삼사(三省 六曹 三寺) 설정				
	원구(園丘)에서 기제를 지냄				
	986 목(牧)에 '권농교서'를 내림				
	987 최지몽의 죽음 ③				
	989 최승노의 죽음 ④		989 <십국춘추>(오임신)에 차 얘기가 나옴		
	80세 이상 노인에게 차를 내림 ⑤		@ 오숙, 왕우칭, 주욱 등의 활동 ⑨		
	993 비색청자의 등장 ⑥		985 요의 여진정벌		
	@ 차가 부의(賻儀)품으로 쓰임		@ 차겨루기에 관한 기록 '투다가(鬪茶歌)'		
	@ 궁중 진다례가 자주 행해짐		992 상평창(常平倉) 설치		
	995 내시다방관원 조정				
	998 서희 사망 ⑦				

차생활 전문지 월간 「다도」



차(茶)를 좋아하신다구요?

차가 궁금하시다구요? 차에 가까이 계시다구요? 그럼 매달, 월간 「다도(茶道)」 한 권 쯤은 보셔야지요. 차생활 전문지 월간 「다도」에는 차 한 잔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차의 역사, 세계의 차문화, 다도구의 미학, 차생활 속의 감동 에세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도를 접하는 순간, 일상은 한층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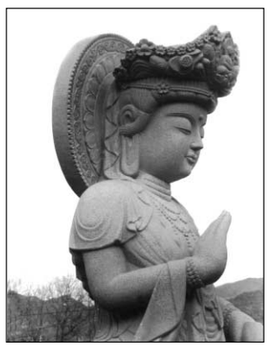
권당 가격 6,500원 | 1년 정기구독 65,000원 문의 : 02)722-7777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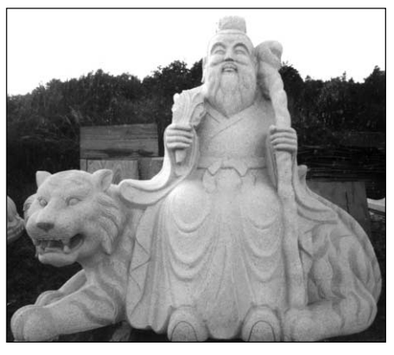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잠깐 쉬었다 가는 이 교차로에서 너를 깨달아라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아니 간사하다기보다는 사람 사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를 맞이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출렁거리고 새로운 무엇을 찾아보려는 그런 마음, 아마 그것이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도리를 잘 알 수 있다면 경거망동을 하지 않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침착하게 질서와 도리를 지키면서 기꺼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할 겁니다.

어떠한 회사든 사찰이든 또 가정이든 간에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나가는데 대해서, 예전에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한식구라면 한마음으로 단결해서 가정을 이끌어나가는 데에 운력하는 마음을 조금도 잃지 말아라. 그것이 그대로 여여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거는 어디를 막론하고 해당되는 얘기지요.

그런데 몸을 버리자니 마음이 울고 마음을 버리자니 몸이 운다는 말이 있죠. 물질을, 즉 몸을 배척한다면 마음은 보이지 않고, 마음을 배척한다면 몸이 또 송장이 되니 보이지 않느니라. 그래서 마음과 몸은 동시에 작용과 운력을 통해서 질서를 지키고 화목을 지키고 또는 도의 의리를 지키면서, 모든 일에 대해 서로 돕고 아끼면서 살아나가는 그것이 선과 교가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넓고 지혜로우면 어리석은 짓을 안 할 것입니다. 권속이 백 명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요, 내 생명과 둘이 아니요, 내 모습과 둘이 아니기에 잘못하는 걸 봐도 전자에 잘못할 때 내 모습 같다고 생각한다면 역시 둘이 아니게 돌아가고, 자비를 베풀 수가 있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이 또 그러니깐요. 그대로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권속들이 좌선을 할 때면 같이 좌선을 하고 운력을 할 때는 같이 일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운력이라는 자체가 너 나가 없이 일이 닥치는 대로 몸을 움죽거림을 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움죽거리는 거를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앉는 좌선만이 공부라고 생각한다면 좌선하는 사람은 방에 앉을 이유도 없고 먹을 이유도 없고 입을 이유도 없어요.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옷 입고, 남이 농사지은 것으로 먹으면서 물질세계의 모든 움죽거림을 거부한다면, 죽은 도를 믿는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상하 사방이 탁 터졌으니 거칠 게 없다는 말이 있는 거지요. 적으나 크나 짧으나 기나 일하는 거나 앉아있는 거나 서있는 거나 모든 게 걸림이 없음이고 통 속을 벗어나야 어리석음을 다 태워버리고 자유자재할 텐데도 불구하고 우정 앉아서 내가 마음공부를 꼭 해야지 하는 것도 물리가 터지질 않은 지혜롭지 못한 이치다 이런 겁니다. 또 생활 속에서는 도를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해도 어리석은 겁니다. 생활 떠나서는 불교가 없고 불교 떠나서는 생활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래요 여러분이 바로 부처인 것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다르게 행동한다면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고 앉으나 서나 일을 하나 하지 않으나 참선이 아닌 게 없다고 생각할 때에, 몸과 마음을 둘이 아니게 침착하게 다스리면서 관하고 나가는 것이며 회향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회향 말입니다.

옛날에 백장 선사도 그랬듯이 하루 일 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마라 했는데 그건 왜 그랬을까요? 미워서 그랬을까요? 정맥과 동맥은 동시에 움죽거려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느라고 그랬지요. 마음이 없으면 육신은 태어나지 않았을 거고 육신이 없어도 마음이 없을 것이니 마음과 육신은 항상 같이 동일하게 움죽거리는데 어찌 자기 몸을 버리겠다고 하느냐는 뜻이죠. 몸이 없으면 부닥침도 없고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부닥침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지요. 양면이 다 가지런히 동시에 움죽거리는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이 선장이 되어 다스리는 것이 바로 안과 밖을 평등하게 다스리는 참(眞)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도 바로 그 자리에서 몸을 다스리는 거요, 가만히 앉았게 하는 것도 그 자리에서 다스리는 거요, 깨닫게 하는 것도 그 자리에서 하는 거요, 물리가 터지게 하는 것도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죠. 내면의 한 구멍에서 일체가 들고 나며 한 구멍에서만이 바다를 삼키고 토한다 이 소립니다. 딴 구멍은 없어요. 그래서 불교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너의 어머니 자궁 속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구나 하시더랍니다. 몸은 탄생했으나 마음이 탄생을 못했으니 다시 한 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 어느 선사의 말이지요. 그랬듯이 우리가 단순하고 어리석어서 현실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면서 어설프게 나가는 그러한 행동과 마음이라면, 개선해야 할 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앉으나 서나 일을 하나 하지 않으나 이 바쁜 세상에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시공을 초월하여 고정됨이 없이 공해서 돌아가는데 어떻게 일하는 게 다르고 공부하는 게 다르겠습니까! 다르다면 생활 속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한시도 쉴 사이 없이 식구들 먹여살리기 위해 사회에 나가서 벌이하는 등 이러고저러고 하다가 몇 시간 눈 붙이면 하루 24시간이 그냥 다 흘러가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공부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것을 떠나서는 진리도 없는 것이고 참선도 없는 것이고, 부처도 없는 것이고 중생도 없는 것입니다.

육조 스님 당시에 토굴에 들어가서 모두들 공부한다고 벽을 쳐다보고 틀고 앉았는데, 육조 스님이 개발이 있을 수가 없고, 마음의 광력이라는 빛이 발현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어떻게 창조를 일으키며 노력 없이 어떻게 개발을 해서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처음에 내디딘 발자국이나 나중에 내딛는 발자국이 항시 똑같았습니다. 잘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진실한 내 마음, 그 진실한 마음으로 지혜롭고 포용력 있게 팔을 벌리고 다 집어먹어야 집어먹을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요. 다 집어먹어보지 않는다면 다 집어먹을 게 없다는 걸 몰라요. 또 다 버려보지 못한다면 다 버릴 게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다 버려서 얻는다고 한다면 바로 다 삼키고 다 토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사찰에서도 운력을 제대로 못하고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또 화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집어삼키고 토할 수 있겠느냐 이 소립니다. 안 그래요?

이 몸뚱이의 집은 못생겼든 잘생겼든 상관이 없이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다 집어넣어도 작지 않으니까 모습을 보고 못생기고 잘생긴 걸 평가를 한다면 아니 됩니다. 사람들의 몸은 작든 크든 간에 만 명이든 수십만 명이든 천만 명이든 헤아릴 수가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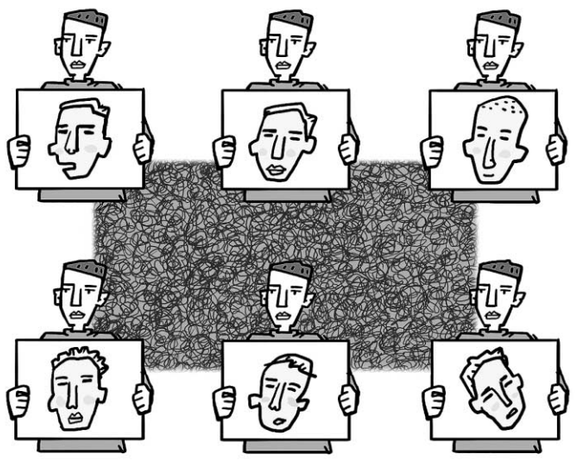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시공을 초월하여 고정됨이 없이 공해서 돌아가는데

어떻게 일하는 게 다르고 공부하는 게 다르겠습니까!

들여다보고 하는 소리가, 참선을 하려면 밥도 먹지 말고 오줌도 누지 말고 일어나지도 말고 옷도 입지 말고 남이 떠오는 물도 마시지 말아야겠구나. 일어나면 선이 끊어지고 오줌을 누다 보면 선이 끊어지고 옷을 입다 보면 선이 끊어지고 밥을 먹다 보면 선이 끊어지는데 어찌 그렇게 하겠느냐 했더랍니다. 생각들을 해보세요. 모두가 혼자 살 수 없는 사실을 말입니다. 농사를 짓고 산다 하더라도 혼자 살 수 없고, 회사를 경영한다 하더라도 혼자 살 수 없고, 또 사찰에서도 시주자들이 없다면 스님네들이 살 수 없으며 스님네가 없으면 시주자들이 믿고 배워 나가며 행을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첨단을 넘을 수 가 없는 이치가 되니 서로서로 둘이 아니게 시공을 초월해서 고정됨이 없이 화해서 나투게 되는 것입니다. 참나참나 우리가 마음이 바뀌지면서 나투면서 응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몸속에 있는 자생중생들을 먼저 제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도해라 하기 이전에, 즉 일체 사는 거, 움죽거리는 거 안 움죽거리는 거를 한 구멍에다 다 놓고 돌아간다면 앞서의 입력된 것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입력이 들어가서 현실에 나오니, 그것이 얼마나 심성과학적이고도 천체물리학적이고 의학적입니까? 나중엔 철학적이기도 하고 천문학적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인들보다도 더 한층, 스님들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지 않고 개선할 줄 모른다면 마음의 장설 수가 없거니와 목석과 같은 거겠죠. 오늘 살다가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지금 죽는 한이 있더라도 쾌활하고 날로 발전하며 살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내가 빠지면 이 옷만 남게 해야지요.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이 모든 것을 알고 보면 하루 한나절 올어도 시원치 않을 겁니다.

탤런트들이 왜 서슴지 않고 배역을 맡아가지고 연기하는 줄 아십니까? 탤런트들이 왜 거지 역 죽는 역 임금 역 머슴 역, 뭐 사기 치는 역 사기를 막는 역 등 그렇게 어려운 배역을 맡아가지고도 왜 좋다고 할까요? 배역을 맡지 못하면 안 되고 배역을 맡아야만 좋아할까요? 그건 드라마가 끝나면 다 버리고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배역에서 벗어나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온 자리를 알고 갈 자리를 안다면 걸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탤런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탤런트들이 잠시잠깐 배역을 맡아서 대사를 외우고 연기를 하는데, 거지의 역을 맡았든지 임금의 역을 맡았든지 상관없이, 감독한테 뽑힌 게 좋아서 아주 쾌히 응하는 그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아마 내내 거지로 박혀서 살라고 한다면 전부 꽁무니를 빼고 안 하겠지요. 그러나 잠시잠깐이거든요. 잠시잠깐이니깐 돈도 벌고 이름을 가지고, 또 그렇게라도 나가지 않는다면 아주 끊어질까봐 그렇게 하는 거지요. 꼭 그 말대로는 아니지만 보통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활약을 하다가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나면 속이 후련하게 슬 한 잔을 마시든가 하면서 탁 털어버리고 원점으로 돌아왔다가 또 다시 배역을 맡으려고 하는 그 점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며, 어디로 가기 이전에 무엇을 하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탤런트들이 배역을 맡는 것과 똑같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원점에서 와서 원점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또 다시 소임을 맡아 가지고 나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 어떠한 소임을 맡았든지 겁이 나지를 않아요. 잠시잠깐이기 때문이죠. 우린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잠시잠깐 쉬었다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쉬었다 가는 이 교차로에서 너를 깨달으라고 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 이치를 모르고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모습으로 형성이 되어 이 세상에 다시 나와서 또 괴로운 고비를 넘겨야 하니까요. 마음을 아주 팽팽하게 가지면서도 지혜롭고 폭이 넓게, 준 사이 없이 다 내주고 또 들여놓을 때는 들여놓는 사이 없이 다 들여라 이 소리입니다. 모두가 너그럽고 좀 더 지혜롭다면 포용력 있게 질서를 지키고 도의를 지키고 나와 네가 둘이 아니게 의리를 지킬 수 있겠지요. 또 과거나 현실이나 미래나 내가 수억겁 광년을 돌아올 때 무엇은 안 됐고 무엇은 어리석게 안 했겠는가 하고 한번 침착하게 생각해본다면 나 아님이 하나도 없어요. 미우나 고우나 말입니다. 잘못해도 불쌍하고, 비록 잘못한다 해도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산 것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 얼마나 눈물나는 얘깁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깁니까! 강도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 과거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현실에 짊어진 가정환경으로부터 오는 걸 볼 때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지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저 사람 괜히 저러는 거 아냐?' 할지 모르지만 괜히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내 자식이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어요. 공동묘지에 가니까 남녀노소가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늙었더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요. 나는 그전부터 군더더기가 붙는 거는 싫어요. 그래서 말 잘하든 못하든 그저 실천하는, 참(眞)을 얘기할 뿐입니다. 남들이 듣기 좋게만 하는 사람은 못됩니다. 삶에 실천으로 옮길 수 있고 실천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죽으면 묘지를 쓰고 제사를 지내고 또 이사를 갈 때는 손을 본다고 합니다만, 나쁘다고 하는데 이사를 가면 안 된다는 점과, 제사 지내고 묘지 쓰고 묘지를 파내는 것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모두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할 점이 있죠. 첫째, 묘지를 쓸 때엔 우리 자체가 바로 지수화풍인 까닭에 지신과도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땅을 관리하는 흙과 지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흙이 지신이라는 얘깁니다. 얼른 말해서 흙도 생명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흙에도 생명이 있다는 거 아시죠? 물도 생명이 있고 바람도 생명이 있고 불도 생명이 있어서 한데 모여 동참을 하니까 공기로서 인간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신도 나요 목신도 나요 그 영혼 자체도 둘이 아닌 것이요, 영혼과 영혼을 한 물에다 집어넣으면 한 그릇이지 두 그릇이 아닙니다. 영 해도 물이 아니요 영, 영, 영 해도 둘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앞에 닥칠 때 방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하는 얘깁니다. 이게 문제가 아주 큰 것 같아 새해를 맞이해서 한번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을 때도 주인공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으로 절을 하면 모두가 혼합이 돼서 전부 빈손이 돼 버려요. 그러면 산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없게 되죠. 땅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산소를 파낼 때도 흙이 지켜줬지 않습니까. 여직껏 지켜줬으니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흙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물 한 그릇에, 혹 어떤 사람은 떡 한 그릇을 해놓는 등 이것도 두 층 세 층이 있습니다. 이 도리를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물 한 그릇을 떠놓지 않아도 바다를 갖다 놓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다를 갖다 놓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갖다 놓고 지내는 것이 되지요. 그런데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에 한해서는 물, 향, 초를 준비하고 또는 땅의 고마움을 해결하고 땅을 파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걸리 한 통에 안주라도 준비해 놓고 절을 올리면서 주인공에 모든 거를 맡겨 놓고 파내면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도리를 아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스님한테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으니 마음 좀 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자기가 거기에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전부 따로 흩어지니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만 모두들 보이지 않는다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걸 모르고도 당하고 알고도 당하는 사람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를 가는 얘깁니다. 어느 집이나 이사를 가는 데는 반드시, 우리들이 지금 공부하고 나가는 도리를 응용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저 관습 때문에 '이사를 가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부터 하는 겁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것은 둘

☞30면으로 계속

한 구멍에다 다 놓고 돌아가야

☞29면에서 계속

째고, '이사를 가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부터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부터 앞서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 다니면서도 몰래 빠져나가 어디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죠. 뭐 토정비결을 안 보나 점을 안 치나 관상을 안 보나,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뛰어내리면 죽는다 하는 삶과 죽음의 교차로에서 바로 성립이 되는 거지, 무난하게 가는 데서 성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깨우침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뛰어넘을 수가 없을 그때에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고통스러워서 한 발짝도 떼놓을 수 없으리만큼 격할 그때 요절이 나는 거지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은 데서 뭐가 요절이 납니까? 깨지든지 다른 큰 그릇으로 바뀌든지 해야 뭐가 되는 거지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딱따구리가 나무를 뚫듯이 그저 끊임없이 안으로 뚫으라는 거지요. 운력을 하고 싶지 않아도 '운력을 하게끔 주인공이 만들어 놨으니까 해야지' 하고 오로지 뚫기 위해서 거기다 놓고 자꾸 뚫어라 이겁니다.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뚫어지지 않고 찔깃찔깃하게 겹겹이 붙어 있는 거를 뚫으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뚫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거죠. 뚫는 거는 마음의 선장밖에 뚫을 수가 없어요.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이 묘지로 그냥 벽지 바르듯 했다고 해도 모든 것을 주인공에 합일시킬 수만 있다면, 진짜로 믿고 '모두가 들이 아니기에 당신만이 이 터를 편안하게 할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가 놓고 말기라는 거죠. 이것이 방편이자 진실이고 진실이자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손이 없는 날 가야 하느니 손이 있는 날 못 가느니 하면서,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다른 일로도 괴로운데 그런 것마저도 괴로워서 되겠습니까? 정말 잘못 가면 곱사도 되고 일이 벌어져서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얘기 안 해드릴 수가 없군요.

그러니 큰 방편인 줄 아시고 허방지방하고 무꾸리 하러 다니지 마세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허방지방하다가 내생에 또 올 때도 허방지방하게 온다면 세세생생에 허방지방할 겁니다. 그러니 이번 쉬었다 가는 길에 배워서 아주 뿌리를 뽑으세요. 그리고 재사 지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인공에 모든 조상들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영령들이 그 속에 들어가보니까 확 뚫렸거든요. 모두 이 공부를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체제불의 마음과 일체 중생이 둘이 아니게, 곳곳마다 통하지 않는 데가 없고 곳곳마다 보이지 않는 데가 없이 탁 뚫렸으니 뭘 바라겠어요. 모두 하나가 되지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서 이 세상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이 없지요. 우리가 완벽하게 안다면 우리 마음이 벌써 다 모셨고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판결을 한 거지요. 더하고 덜함도 없이 배고프다 배고프지 않다도 없이…. 즉 말하자면 도리천좌에 전부 한자리를 하게끔 하는 거지요. 그러는 반면에 위패나 천혼문이 필요 없지만 그런 걸 모르는 분에 한해서는 위패는 써놓되, 물 한 그릇 떠놓은 데다가 소하라는 거는, 영혼을 붙들어 매놓으면 거기에 영혼이 부착이 돼 가지고 산 사람도 귀찮고 죽은 사람도 귀찮기 때문에 위패를 해놓더라도 태워야 하고 천혼문을 썼더라도 둘 다 다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차리는 음식을 '사람이 먹는 거지 귀신이 먹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 보세요. 그렇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 한 그릇에 그저 과일 서너 가지 해놓고 많은 물, 초, 향이면 이 세상이 다 엎어져도 궁색하지 않을 겁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듯이 모든 조상들이 다 한자릿 하게 되면, 그래도 손이 들이굽지 내굽겠습니까. 모두가 그러합니다. 그러한 이치를 모르고 형식적으로만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온통 이런다면 돌아가신 영령들을 기리는 게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지나 않을까 하는 의심은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집에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피를 토하고 죽곤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지은 집인데 그 집만 들어가서 살았다 하면 그냥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냥도 죽지 않고 피를 토하고 죽는데 어디다 물어보고 아무리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은 들어가고 또 그냥 그렇다 싶으면 나가고 또 들어가고 나가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수 해 동안 수십 명이 죽었다 합니다. 그것도 멀지 않은 데서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주 판 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는 '칼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물이 아니니 그것도 바로 나지.' 하고 밥을 지어서 큰 그릇에다가 떠놓고는 물 한 그릇, 향, 초를 켜놓고 과일 세 가지를 차려놓고, 너와 나와 한잔하자 하면서 "들이 아닌데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고통받고 죽었다면 우리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와야지 어떡하겠느냐" 하면서 대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리다시피 한 집을 그저 술값 정도 집어주고 사버렸어요. 그 후 아주 잘됐지요. 주위에 있는 논 삼분의 일은 다 사들였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인과 부하가 들이 아니게 잘 살고 오히려 자식들을 잘되게 도와주고 삽니다. 자기라는데 어떻게 안 도와줍니까? 자기를 자기가 죽일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사를 가는데도 너와 나를 두 편으로 가르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거를 주인공에 넣고 다 그냥 한데 합치는 거죠. 마음 놀음으로 인해서 도깨비가 되고 마음 놀음으로 인해서 선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타격을 받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럼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자1: 새해에도 법체 강건하시어 단비 같은 법문을 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중생들에게 한량 없는 법의 양식을 주시고 또한 저에게도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스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마음공부를 하지 못했다면 우리 집안은 진작 파산이 되고 저는 이제까지 살지도 못했고 또한 병고액난으로 지옥 같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갑술년 새해를 맞아 우리 중생들이 무한한 법을 청합니다.

▲스님: 나로서는 신도님들의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한데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실천만 제대로 한다면, 그건 이 세상을 간파할 때 땅을 치고 울고 하늘을 쳐다보고 웃으면서 결심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자.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게 바로 내가 이 세상을 두루두루 돌면서 고통받은 것이지.' 하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드리지 않습니까? 잘 실행하세요. 그것만 잘 실행한다 하더라도 살아나가는 데에 생활이 거기에 부착되니까 고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실천하고 체험하면서 개선해나갈 거는 개선하면서 나가세요.

▲질문자2: 사실 요즘 현대는 과거보다도 상당히 생활이 편리해졌고 풍요스러워졌지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히 마음이 조급하여야 세계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 받아들였으면 바로 세계적으로 내보내야 할 지혜로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되게끔 관해야 합니다.

또 지금 사업가들이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가는 형편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좀더 마음이 넓지 못한 까닭인지 몰라도 모두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 제한을 조금 풀어 주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넓혀주면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또는 조그만 사업체들을 큰 사업가들이 좀 똘똘 뭉쳐서 돌봐주는 마음과 정부에서 돌봐주는 마음이 한마음으로서 구성이 된다면, 앞으로 발전되어서 우리나라에 경제혼란이나 또는 어떠한 거라도 타개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구요. 또 사람들이 모두 정신계를 추구하고 가야 할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물질계에서 헤매이고 온통 이론으로만 나간다면, 절대로 성립을 못한다는 것이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기를 들여다볼 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 모르고, 발전을 해나갈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 마음공부를 모두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라면 꼭 그렇게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세요. 모두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게 우리 사회 국가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질 것입니다.

오늘 모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살아나가면서 생기는 모든 일은 주인공 자리에 몰록 놓아 타파할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진실로 믿고 놓는다면 바깥으로 끄달리지 않으니 잘못될 이유도 없어요. 바깥으로 끄달렸다 하면 잘못되는 공부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천 가지 만 가지로 화해서 나온다 하고 부처로 보이고 거지로 보이고 마구니로 보인다 하더라도 허허 웃고 '한 구멍에서 나오는 것을 왜 내가 속아서 이러구저러구 하랴. 공부시키려고 그러는 것을.' 하고 거기다 되말겨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차로를 뛰어 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76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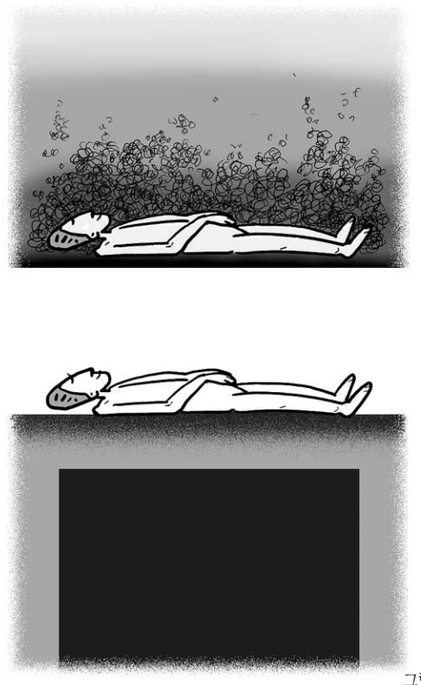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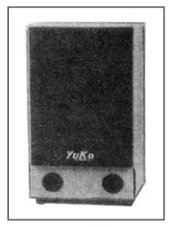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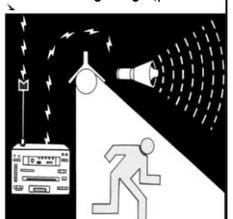
딱따구리가 나무 뚫듯 그저 끊임없이 안으로 뚫어라!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바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승복 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조끼 60,000 두루막 170,000

3. 면 솜없이 누비(한국산 숯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10,000
조끼 60,000 두루막 160,000
4.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10,000 동방, 바지 250,000
조끼 70,000 두루막 200,000

5. 모직 특수솜 누비(물세탁)
적삼, 바지 240,000 동방, 바지 290,000
조끼 80,000 두루막 23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제일모직 250,000
실크 · 금낭 준비되어 있습니다.
7. 가사 대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 기타 : 스님 차이나 남방, 니트, 니트모자, 마후라, 가방, 신도용 쪼끼, 바지 준비되어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4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쑥뜸을 하면 무병장수한다
- 오행 쑥뜸기 좌훈기 전통 좌훈요법 첨단기술 접목 -
- 여성 항문 질환, 산후 질 팽창과 요실금 등 -
- 연기, 화상 위험이 없는 쑥뜸기, 쑥좌훈기 출시 -

오행 쑥뜸기
적용혈자리 : 중완혈, 신궐혈, 관원혈, 천추혈
(아랜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기미, 복부비만, 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자궁근종, 위염, 장염, 변비, 성기능개선, 불면증, 당뇨개선, 고혈압

오행 좌훈기

음양 쑥뜸기 (무릎관절용)
적용혈자리 : 회음혈
(아랜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변비, 치질, 생리통, 냉대하, 전립선염, 성기능개선, 신경성과민대장염, 갱년기 장애
적용혈자리 : 백회혈, 견정혈, 대추혈, 명문혈, 독비혈, 족삼리
(아랜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무릎 관절염, 오십견, 요통, 두통
- 제품의 특징 -
*연기가 100% 실외로 배출된다. *타이머가 장착되어 편리하다.
*ISO9001 인증제품-쑥뜸기, 좌훈기 *쑥뜸 시 화상위험이 없다.
제품 구입시 쑥 한달분 무료 증정
오행쑥뜸방 모집중
D.M.I 산업
모사포유 www.moxa4u.com
대구한의대학교
인체 바이오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주문 및 상담전화 : 02-598-9834

직접 만드니 환희심 나요

불황의 여파로 D.I.Y.(Do it Yourself) 열풍이 불고 있다. D.I.Y.는 장갑, 목도리 등의 의류에서부터 가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직접 만들어 쓰는 것을 말한다. 불자들이라면 사찰에 갈 때 필요한 경전가방이나 염주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비교적 한가한 주말에 2~3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적은 비용으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자신만의 불교용품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직접 만들어 애정이 깃든 불교용품을 들고 사찰에 가서 신행활동을 한다면 더욱 환희심이 나지 않을까.

■ 자신만의 불교용품 만들어 보세요

■ 합장주



햇수로 11년째 조계사 청년회에 다니고 있는 현원영(31)씨는 군복무 때 군법당에서 스님에게 합장주 만드는 법을 전수받았다. 틈틈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할 합장주를 만들기 위해 아예 색색가지 구슬이 들어있는 가방을 차 뒷좌석에 넣고 다니는 그는 "직접 만든 공예품을 주변에 선물할 수 있는 것이 D.I.Y의 매력"이라고 말한다. 현씨는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지만 손에 익으면 5~6분 만에 하나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쉽다"고 귀띔했다.

■ 필요한 도구

합장주용 끈(불교용품점에 가면 구할 수 있다), 구슬(지름 6mm) 30~40개

■ 만드는법

① 끈을 넉넉하게 잘라 구슬을 손목둘레에 맞게 꿴다. 지름 6mm의 구슬을 꿸 때 여자는 27개 정도, 남자는 31개 정도 들어간다. 구슬을 다 꿰고도 양 끝을 10cm 정도 남기고 끈을 자른다.

② 끈 양쪽 끝을 매듭짓는다. 실 끝을 손가락에 감고 짧은 쪽 실을 긴 실 밑으로 교차시킨 후 위로 올려 고리 사이로 집어넣어 우측 아래로 뺀다.

③ 나온 실을 다시 손가락 쪽으로 해서 좌측 위에서 아래로 빼내면서 당겨준다. 이렇게 좌우를 번갈아 10여회 정도 반복하면 매듭이 지어진다. 긴 쪽 실을 당겨서 매듭 모양을 정리해준 다음 반대쪽도 똑같은 매듭을 지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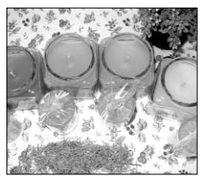
④ 양 끝에 매듭을 맺은 끈을 둥글게 교차시킨 후 새 끈 하나를 가운데에 묶어준다.

⑤ 새 끈으로 가운데 매듭을 짓는다. 실로 원을 만들어 위로 올라간 실은 밑으로 넣어주고 밑에 있는 반대쪽 끝은 고리 위로 빼내어 당기면서 10여 회 반복한다. 완성하면 단단히 당긴 후 실 끝을 불로 지져 올이 풀리지 않게 한다.



"한번 매듭 지을때 마다 손가락 끝으로 확실히 당겨 주세요." 불자 현원영씨가 합장주를 만들고 있다.

■ 허브향초



사찰에 가면 언제나 부처님 전을 밝히고 있는 양초. 꼭 예불을 올릴 때가 아니더라도, 쌀쌀한 겨울바람이 부는 요즘이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집안 분위기를 따스하게 바꿔보고 싶을 때 양초가 제격이다. 웰빙 코드에 맞춰 건강까지 생각한 허브향초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허브앤데코 대표 박경씨는 "허브향초는 타면서 방안에 은은한 향기가 퍼져 아로마 테라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하며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라벤다나 로즈, 피로회복에 좋은 카모마일, 타임" 등을 추천했다. 다음은 박씨가 알려준 허브향초 만드는 법이다.

■ 필요한 도구

파라핀(양초원료), 굵은 면실, 좋아하는 허브 분말, 허브잎, 에센셜 오일, 성형 용기, 색소(색을 넣고 싶은 경우에 사용)

■ 만드는법

① 양초 원료를 중탕으로 서서히 가열하여 녹인다.(색깔을 내려면 색소를 첨가한다)

② 면실을 녹은 양초 원료에 담갔다가 꺼내어 굳혀 놓는다.

③ 다 녹은 양초 원료가 굳기 전에 에센셜 오일을 2~3방울 떨어뜨려 잘 젓는다.

④ 준비된 성형 용기 안쪽에 허브 잎을 붙여서 약간 굳힌 다음, 서서히 녹은 원료를 넣는다.

⑤ 면실을 중심에 밀어 넣는다. 심지가 제대로 서 있도록 약간 굳을 때까지 잡고 있어야 한다.

■ 조각보 장식 염주가방



시중에서 조그만 주머니 하나를 사려면 5000~12,000원 정도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 수유리 쌍문동에 사는 최수서(49)보살은 "간단한 수선기능이 있는 미니 재봉틀을 이용해 집안의 소품과 의류들을 직접 만들 수 있다"며 "집안을 뒤져 자투리 무명천만 모아도 훌륭한 염주가방을 만들 수 있다"고 조언한다.

■ 필요한 도구

다양한 천 조각, 주머니 끈(50cm) 2개, 초크, 바늘, 가위, 겉감용 무명천(가로 20cm×세로 60cm), 안감용 천(가로 20cm×세로 42cm)

■ 만드는법

① 겉감용 무명천 원단을 가로 20cm, 세로 60cm가 되도록 그어준 후 재단한다.

② 가운데는 접어 좌우 시접 1cm씩을 남기고 바느질 한다. 윗부분은 10cm정도 남겨둔다.

③ 안감도 양쪽 시접 1cm를 남기고 양 옆을 바느질 하여 겉감 안쪽에 대고 밑부분을 맞춰준다. 이때 겉감 윗부분의 남은 천을 5cm 접어서 안감 입구 부분과 함께 박아준 후, 뒤집는다.

④ 양 끝의 남은 옆선은 0.5cm가량 접어서 박아준다. 이 때 끈 끼울 수 있는 공간을 1.5cm 가량 남겨 놓아야 한다.

⑤ 끈 하나를 오른편에서 넣은 후 한 바퀴 통과시켜 빼낸다. 다른 하나도 왼편에서 넣어 한 바퀴 두른 후 빼낸다. 양쪽으로 빠져나온 실 끝을 매듭지어 묶는다.

⑥ 자투리 천을 모아 가로 12cm, 세로 9cm의 조각보를 만들어 가방 앞판의 가운데를 장식한다.

□ 사진제공: 허브앤데코(www.herbndeco.com)

글 · 사진=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민속전통 · 과학적 사유로 집대성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티베트인과 티베트의 정치적 운명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티베트문화의 위대한 유산인 <감로정요팔지비결속>, 즉 사부의전과 티베트의학에 대한 서구 지성계의 관심이 끊임없이 증대되고 있다.

필자는 1970년대 말 석지현 스님이 국내에 처음 소개하기 시작한 밀교에 매료되면서 석지현 스님의 인도 및 예루살렘 성지 구도순례기인 <혜초의 길을 따라서(1978, 열화당)>에서 티베트의학에 대한 짤막한 언급을 보고 그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지금도 별로 나아진 것은 없지만, 티베트의학에 대한 문헌이나 정보를 접하기란 국내에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티베트의학에 대한 궁금증과 지적 호기심을 가슴 한 편에 깊숙이 묻고서 십여 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1988년 고등학교 교직생활을 접고 독일 유학의 길에 올랐다. 독일에서의 유학생활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티베트의학과의 첫 대면이자 가슴 설레는 심취와 몰입의 황홀경 그 자체였다!

그렇게도 목말라하던 티베트의학에 대한 제법 많은 문헌과 자료들을 대학 도서관이나 시중 서점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영어 · 독어 · 불어 또는 러시아어 등으로 서구에 소개된 티베트의학 문헌들의 양과 질, 서구 지성계의 전폭적인 관심과 열광을 확인하고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였다. 같은 아시아권이고 몽골족 계통인 우리도 까맣게 그 존재마저 모르고 지내온 나라 잃은 '부처님의 왕국' 티베트의 전통의학에 무엇 때문에 풍요로운 최첨단 과학시대를 구가하는 서구인들이 그렇게도 열광하고 흥분하고 있는지….

건강이란 단순히 신체적으로 병이 없는 상태만은 아니다. 진정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육신에 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사회적으로 안전하며 육신이 살아 눈을 감는 순간까지 영적으로도 온전히 깨어 고양된 상태를 유지함을 말한다. 그러나 생로병사는 언제나 윤회적 존재로 이승을 살아가는 우리네 중생으로서는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삶의 중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삶이 곧 고(苦)'라고 설하지 않으셨던가!

인간은 끊임없이 세 가지 유형의 병고, 즉 자신의 육체로부터 오는 고통, 주변의 병균을 비롯한 환경 요인으로 유발되는 질환, 그리고 악령과 같은 초자연적 존재로부터 당하는 불행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다. 그래서 인류는 항상 병의 원인을 찾아내어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고안해 내고, 병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며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건강과 질병에 대한 해석은 각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에 따라 사회마다 각기 다르다.

질병에 대한 해석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
'생체에너지의 부조화' 발병원인으로 파악

초기 인류는 질병을 악의를 품은 혼령(유령, 악령, 영혼 등), 마력, 그리고 마법의 사악한 영향 탓에 생긴 것으로 생각했다. 고대 유대인들은 질병을 격노한 하나님의 저주 탓으로 보았고, 중국인들은 음과 양이란 상반되는 두 힘 혹은 오행의 부조화로 말미암은 것으로 생각했으며,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바유', '피타', '카파'라는 '트리도샤'의 균형이 깨진 결과로 보았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또 병의 원인을 점액, 흑담즙, 황담즙 그리고 혈액이라는 네 체액의 부조화로 보았다. 한편, 티베트의학에서는 '룽', '트리빠' 그리고 '베컨'이라는 세 생체에너지(생기)의 부조화 때문에 병이 발생한다고 본다.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에도 티베트에는 본교라는 일종의 샤머니즘이 토착 신앙으로 널리 유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티베트 전통의학은 불교 전래 이전 본교의 토착 민속전통과 이후 불교를 따라 전래된 합리주의적이고 과학적인 사유의 전통이 정교하게 유합되어 집대성된 것이다.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당뇨 하당(茶)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이온 알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당뇨 혈당 측정기(1Set)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아는만큼 치료할 수 있다"(책자)도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전국 1,000명)

☞ 인슐린 분비촉진, 만성피로
☞ 복용 15~20일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복용후 효과 없을시 100% 환불

"하당"을 드시면서 7일 단위로 당뇨혈당 체크기로 체크해보시면 1개월 안에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혈당 체크기를 무료로 드리는 자신만만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4-21-0800-172 예금주 : 안희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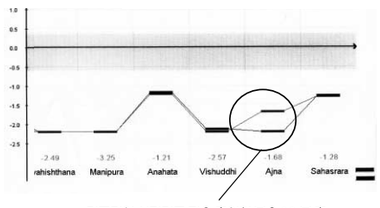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판부
주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초의환



가격 :9만원/50회분
17만원/90회분

마음의 안정과 집중, 육체적 활력을 위해서는 인체 에너지의 1/4을 소모하는 두뇌에 약50여 종의 영양소와 산소 혈액 등이 충분히 공급되고 소화기를 비롯한 각 장부의 균형이 반드시 조화되어야 합니다. 초의환은 밝고 온전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지던 선가의 비전을 토대로 하여 뇌기능 활성화, 수면단축, 피로회복, 면역력 증대, 하체 강화 등 수행인의 모든 면을 고려한 제품으로 오랜 기원과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카를리언 사진기로 찍은 초의환 복용 20 분 후
승과체 변화 그래프

地天泰 M P:010-8677-8472
TEL:02)878-2515,0502-565-7000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그동안 불황의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불자님의 경려로 연구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을유년 새해 모두의 가슴에 꿈과 희망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자님께서 변함없이 이끌어주신 기원과 격려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자비의 기쁨이 크신 선물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인생문제 특별상담!!

연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은행사 :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100분 한정)

만삼달인 물(만삼 생것 10kg · 황기 · 잔대 · 삼지구엽초 · 생강 · 대추 · 감초)
● 1Box (60포 : 20만원) ● 2Box (120포 : 3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 · P :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무등산 능선.



증심사 계곡은 크고 작은 식당이 들어서면서 점차 오염되고 있다.



물까치는 산의 높이에 관계없이 다양한 곳에서 살고 있다.





암끝검은표범나비(왼쪽)와 춘설차밭. 차밭은 등산객으로 번잡한 증심사 골짜기와는 또다른 세상이다.

높낮이 없는 깨침의 법문 가득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34) 무등산 증심사

무분별한 입산으로 초원지대 파괴, 나비 5종 사라져
'무등산 공유화 운동' 은 생태계 보존의 모범적 사례

광주 무등산은 천상 부처님의 산이다. 견줄 바 없는 무등등(無等等)이 곧 부처요,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되는 도리가 또한 무등등(無等等)이기 때문이다. 비로봉이니 인왕봉이니 하는 지명도 그를 뒷받침해 주거니와 그 골짜기의 증심사(證心寺)도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은가. 해발 1,187m는 버겁게 높지도 않고, 가벼울 정도로 낮지도 않은, 무등급의 높이이다. 지형 또한 골산(骨山)도 육산(肉山)도 아닌 무등의 산이다. 골산이라기엔 더없이 부드럽고 육산이라기엔 기암절벽의 기가 드센 산이다.

주차장에 내리면 증심사 골짜기로부터 증심천 개울이 내려온다. 비록 수량은 많지 않으나 개울엔 버들치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닌다. 가로수로 심은 튤립나무는 미국에서 들여온 낙엽활엽수로, 잎의 생김새가 튤립 꽃을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이 나무는 생장도 빠르지만, 봄날의 꽃도 예쁘고, 가을날의 노란 단풍도 화려하게 물들어 가로수나 정원수로 많이 심어지고 있는 나무이다.

도로 왼편으로 문빈정사가 자리하고 있다. 극락전 앞마당에 서양 잔디를 깔고, 잔디밭 가운데 작고 둥근 서양식 연못을 파고, 서양에서 건너온 수생식물인 물배추를 연못 위에 동동 띄웠다. 전통사찰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당히 용서되는 조경이다.

극락전 마당에서 만난 산은줄표범나비는 남부지방에서는 채집 기록이 없는 희귀종이다. 산은줄표범나비는 날개의 편 길이가 8㎝를 넘는 중형 나비이다. 주로 6~9월에 나타나는데, 가을에 부화된 유충이 겨울을 난다. 이듬해 봄에 번데기를 형성했다가 늦은 봄에 성충으로 날개를 단다.

무등산의 나비는 1994년까지 모두 105종이 보고되었으나, 그 중 상제나비, 담색어리표범나비, 암어리나비, 큰수리팔랑나비, 꽃팔랑나비 등 5종은 2000년대 들어 사라져버렸다. 환경용량을 무시한 무분별한 입산으로 무등산 저지대의 초원지대가 파괴된 데 따른 감소로 추정된다.

등산로 오른편으로 '무등산공유화운동' 표지판이 서 있다. 난개발을 막아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무등산 공유화운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다. 지금도 시민들이 무등산 도립공원 내 사유지를 속속 내놓고 있다. 증심사도 이 운동에 동참해 사찰림 일부를 내놓기로 했다.

증심사로 가는 길의 좌우에는 크고 작은 식당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그래서 주위의 환경 파괴와 수질오염이 영 말이 아니다. 주차장 쪽보다 훨씬 위쪽인데도 개울은 4급수에 산다는 실지렁이마저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썩어있다. '물 맑을 징(澄)' 자를 써서 징심사라고도 했다는 옛 전설을 무색케 하는 현실이다. 다행히 광주시에서 2007년까지 460억원을 투입해 이 지역의 식당과 상가들을 철거해 아래쪽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토지보상을 시작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과도한 요구와 당사자간 이해충돌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오백전은 증심사에서 가장 오랜 조선시대 전각이다. 세종 때 전라감사 김방이 오백나한과 10대제자의 성상을 만들어 봉안하고 고을의 평안을 기원했다고 한다. 보수공사에 들어간 대웅전 주변으로는 중부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팔손이, 당종려, 동백, 대나무 등등의 난대수종이 눈에 띈다. 극락전 앞으로 느티나무들이 눈맛 좋게 단풍이 들었다.

종각 아래 큰 감나무 주위에 물까치 몇 마리가 앉아 깃털이를 하고 있다. 깃털 사이에 숨은 기생충을 털어 내고 깃털을 말리거나 바람을 쐴 때 새들은 깃털이를 한다. 물까치는 야산에서부터 높은 산에 이르기까지 넓게 서식하는 텃새이다. 대여섯 마리씩 무리를 지어 날아다닌다.

증심사 지구에서 관찰된 겨울철 조류는 물까치를 비롯하여 직박구리, 딱새, 굉, 멧비둘기, 어치, 붉은머리 오목눈이, 멧새, 참새, 까치, 쇠백로, 박새류, 딱다구리류 등이다. 10월 조사에서는 꾀꼬리와 노랑할미새 등의 여름철새도 관찰되었다.

취병루 앞에서 왼쪽으로 춘설차밭으로 오르는 길이 나 있다. 키 작은 탱자나무 생울을 끼고 10분여 오르면 차밭이 나온다. 차밭은 등산객으로 번잡한 증심사 골짜기와는 또 다른 세상이다. 해방 후 의재 허백련 화백이 하늘과 사람과 땅을 사랑하리라 해서 '삼애다원' 이라고 이름 붙인 차밭이다.

날개띠좀잠자리 한 마리가 풀밭에 앉아 가을명상에 잠겨 있다. 날개띠좀잠자리는 비교적 가을 늦게까지 볼 수 있는 잠자리이다. 가을에 만나는 수컷은 고추좀잠자리처럼 몸 전체가 빨갛고, 날개의 띠도 갈색을 띤다. 다른 수컷이 자기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꼬리를 하늘로 쳐들어서 위협한다.

차밭 위로는 소나무 숲길이다. 무등산에서도 소나무는 능선쪽에 분포되어 있다. 문빈정사 뒷 능선에서부터 시작된 소나무 숲길은 이곳을 지나서 토끼등까지 이어져 있다. 이곳 소나무들은 참나무들과의 세력다툼에서 밀려서 능선으로 쫓겨 올라온 것이다.

임상에 후계목이 없는 것을 보니 이 소나무 숲도 내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증심사에서 약사사까지는 시멘트 포장도로이다. 길옆 개울물이 마른 것은 갈수기의 영향도 있지만, 아래쪽에 자리한 식당촌에서 상류 곳곳에다 파이프를 박아서 개울물을 뽑아가기 때문이다. 수량이 줄면 수질도 함께 떨어지는 법, 그래서 소(沼)에 고인 물이 하나같이 흐리다.

냉이는 추위에 강해서 겨울에도 죽지 않고 푸른 잎으로 난다. 냉이는 십자화과에 속하는 두해살이 식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푸른 잎사귀가 붉은색으로 변한다. 한방에서는 두통이나 해열 등의 약재로 쓰고, 민간에서는 이른 봄에 나물로 먹는다. 사찰음식에서도 단골 재료이다.

주변 숲은 소나무가 섞여 있는 전형적인 혼효림이다. 참나무류를 비롯하여 초피나무, 주엽나무, 상산, 붉나무, 굴피나무, 꾸지나무, 개서어나무, 팥배나무, 생강나무, 때죽나무, 비목, 자귀나무 등과 함께 난대수종인 송악, 예덕나무, 줄사철나무, 마삭줄, 차나무 등이 어우러져 화엄을 이루고 있다.

햇살 풀섶에 섬서구메뚜기 한 마리가 미동도 없이 앉아있다. 섬서구라는 이름은 몸의 생김새가 마치 볏단을 쌓은 섬서구같다고 해서 붙은 것이다. 주변이 가을색으로 서서히 바뀌어가면 섬서구도 초록색에서 서서히 갈색으로 단풍이 든다. 단풍색은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보호색이기도 하다.

서식하는 동물을 보면 그 산의 자연도를 간접적으로 짚어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무등산 자연생태보고서에도 멧돼지, 노루, 고라니 등이 기록되지 않은 걸 보면 무등산도 그 이름이 날로 무색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약사사 일주문을 지나 돌계단을 오르면 왼쪽으로 텃밭이 있다. 노 보살 두 분이 텃밭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채소를 다듬고 있다. 텃밭 옆으로 다락형 전통해우소가 있으나, 지금은 분뇨차가 올라와서 퍼간다. 냄새가 나서 변소칸을 벽돌로 쌓고 철문으로 막았지만, 더러운 것은 틀어막을수록 냄새가 더 나는 법이다. 차라리 널판으로 엉성하게 짜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등산로는 약사사를 비켜서 새인봉 삼거리로 이어진다. 해발 608m의 새인봉은 암벽등반지이다.

전망이 좋아서 천왕봉, 서석대, 중머리재 등이 보인다. 중머리재는 무성하게 자란 억새밭 능선의 생김새를 빗대어 지은 이름이다.



은단풍나무 숲은 등산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 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조립등



공단등 (비단등 실크등)



종 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